土助洞地名誌

金 剛 山 著

태 백 문 화 원

題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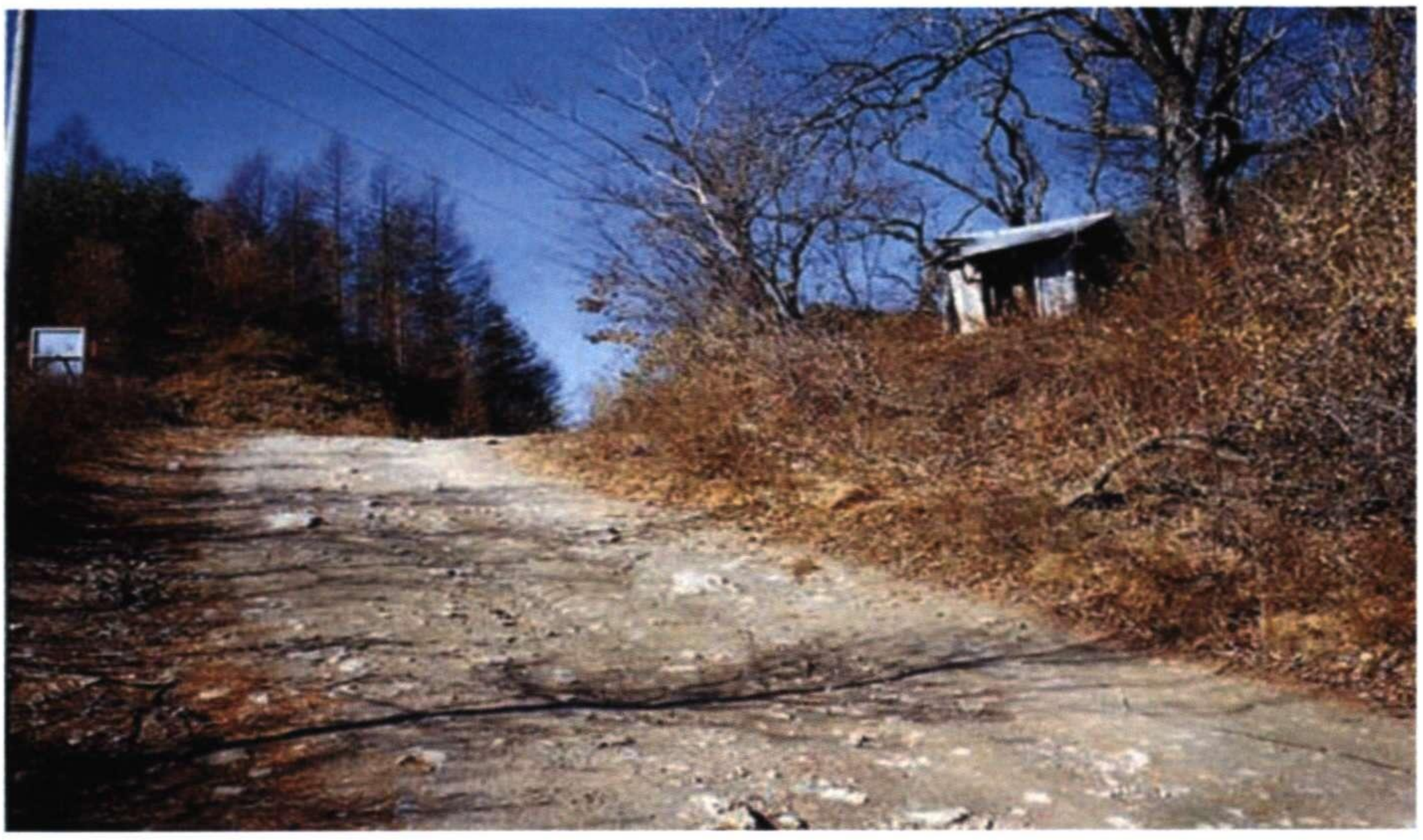
太白山人 天潢 金剛山

土助洞地名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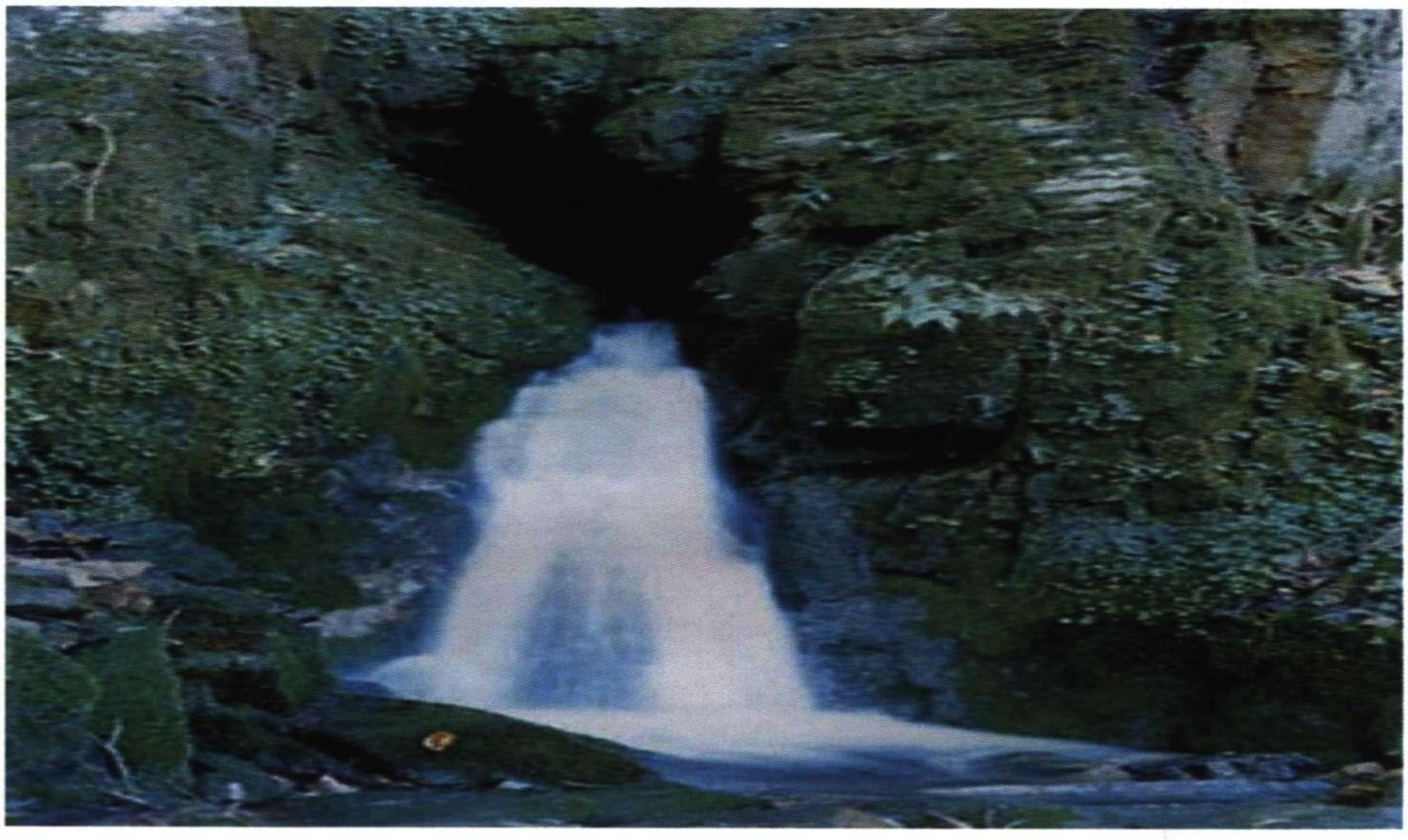
金剛山 著

태 백 문 화 원

원동의 월둔굴



상사미의 건의령



하사미 조리골의 용혈

덕항산

귀네미골의 큰재

귀네미골 어귀의 약물래기

하사미의 구부시령

조탄마을 성황당 전나무

지명은 향토문화의 보고

태백문화원장
김 강 산

사람에게 성명(姓名)이 있듯이 땅에는 지명(地名)이 있기 마련이다. 그 지명이란 것이 수천 수백년을 유전하여 오면서 그 지역의 향토의 역사를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으니, 지명이야 말로 향토 문화의 보고이자 향토역사의 매장문화재와 같은 존재이다. 지명을 알면 그 지역의 역사가 보이고 지명을 이해하면 그 지역의문화를 알 수 있다.

사조동은 원래 원동리, 상사미리, 하사미 1리, 2리, 조탄리 등 5개리로 되어 있던 곳인데 지금으로 부터 12년 전인 단군기원4327년(서기1994년) 12월 26일자로 삼척시 하장면에서 태백시로 편입된 지역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 때 죽령현(竹嶺縣)으로 태백시와 하장면이 같은 지역이었고 신라 때는 죽현현(竹峴縣)으로 역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 동네였다.

이어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장생리(長生里)로 같은 동네였고 영조때 상장생리와 하장생리로 갈리기 전까지는 한결같이 한 동네였던 것이다.
비록 12년전 행정구역 개편 때 하장면 전체에서 5개리만 편입되었지만 근본 뿌리가 같은 마을끼리 합친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고 머지않아 하장면도 같은 뿌리의 통합을 간절히 원하며 그것이 양 지역이 장생(長生)할 묘책이라 본다.

사조동(士助洞)은 상사미(上士美), 하사미(下士美)에서 사(士)를 따고 조탄(助呑)에서 조(助)를 따고 원동(院洞)에서 동(洞)자를 따서 사조동(士助洞)으로 명명한 것이니 5개리의 통합을 상징하는 행정동명(行政洞名)이 되었다.

편입되자마자 지명조사를 하였으나 그동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만시지탄이나 이제사 작은 책자로 지명의 정리가 이루어졌다.

나름대로 정리하였으나 부실하고 누락된 곳이 없지 않으니 차후 보완하기로 하고 동민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사조동지명지가 나오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

사조동 지명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태백시장
박 종 기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김강산 태백문화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조지역 지명유래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사조동 지명지가 발간이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지역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널리 알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소중한 자료로 쓰여질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조지역은 1994. 12. 26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하여 삼척시 관할에 있던 조탄, 원동 등 4개 마을이 우리 태백시로 편입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의 이익을 가져 왔습니다.

원동마을에 소재한 강원도기념물 제58호인 월둔동굴을 포함하여 귀네미 마을에는 7만평의 부지에 30여 가구가 고랭지배추를 작목하며 태백이 그 어느 고장보다 밝고 아름다운 천혜의 고원 휴양도시임을 전국에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조지역에 대하여 늦은 감은 있지만 12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소중한 자료가 김강산 태백문화원장님의 열정으로 수집됨에 아낌없는 찬사와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는 거대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의 핵심적인 기간산업입니다. 문화의 창달 없이는 국가의 부강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5일제 근무 등 새로운 레저 패턴의 변화가 일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부응한 문화관광 전략의 추진으로 자연자원과 인문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속성장 가능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휴양도시 태백"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발간되는 사조동 지명지가 우리고장의 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횃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태백문화원이 지역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향토문화의 초석을 놓다

태백시의회의장
김 정 식

태백문화원에서 사조동에 대한 지명유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조동 지명지」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지 않고는 그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와 정보, 통신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세계는 단일화 되고 있지만, 민족성과 예술 같은 사회 · 문화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개성이 더욱 중요해지며 한 나라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시대」중심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의 숨결과 얼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또한, 긴 역사를 지니고 있고 고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멸실되면 영원히 재생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사조동 지명지」의 발간은, 우리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지명유래를 체계적으로 기록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는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조동의 지명유래를 모아서 그 내용도 알차고 풍부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으로 압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이를 통하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담겨진 교훈과 멋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가꾸어가는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자 발간에 수고해 주신 김강산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조동 지명지」가 태백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태백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토사의 근간서

태백교육청교육장
김 기 중

미래의 땅 강원, 그 중에서도 강원의 각종 특성과 이미지를 대표하는 태백은 민족의 영산 태백산이 있고,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를 갖고 있는 청정 자연환경과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강원의 상징입니다.

이곳 태백은 지난날 탄광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레저 스포츠의 중심, 고원 휴양 도시』로서 그 이미지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우리 고장만이 간직한 수려한 자연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사계절 대단위 산악형 관광레저단지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땀과 노력의 결실을 하나씩 쌓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태백문화원에서도 문화학교운영, 문화사랑방 사업, 향토조사 · 연구사업, 향토행사 사업인 낙동강 발원제, 천제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주관하며 향토 문화를 가꾸어 태백 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애향심 고취는 물론 내 고장 알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시가 1983년 시 승격이 되며 1994년 삼척군 하장면 4개리가 태백시에 편입되어 사조동을 신설하게 되었고, 그 후 사조동은 1998년 행정동 통폐합이 되면서 삼수동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조동 지명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김강산 문화원장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태백 문화 활동을 한데 모은 이 책은 향토사를 재조명하고 향토사의 근간서가 되어 보다 발전된 태백문화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어 태백시민의 건강과 우리 태백문화가 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며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 차

화 보 ---------- 7
발간사 ---------- 김강산 11
축 사 ---------- 박종기 12
축 사 ---------- 김정식 13
축 사 ---------- 김기중 14
원 동(院洞) ---------- 23

큰 터, 대기(大基), 대기촌(大基村), 죽현원터(竹峴院址), 굴물, 새덕, 새덕골, 된양지, 새굴, 울둔골(鬱屯谷), 월둔골(月屯谷), 월둔(月屯), 서낭당(月屯谷城隍堂), 설통바우, 절터, 샛골, 고무진골, 바른골, 월둔동굴(月屯洞窟), 고패이골, 핏골재골, 핏골재, 가름매기, 조개번지, 조개등, 조개바우, 조개장터, 대덕산(大德山), 막조밭굼, 말좆밭굼, 가달밭굼, 진묵밭, 작은 통골, 큰 통골, 연통굴, 통골봉, 작은 맷골, 큰 맷골, 작은 맷등, 장학골, 작은 장학골, 속새골, 작은 속새골, 약물래기, 누룩바우, 정치맞골, 울둔(鬱屯), 배재(拜峙), 널문재, 울둔재, 국수댕이, 연작골(燕雀谷), 연자귀(鷰子歸), 원골, 굴뚝쏘, 굴뚝쏘깨, 서낭당, 서낭뒷골, 능금나무깨, 임금정(林檎亭), 새물웅덩이깨, 선바우, 서낭터, 서낭등, 큰 맷등, 수리봉, 도롱골, 도롱골 양지, 대밭골, 솔머리 양지, 설대밑골, 설대, 설대밑, 독밑등, 선동재, 어리동재, 삿갓봉, 작은재피골, 큰 재피골, 평바디기, 평정밭깨, 도꾸번디기, 숯꾸굼, 쏘머리양지, 가마쏘, 줄병, 줄병바우, 줄병밑, 호식총(虎食塚), 달밭굼, 가리마골, 늪통매기, 고무구멍깨, 원골재, 용수골 재, 곳집, 곳집깨, 곳집 모랭이, 곳집 모팅이, 미모랭이, 평지, 평지말, 평지골, 투구봉, 맹골, 멧벌, 납닥소나무, 금밭등, 천제당굼, 차돌배기, 담많은 밭골, 느릅나무골, 쉰패랭이 구뎅이, 동배나무굼, 산제당골, 청어등, 청어장터, 누룩바우, 맷돌바우, 국시당, 서낭당(평지골 서낭당), 피난굴, 굴물, 굴물깨, 암작골, 앞선동, 산작골, 할미쏘, 솔밭밑, 칠밭 양지, 탕감봉, 탕건봉, 수리병, 수리병장등, 작은 수리병골, 큰 수리병골, 작은 다래골, 큰 다래골, 터깨, 터깨골, 재마을, 새마을, 재마을골, 전나무 배기, 태재, 삿갓봉, 가리골

재, 살개목, 큰서낭, 서낭골, 평지밭깨, 일정골, 작은 일정골, 재피골, 노장골, 작은 노장골, 호랑이굴, 토끼바우, 가덕, 가덕산, 샛벌, 논깨, 큰 뫼터, 미동초등학교, 점터, 원동수원지, 삼굿깨, 덜수길, 가덕골, 진배리, 진배리산, 복쿠쏘, 너레골, 미네골, 고무덕골, 고무덕, 싸리덕, 미덕(米德), 미덕산(米德山), 음달산, 갈번지, 큰 늪, 소늪, 화산봉(火山峯, 花山峯), 뼝때깨, 줄솔, 한작골, 한점터, 점터, 꽃밭등, 철굴, 쇳구뎅이, 상촌(上村), 중촌(中村), 하촌(下村), 죽현천(竹峴川), 원동 무후제(院洞無后祭), 태백경찰서 사조분소

상 사 미 (上士美) ---------- 79

창말(倉村), 사미창터(士美倉址), 창터, 서창(西倉), 창말버덩, 장사미(長蛇尾), 돛대바우, 갈미바우, 고직이재, 늪물, 새미, 포항구뎅이, 고려장터, 약물래기, 뒷골, 배나무골, 큰덜수, 서낭당터, 깨나무골, 오꼬리굴, 오소리굴, 고려장터, 노장골, 곳집골, 곳집터, 사슴매기등, 장군바우, 사슴매기굴, 거무산, 검은산, 흑운산(黑雲山), 작은등, 진등, 왜쌈모랭이, 왜쌈모퉁이, 왜쌈모테, 의병뫼깨, 짐대배기, 임무소깨, 횟굴, 굴뚝굴, 횟골, 횟골굴, 돌모랭이, 묵뫼깨, 새목이등강, 부정당(不淨堂), 부정당(富鼎堂), 디디기벌, 배형국묘, 게늪, 게형국묘, 건의령(巾衣嶺), 건의령당(巾衣嶺堂), 밤밭재, 숯굽배기, 도둑바우, 둘밭, 웃둘밭, 거리밭, 안둘밭, 둘밭골, 삼밭, 삼마골, 늪펄, 성터, 벼루쏘, 달밭나들, 달밭, 큰골, 큰굼, 달밭늪, 정승터, 문안등, 문안거랑, 문안골, 기미쏘, 정승고디, 앞산, 호랑골, 외갈나무쟁이, 외갈나무터, 외갈나무골, 맷등, 목넘이, 동산고디, 호식총, 화냥바우, 열녀바우, 서낭당, 숯꾸배기, 짐대배기, 고무실, 고무실골, 담시밭골, 쉰패랭이 구뎅이, 쉰패랭이굴, 모래등, 머리등, 쿠시당, 국시당, 면산(免山), 삼밭골, 사조동사무소, 삼밭골 서낭당, 물숨깨, 대장멧골, 시도말재, 새목이, 작은 물방아골, 큰 물방아골, 호식총, 점터거리, 황철배기, 황철쏘(黃鐵沼), 한질쏘, 쏘깨, 뼝때밑, 상사미 가압장, 황철촌(黃鐵村), 호랑골, 남애번지, 큰갈밭골, 큰굼, 물굴, 작은갈밭골, 줄바우, 덫목이, 시굿배기, 숯꾸배기, 살구나무골, 삿갓봉, 목상집터, 천제당골, 개구리늪, 통방아터, 절골, 솔목이, 물통방아터, 소바우, 방아폭포, 너래폭포, 재피골, 물나오는 담, 맷벌양지, 샛골, 물바우, 서낭뒷골, 서낭당, 뱀죽은 집터, 도마직골, 멧골, 횟골, 뒷

골, 암물, 숫물, 절터, 면산골, 벼락고디, 신선바우

하 사 미 (下士美) ---------- 128

점말, 점촌(店村), 점터, 점터거리, 탑거리, 하사미분교장(下士美分敎場), 가리골, 덕새, 고총메기, 봉태미골, 치쏘, 구이쏘, 새걸양지, 새걸양지 꼭대기, 호식총, 작은 너다리골, 큰 너다리골, 서낭당, 서낭골, 숯골, 배나무골, 아랫말, 도장골, 살개봉, 은골, 호식총, 텃골, 물방아던티, 조리골, 옻샘, 늪통골, 늪통, 건늪통, 안늪통, 속새등, 원동목이, 가리골재, 원동목이골, 수통굼, 장병, 호랑이 구녕, 굴안, 용혈(龍穴), 용혈폭포, 옻물, 산령각터, 이심이굴, 당목이 거랑, 당목이, 새구녕, 작은조리골, 절터, 절터굼, 뼝때, 고무구녕, 너레마골, 새너레마골, 원터골, 서낭당, 산제등, 산제당골, 산제딩이, 아래벌받골, 웃벌받골, 곰구녕, 점터, 가매후미골, 사태굼, 굴등, 할미바우, 영감바우, 명주목이, 가매후미, 웃가매후미, 삼봉산(蔘峯山), 심봉, 삼봉, 아랫가매후미 , 국시댕이, 대밭골, 서낭터, 안동밭굼, 번더구니, 괴비밭굼, 큰굼, 새물내기, 원골재, 원동재, 태재, 시루봉, 만경대(萬頃臺), 호식총(虎食塚), 돌개쏘, 빈집골, 전나무골, 팥밭골, 신거터, 서낭당, 서낭딩이, 큰늪, 재피골, 석이바우골, 석이바우, 서낭뒤, 물방아골, 곱사밭골, 부처바우, 산제당, 상촌(上村), 웃말, 심밭골, 퇴끼바우고디, 퇴끼바우, 골양지, 덕시, 산제당골, 차돌배기, 서낭골, 바람골, 큰묘목밭, 늦은목이, 삿갓봉, 농바우, 뒷골, 개금둔지, 장승백이, 늪통목이, 외나무골, 오목골, 첫물양지, 새물래기, 재삼밭굼, 예수원, 삼천이밭골, 샘깨, 텃골, 자작정이, 산제당골, 농바우, 양바리밭굼, 큰양바리밭굼, 심춘우밭다물, 새목이, 다래미눈물재, 화장터, 구부시령(九夫侍嶺), 삿갓봉, 송정촌(松亭村), 송촌, 작은가래골, 차돌광주묘, 짐개들뫼등, 큰가래골, 대추골, 산제당골, 큰사랍, 덕메기, 덕항산(德項山), 무쇠골, 무사골, 무사동, 거북늪, 상사고디, 투장목이, 귀병, 앞귀병산, 호식총(虎食塚), 돌모랭이, 서낭뜨렁, 귀네미골, 우이곡(牛耳谷), 국시댕이, 배나무쟁이, 황지거랑, 약물래기, 약수둔지, 두터부골, 절골, 절터, 농바우, 시굿배기, 새굴, 천제당말랭이, 샛귀네미골, 샛골, 작은샛골, 매골, 자암재골, 자암재, 꼬막등, 용추메기, 도장바우, 도장바우굴, 물골, 바른골, 덕말재, 큰재, 우이령(牛耳嶺), 구멍바우, 구녕바우, 구멍바우쏘, 아랫버덩, 연자방아터, 잘매바우거리, 자매바우거리, 천포(泉

浦), 샘깨, 웃버덩, 고사리밭재, 화장터, 샘깨골, 큰굼, 작은굼, 독바우, 장군석, 골말, 서낭당, 서낭목이, 늪깨, 논깨, 장자터, 골양지, 정말령, 이르석이, 뼝깨도리, 뼝뒤, 금구뎅이

조 탄 (助呑) ---------- 191
도릉골(桃陵谷), 알보당, 알버덩, 도릉사탑(桃陵寺塔), 탑거리, 피륵드렁, 피록산(彼鹿山), 도릉분교터, 굼무골, 가산등, 노가재, 회재, 넘은골, 지골(址谷), 알보당 저수지, 부자터, 절골, 절터, 성황당(조탄성황당), 중서낭당, 부도바우, 조탄동 전나무, 등재, 우물둔지, 솟대배기, 쬐기골, 심우대골, 심푸대골, 큰골, 삼대봉(蔘垈峯), 살개바우, 살개바우등, 시무대산(矢武臺山), 너레물, 샛골, 쇠바우등, 오랑캐판등, 상산재, 떼밭머리, 작은 절골, 솔봉(松峯), 청송봉, 산제골, 숯꾸배기, 가래장골, 느뱅이골, 느뱅이, 물굴, 제당앞, 제당깨, 배판골, 맷벌양지, 장구메기, 선동산(仙童山), 렁텅이 들, 구렁텅이버덩, 사궁대射弓臺), 작은 주머니밭골, 산제당, 주머니밭골굴, 큰주머니밭골, 웃버덩, 웃버덩들, 휘꾸모랭이, 선동네뫼등, 개무덤, 선조산(仙助山), 지르매재, 큰 벼락바우골, 벼락바우, 작은 벼락바우, 역김이골, 고무훌치기, 동산터미, 더트매골, 새별양지, 퇴재, 식기설(食器穴), 박죽설, 굴뚝무지, 잿밭마간, 공세뜰(公稅坪), 가재등, 욕개골, 큰굼등, 개무덤, 지각산(地角山), 아홉구미, 도릉장(桃陵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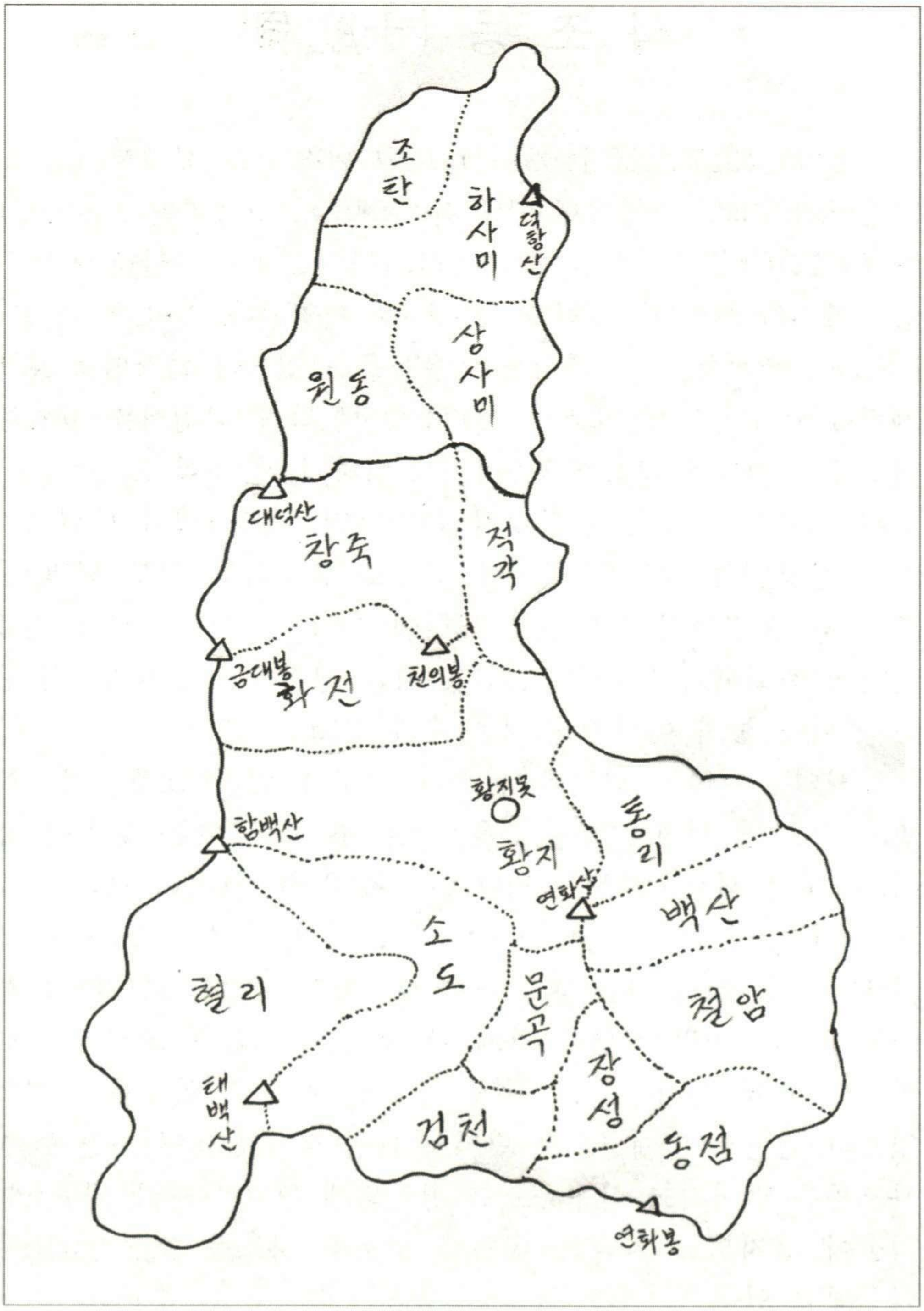
색 인 ---------- 225
지명조사에 대담하여 도와 주신 분들 ---------- 233

사 조 동 (士助洞)

단군기원4327년(서기1994년) 12월 26일자로 삼척시(三陟市) 하장면(下長面) 관할이던 원동리(院洞里), 상사미리(上士美里), 하사미1리(下士美一里), 하사미2리(下士美二里), 조탄리(助呑里) 등 5개리(五個里)가 태백시(太白市)로 편입된다. 당초에 하장면(下長面) 전체를 편입 대상으로 운동을 하였으나 하장면의 토착세력들이 신흥도시 태백시 보다는 전통적인 삼척시를 택하는 바람에 태백시와 인접한 5개리만 편입하게 된 것이다.

편입 운동을 하는 관정에서 하장면의 토착세력과 대화하며 서로 상생하는 묘안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주도 하는 사람들의 공명심이 도리어 그들의 반발을 사서 전체 편입이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놓친 애석함을 지울 수가 없다.

당시의 5개리는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많지 않아 5개리를 합쳐 새로운 행정동(行政洞)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었다. 그래서 새로운 행정동명(行政洞名)을 짓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 상사미(上士美), 하사미(下士美)의 사(士)자를 따고 조탄(助呑)의 조(助)자를 따고 원동(院洞)의 동(洞)자를 따서 사조동(士助洞)이라 작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듬해 상사미의 삼밭골 어귀에 동사무소를 지어 사조동사무소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단기4331년(서기1998년) 9월 10일 사조동은 없어지고 삼수동으로 편입되게 된다. 사조동사무소는 기능이 정지되고 지금은 태백시 보건소 사조동 보건진료소로 이용되고 있다.


조탄
하사미
덕항산
원동
상사미
대덕산
창죽
적각
금대봉
화전
천의봉
황지못
함백산
황지
동리
연화산
백산
소도
혈리
문곡
장성
철암
태백산
경천
동점
연화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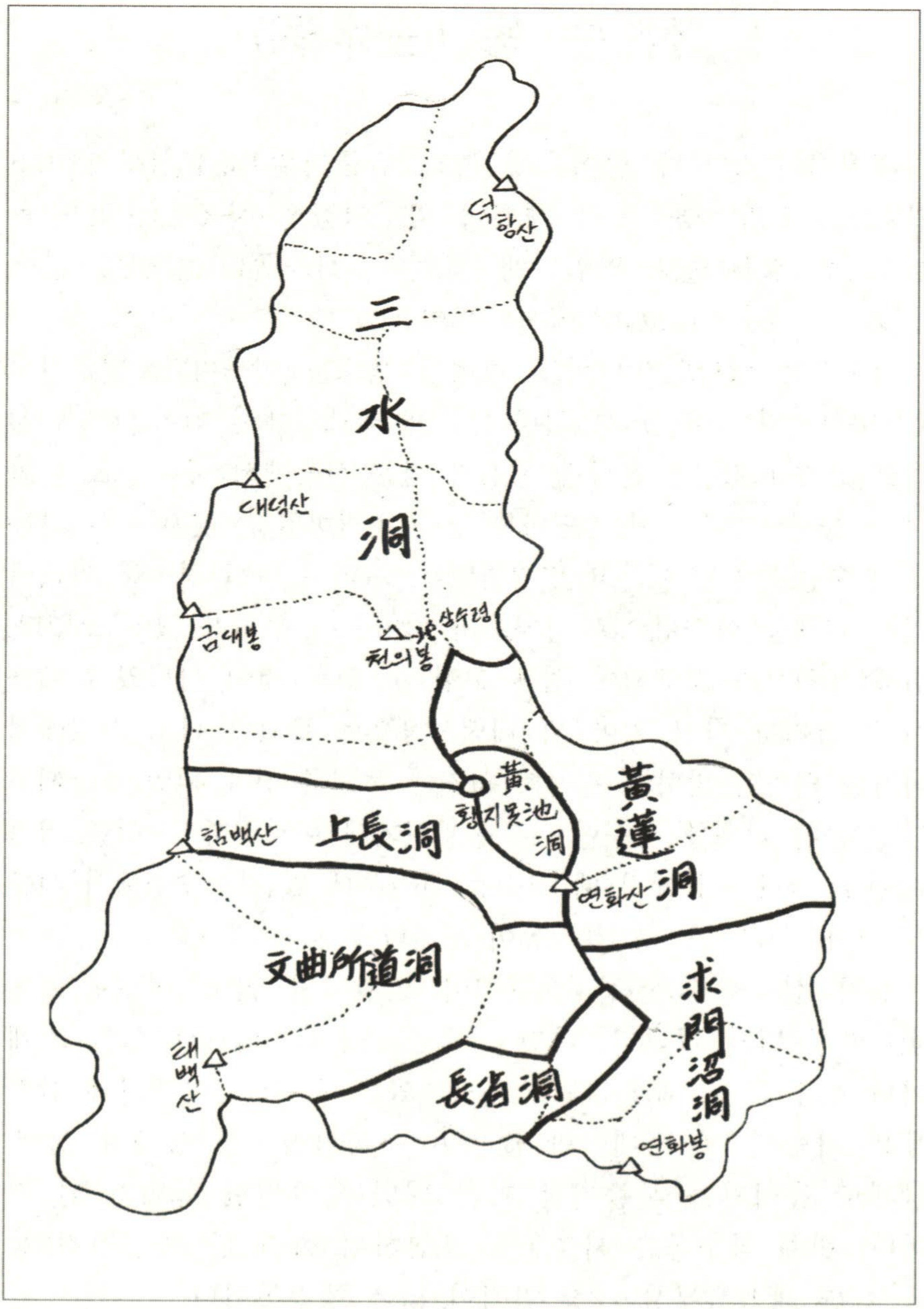
태백시 법정동

삼 수 동 (三水洞)

태백시의 인구가 줄어듬에 따라 단군기원4331년(서기1998년) 9월 10일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고 사조동(士助洞)은 삼수동(三水洞)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삼수동(三水洞)의 삼수(三水)는 삼수령(三水嶺)에서 그 이름을 따 온 것이다.

삼수령은 어디인가? 바로 피재의 새로운 이름이다. 단군기원4319년(서기1986년) 경 필자가 피재 꼭대기에서 천의봉(매봉산) 쪽으로 약 600여m 올라간 지점의 작은 산등에서 삼강(三江 : 한강, 낙동강, 오십천)이 발원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필자는 그 산등을 삼수등(三水嶝)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나서 삼수등 아래에 있는 피재를 삼수령으로 고치고자 하였으나 무리가 있어 보였다. 피재의 역사가 오래되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태백시장으로 부임한 나모 시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말하자 필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꾸준히 피재를 삼수령으로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결과 12년후 행정구역 개편 때 삼수동 한가운데 있는 삼수령에서 이름을 따서 삼수동이라는 행정동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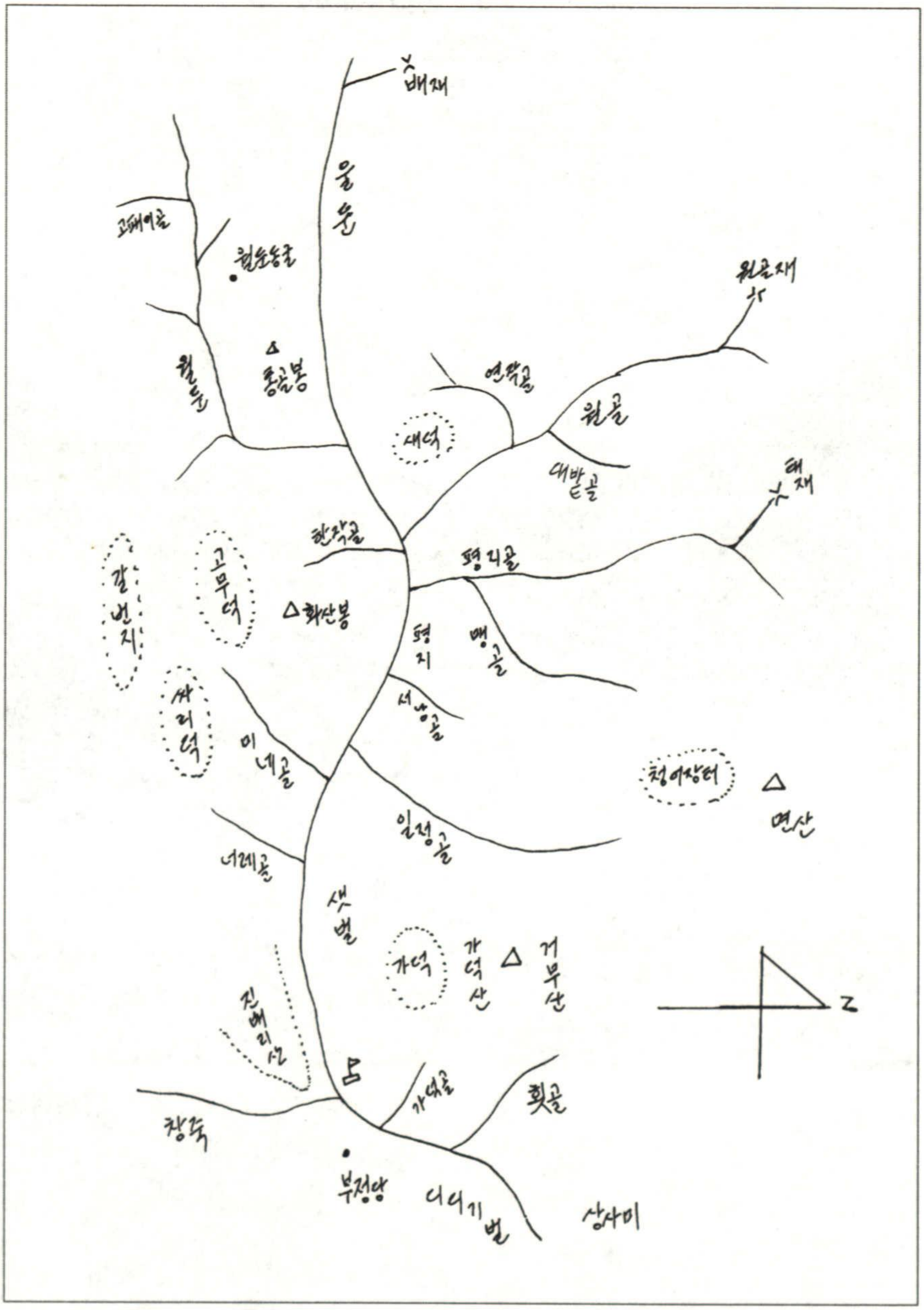
실지 삼수령에는 삼강(三江)이 발원되지 않고 이수령(二水嶺) 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삼수등(三水嶝) 아래에 있는 고개이니 삼수령(三水嶺)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쨋거나 삼수동은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동해와 서해, 남해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동네가 된 것이다. 현재 삼수동은 사조동을 포함하여 화전 1, 2동, 황지3동을 합한 태백시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행정동이다.


덕항산
三
水
洞
대덕산
금대봉
천의봉
상수리
黃、
황지못池
洞
黃
蓮
洞
연화산
上長洞
함백산
文曲所道洞
태백산
長省洞
求
門
沼
洞
연화봉

현재의 태백시 행정동

원　동 (院洞)

원동마을


고래이골
월순동촌
월순
△통순봉
을순
원골재
연작골
원골
대덕
대발골
해재
한작골
평지골
갈번지
고무덕
△화산봉
평지
맹골
서방골
싸리덕
이네골
청어장터
△
연산
일정골
너레골
샛벌
가덕
가덕산
△
거무산
진메리산
占
가대골
횟골
창죽
부정양
디디기벌
상사미
Z

원 동(院洞)

원동(院洞)은 고려시대 국립여관에 해당하는 원(院)이 있었던 곳으로 그 이름을 따서 원이 있는 동네라고 원동(院洞)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 원동의 큰터(大基)라고 하는 곳에 죽현원(竹峴院)이 있었는데 삼척에서 정선 지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지방으로 출장 나온 관리나 일반 여행객 등이 지나가다가 숙박을 하고 가는 곳이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역원(驛院)조에 보면

「죽현원(竹峴院)은 삼척부에서 서쪽으로 80리에 있다」(竹峴院在府西八十里)

라고 한 것이 바로 원동 대기(큰터)에 있던 죽현원을 이르는 것이다.

처음에 월둔골(月屯谷) 큰터(大基村) 연작골(燕雀谷)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마을인데 지금은 평지마을이 중심이 되어있다. 한 때는 상촌(월둔), 중촌(평지), 하촌(샛벌) 등 3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조선조 말기에는 연작골에 화전민들이 많이 살아 연자귀(鳶子歸)라 하였는데 하장면 관할 32개 리(里)의 하나였을 정도였으나 일제 침략 뒤에 원동에 통합되었다.

단군기원 4327년(서기1994년) 12월 26일 삼척시(三陟市) 하장면(下長面)에서 태백시(太白市)로 편입된 법정동이나 행정동인 사조동(土助洞)에 속했었고 단군기원4331년(서기1998년) 9월 1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그 뒤로는 삼수동(三水洞)에 속해 있다.

조선조 광해군 때 윤씨(尹氏)들이 숙종 때 전주 이진영(全州李震英) 등이 이주하여 왔고, 그 후 이(李) 정(鄭) 박(朴) 최(崔) 김(金)씨 등이 점차 이주하여 왔다.

호구수(戶口數)는 단군기원4092년(서기1759년)인 영조 35년 기묘장적(己卯帳籍)에 의하면 49호(戶)에 남자 155명 여자 147명 등 302명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제 강점기인 단군기원 4249년(서기1916년)에는 50호 270명, 단군기원 4295년(서기1962년)에 66호 377명, 단군기원4315년(서기1982년)에 61호 294명, 태백시로 편입된 뒤인 단군기원 4329년(서기1996년)에 44호 149명이다가 단군기원 4339년(서기2006년) 현재 48호 152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남쪽은 창죽동에 접해 있고 북쪽은 하사미동과 삼척시 하장면 어리에 접해 있으며 서쪽은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에 동쪽은 상사미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대덕산은 남쪽에 솟아 창죽동과 경계에 있고 마을 북쪽엔 면산(免山)이 솟아 상사미동과 하사미동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도로는 상사미동을 지나는 35번 국도에서 갈라져 들어온 412번 지방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울둔에서 배재를 넘어 삼척시 하장면 어리로 통하는 길과 울둔에서 울둔재를 넘어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로 넘어가는데 2차선으로 포장 되어 있다.

농작물은 고랭지 채소가 주종을 이루고 그밖에 콩, 옥수수, 감자, 약초, 산채 등을 재배하고 있다.

조선조 말엽에 철광산과 금광, 은광이 성했는데 일제 강점기에도 생산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도 철광산이 가동됐고 일부 석

회석도 생산하였다.

특히 원동의 철(鐵)은 품질이 좋아 원동에서 캔 철광석을 창죽의 점말 둔덕으로 옮겨가 제련을 하였었다.

월둔골에는 강원도 지정 기념물 제58호인 월둔동굴(月屯洞窟)이 있고 고무덕에는 울진 원전에서 보내온 765kv 송전시설이 들어서 있다.

단군기원 4273년(서기1940)년 11월 30일 개교한 미동 초등학교가 거무산(가덕산) 아래에 있고 학교 아래쪽에는 태백시 원동수원지가 있으며 학교 건너편 진배리 끝에는 태백경찰서 상사미파출소가 있다.

● 큰 터

원동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곳으로 예전에 죽현원(竹峴院)이 있었던 곳이다. 한 때는 대기촌(大基村)이라 하여 원동의 자연부락 3곳 가운데 하나로 사람이 많이 살았으나 지금은 몇 집 살지 않고 평지촌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음으로 소지명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큰터를 대기(大基)라 부르기도 하고 대기촌(大基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옛날 번성하던 모습은 볼 수 없고 제법 넓은 밭이 펼쳐져 있다.

● 대기(大基) → 큰 터

● 대기촌(大基村)

옛날 큰터 부근에 있던 자연부락 이름이다.

● 죽현원터(竹峴院址)

큰터에서 새덕 아래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곳은 정선쪽과 삼척쪽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로로써 지방으로 출장 나온 관리들이나 길손들이 묵어가던 국립여관과 같은 곳으로 삼척 관할의 평릉역(平陵驛)에 속해 있다가 교가역(交柯驛)에 속하였다.

죽현원(竹峴院)이란 이름은 댓재(竹峴) 넘어에 있는 원(院)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며 죽현원에서 흐르는 하천이 북류하여 정선으로 이어지는데 그 물줄기를 죽현천(竹峴川)이라 불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삼척도호부(三陟都護府) 역원(驛院) 조에 보면

「죽현원(竹峴院)은 삼척부에서 서쪽으로 80리에 있다」(竹峴院在府西八十里)

라고 한 것이 이곳을 이르는 것이다.

● 굴물

큰터 안쪽 된양지 산 밑에 물이 솟는 석회굴이 있다. 지금은 메워서 양수기로 물을 올려 사용하고 있다.

● 새덕

큰터 뒤쪽의 산등을 올라가면 산 위쪽에 평평한 땅이 나온다. 덕 혹은 덕이, 덕시라고 부르는 곳은 산중턱이나 산 위쪽이 평평하여 비교적 경사가 적고 화전농사하기 좋은 곳을 이르는 이 지방 말이다.

새덕은 사이덕으로 가덕이나 고무덕 사이에 있다고 사이덕이 변해 새덕이 되었다고도 하고 새(억새)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새덕이라는 말이 있다.

원동에 사는 전주 이씨들이 처음 개간한 곳이라 고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원동의 사덕지간(四德之間)의 일석지하(一席之下)에 팔판대지(八判大地)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사덕이란 새덕, 가덕, 고무덕, 싸리덕이라고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싸리덕이나 고무덕을 하나로 보고 삼덕지간(三德之間)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팔판은 여덟 판서가 나올 명당이라는 뜻이다.

● 새덕골

큰터에서 새덕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이다.

● 된양지

새덕골 왼쪽에 있는 산등으로 경사가 급하여 된 산비탈인데 남향하여 양지 바른 곳이기에 된 양지라 한다. 되다는 것은 가파르다는 말이다.

● 새굴

된양지에 석회동굴이 있는데 수직으로 형성되어 새굴이라 한다. 새는 수직을 의미한다.

● 울둔골(鬱屯谷)

큰터에서 서쪽으로 깊고 길게 형성된 골짜기 전체를 울둔골이라 한다. 울둔으로 가는 골짜기 라는 말이다.

● 월둔골(月屯谷)

울둔골로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갈라진 큰 골짜기로 월둔으로 가는 골짜기라는 말이다.

● 월둔(月屯)

월둔골 안쪽 전체를 월둔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한 개의 자연부락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화전(火田)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몇 집 살지 않는다.

둔이라는 말은 산 높은 곳에 제법 땅이 평평하고 두둑한 곳을 이르는 말인데 덕시 보다는 작은 개념이다. 월둔(月屯)은 달둔을 이두 표기한 것으로, 달둔은 산전(山田)을 이르는 우리 고유 말인데 화전민(火田民)들이 많이 살아 산전을 일구며 살아서 이다. 또 다른 말로는 원동마을에서 멀리 있다고 멀둔이 변해 월둔이 되었다고 한다.

● 서낭당(月屯谷城隍堂)

월둔골 어귀의 오른쪽에 서낭당이 있다. 월둔골 사람들이 정월에 날받이하여 제사하고 단오에도 제사를 지낸다.

● 설통바우

월둔골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바위 벼랑이다. 설통(벌통)을 놓아서 벌을 받기에 설통바우라 한다.

● 절터

월둔골로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난 작은 굼인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샛골

절터를 지나 좀 더 월둔골로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골짜기가 있다. 절터와 고무진골 사이에 있다고 샛골이라고 한다. 골짜기 안쪽이 둘로 갈라진다.

● 고무진골

샛골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면 왼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로 골이 제법 넓다.

고무진골의 이름은 겨울철 얼음에서 나온 말이다. 골짜기가 북향으로 되어 있고 또 골짜기에 수분이 많아 땅에서 물이 솟아 나와 얼음 층이 많이 형성되기에 고무진골이라 한다.

땅에서 물이 나와 겨울에 얼면서 얼음 층이 자꾸 두꺼워져 쌓이면 고무진다고 하는데 바로 고무진골이 거기에서 유래된 말인 것이다.

● 바른골

고무진골 어귀를 지나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바른쪽(오른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라고 바른골이라 한다.

● 월둔동굴(月屯洞窟)

바른골로 들어가다가 오른쪽 산등으로 올라가면 수직으로 형성된 석회동굴이 있는데 월둔동굴이라 한다.

동굴 입구에 큰 돌기둥이 있어서 입구가 둘로 보이며 흡사 안경 처럼 생겨서 안경굴로 불렀는데 동굴 학자들이 월둔에

있는 동굴이라고 월둔동굴이라 부르게 되었다.

단군기원 4319년(서기1986년) 11월 19일 강원도 기념물 제58호로 지정된 월둔동굴은 수직 동굴이기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동굴이다.

동굴 속에는 특이한 동굴 생물들과 박쥐 등이 살며 동굴 바닥에는 호수가 있고 진흙 뻘로 형성되어 있다. 동굴은 아직도 생성중이라고 하며 장막형 석순과 동굴바닥에 있는 백색 산데리아형의 석주는 국내 최대의 것이라 한다.

수직 동굴이다 보니 동굴 속에는 동물의 뼈가 많은데 그것은 지상의 동물이 한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입구에서 좀 들어가면 곧바로 수직 동굴인데 그 수직 동굴을 줄사다리로 내려가면 한 곳에 동물 뼈가 수북히 쌓여 있는데 그곳에서 쳐다보면 수십m 천정에 구멍이 보이는데 아마도 지상 어느 곳에 있는 그 구멍으로 그 곳을 지나던 동물이 지하로 빠져 떨어져 죽은 것이 아닌가 한다.

몇 년전에는 동굴을 탐사하던 여자 대학생이 떨어져 죽은 일도 있다.

● 고패이골

바른골 어귀를 지나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이 매우 가파라서 고패를 걸어 놓은 듯해서 고패이골이라 한다. 고패라고 하는 것은 두레박줄을 걸치는 도르래 같은 것으로써 높이 설치하기에 아래에서 쳐다보는 형상이므로 그곳 골짜기도 위쪽이 가파라 붙은 이름이다.

또 다른 말로서는 골짜기 안쪽이 가파라 오르고 내리자면

고뱅이(무릎)가 아프기에 고뱅이골이 변해 고패이골이 되었다고도 한다.

예전에 이 골짜기 어귀에 우계이씨가 살았고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은 큰년이고 작은 딸은 작은년이었다. 두 딸을 데리고 밭일을 하는데 고패이골 위에서 비가 내려오니 서둘러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 때 이씨가 딸들에게 "큰년이는 발이고 작은년이는 꼴여라"며 소리 쳤는데 이 말이 원동마을에 지금도 전한다. 물론 큰년이(큰딸)는 발을 이고 작은년이(작은딸)는 꼴(소먹이는 풀)을 이고 가자고 재촉하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 웃을 수 도 있는 말이다.

● 핏골재골

고패이골 어귀를 지나 곧바로 올라간 골짜기이다.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로 넘어가는 핏골재로 가는 골짜기라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핏골재

핏골재골 끝의 산등에 있다.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의 피골이라는 골짜기로 넘어가는 고개라서 핏골재인데 핏골에는 석회동굴이 있고 5~6월이 되어야 얼음이 녹는 곳이라 한다.

● 가름매기

바른골과 핏골재골 사이의 산등 위쪽을 가름매기라 한다.

그 곳 산등은 제법 평탄한 지형으로 예전에 화전을 하던 곳이다. 그 곳의 지형이 양쪽으로 두 군데에 평평한 화전밭이 이

루어져 있기에 가름매기라 한다. 둘로 갈라진 것을 가름이라 하고, 양쪽에 따로따로 있는 것을 가름이라 한다.

● 조개번지

핏골재에서 산등을 타고 대덕산 쪽으로 올라가면 산중턱이 펀펀한 곳이 나오는데 조개번지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서 화전민들이 화전을 일구던 곳인데 부근에 조개바우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어서 조개번지라고 한다.

번지라는 말은 번디에서 온 말로 산 위의 평평한 땅을 번지라고 한다. 조개번지를 조개등이라 고 도 한다.

● 조개등 → 조개번지

● 조개바우

조개번지 한 가운데에 가로 5~6m 높이 1~2m 정도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조개바우라 한다.

바위에 조개화석이 있어서 조개바우라 한다. 아주 옛날에 이곳이 바다였는데 지각변동으로 융기하여 산꼭대기에서 조개화석을 볼 수 있으니 옛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던 것 같다.

바위가 제법 커 흡사 배 처럼 생겼다.

● 조개장터

조개번지를 다른 이름으로 조개장터라 한다.

조개바우가 있어서 조개가 눈에 띄니 예전에 이곳이 조개가 잡히는 바닷가가 아니였겠느냐 해서 인지는 몰라도 원동 사람

들은 조개장터라 한다.

전하는 이야기로는 옛날 천지개벽 때 조수가 올라와 이곳이 바다였고 이곳에서 조개장이 섰다는 것이다.

● 대덕산(大德山)

창죽동과 삼척시 하장면 판문리의 경계지점에 솟은 산이다. 큰덕산이라고도 하는데 원동쪽 사람들이 화전농사를 많이 하던 산이다.

● 막조밭굼

월둔골 어귀를 지나 울둔골로 들어가다가 왼쪽으로 난 첫 번째 굼을 막조밭굼이라 한다.

굼은 골짜기와 비슷한 말인데 골짜기가 그다지 깊지 않고 우묵한 지형을 이르는 말이다. 이곳에 큰 밭이 있는데 막조네 밭이었다. 막조는 권막조라는 사람으로 후사가 없이 죽어서 그 밭을 마을에 희사하였고 마을에서는 9월 9일 중구에 무후제를 지내주고 있다. 막조네 밭이 있는 굼이라고 막조밭굼이다.

● 말좃밭굼

막조밭굼이 변해서 말좃밭굼이 되었다. 막조라는 말이 세월이 지나면서 호사가들이 막조, 막좃, 말좃으로 와전되게 한 것이다.

● 가달밭굼

막조밭굼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굼이다. 골짜기 안쪽이 두 가달로 갈라져 있고 그곳에 있는 밭도 두 가달로 갈라져

있기에 붙은 이름이다.

● 진묵밭

가달밭굼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굼이다. 굼 안쪽에 밭이 길게 되어 있는데 자주 묵으로 진묵밭이라 한다. 진은 길다는 말이다.

● 작은 통골

진묵밭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가파른 골짜기다. 석회암 지대로 골짜기가 홀통 처럼 생겨서 통골이라고 한다.

● 큰 통골

작은 통골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다. 작은 통골 보다 크기에 큰 통골인데 골짜기가 가파르고 곧바로 쭉 뻗어 있고 골짜기 안쪽에 연통 같은 수직굴이 있어서 통골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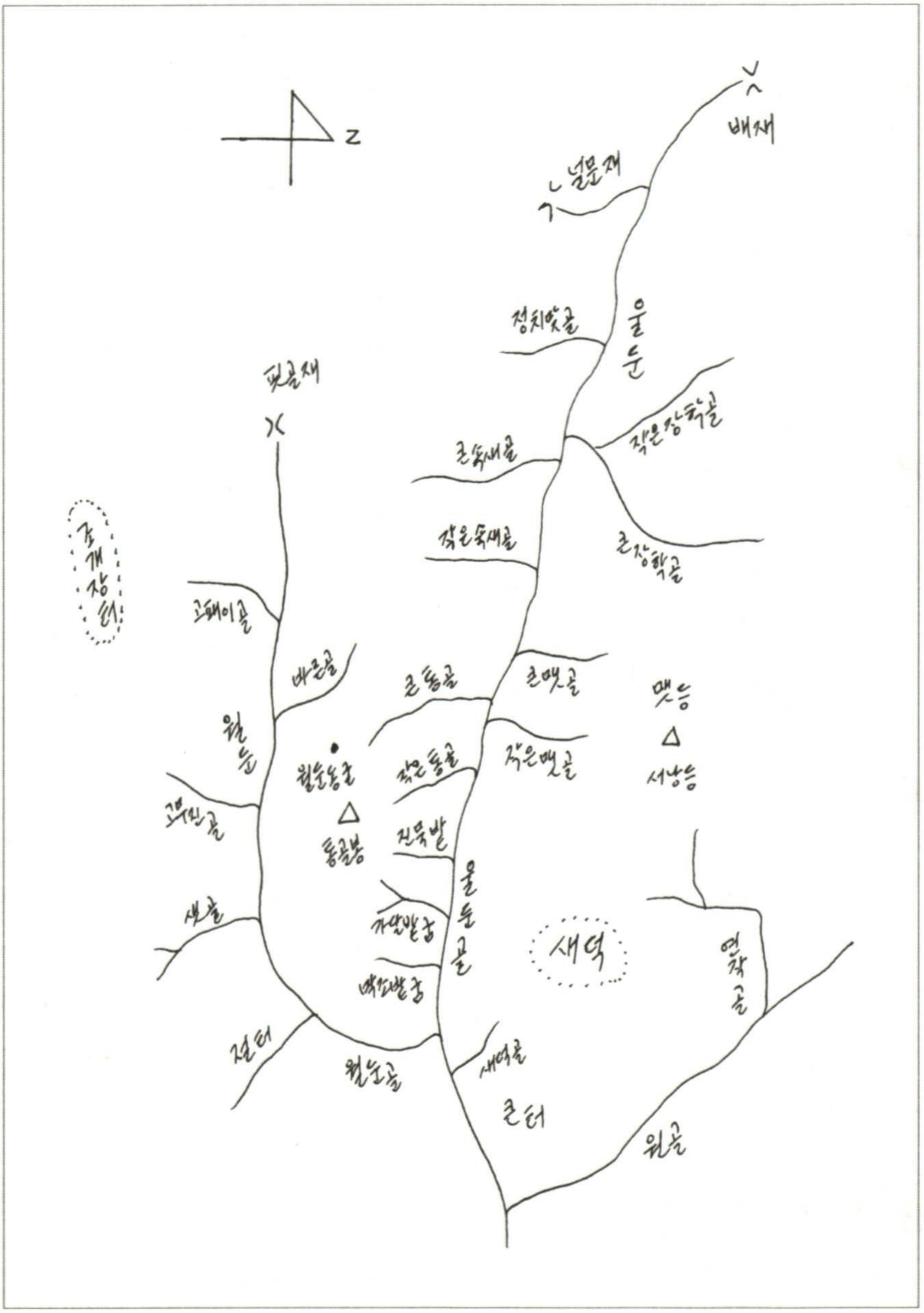
● 연통굴

큰통골봉 안 산 중턱에 있다. 동굴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연통(굴뚝) 같이 생겼기에 연통굴이라 한다.

아마도 월둔동굴의 천정에 있는 구멍이 이 동굴이 아닌가 한다.

● 통골봉

통골 위쪽에 솟은 산봉우리이다. 통골 위에 있다고 통골봉이다. 산돼지가 많은 곳으로 예전에 원동 사람들이 맷돼지를 잡으려면 통골봉 아래로 사냥을 갔었다. 통골봉 남쪽에 월둔동굴이 있다.


N
배재
넓문재
정치앗골
울순
작은장학골
큰숙새골
작은숙새골
큰장학골
N
팟골재
고래이골
바굼골
큰등골
큰맷골
작은등골
작은맷골
맷등
△
서낭등
월순등
△
등골봉
고래인골
진묵발
새골
울등골
가얌발골
백산발골
새덕
N
절터
월순골
새여골
큰터
원골
엄장골
초개장터

● 작은 맷골

울둔골로 들어가다가 오른쪽 통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 묘가 있기에 묏골이 맷골로 변한 것이다. 또는 작은 맷등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라고 맷골이라 한다.

● 큰 맷골

작은 맷골을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역시 골짜기 어귀에 묘가 있고 골짜기 안쪽이 작은 맷등이기에 붙은 이름이다.

● 작은 맷등

맷골 정상의 산등을 이르는 말이다. 맷등이란 말이 묘가 있어서 맷등인지 그냥 산등(맷등)이란 뜻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큰 맷등과 작은 맷등이 있고 큰 맷등에는 오래된 묘(墓)가 있는 것으로 봐서 묘가 있는 산등이란 말이 변해서 된 것 같다.

● 장학골

큰 맷골을 지나 오른쪽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학이 날개를 펼친 형국의 명당이 있어서 장학골(張鶴谷)이라 한다고 한다. 큰 장학골과 작은 장학골 사이의 산등에 올라서면 제법 평평한 곳에 습지가 있고 그 곳에 예전에 큰 못이 있었는데 못가에 윤씨네가 묘를 썼는데 못의 물을 트고는 학이 두 마리 날아가고 망했다고 한다.

● 작은 장학골

장학골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작은 장학골

이라 한다.

● 속새골

큰 맷골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큰 속새골과 작은 속새골이 있다.

속새라고 하는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속새골이라 하는데 속새는 예전에 수세미로 이용하기도 했고 이를 닦는데 쓰기도 했다. 속새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속새로 이를 닦거나 놋그릇을 닦을 때 하는 말이다.

● 작은 속새골

큰 속새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약물래기

속새골 앞에 약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약물래기라 한다.

● 누룩바우

약물래기 윗쪽에 있는데 둥근 바위가 누룩 처럼 생겼다.

● 정치맞골

큰속새골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는 작으나 골짜기 안을 들어가면 넓다. 골짜기 안이 흡사 정지(부엌) 봉당 처럼 생기고 안쪽은 급하게 높아 정지이마(부뚜막)처럼 생겼다고 정지이마골이 변해 정치맞골이 되었다.

● 울둔(鬱屯)

울둔골 위쪽에 넓은 곳이 있고 예전에 사람이 많이 살 때 이곳을 울둔이라고 불렀다.

지금 원동 주민들은 울둔에 대한 정확한 내력을 모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원동에서 위쪽에 위치한 땅이라는 뜻으로 웃둔이 변해 울둔이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다.

조선조 현종 때 삼척부사로 부임했던 허목이 지은 척주지에 보면 판문리와 어리와 원동의 울둔 부근을 울탄내외촌(鬱呑內外村)이라고 했으니 지금 울탄(鬱呑)과 비슷한 이름이 남아 있는 곳은 근처에 울둔(鬱屯)밖에 없으니 그 이름이 유전된 것은 수 백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울둔은 울음의 땅으로 고려말 때 한 많은 옛 사람들이 시대를 탓하며 세상을 등지고 울며 살던 땅이라고 울둔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 배재(拜峙)

울둔에서 어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배재라고 한다. 지금은 2차선 포장도로가 나 있다.

옛날 고려 말에 삼척으로 귀양 온 공양왕을 따르던 고려의 유신들이 공양왕이 죽자 태백산 속으로 피난가면서 배재에서 삼척쪽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 갔다 고 해서 배재(拜峙)라고 부른다 고 한다.

● 널문재

울둔에서 판문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판문리(板門里)를 우리말로 널문리라고 하는데 그 널문리로 넘어가는 고개라서 널

문재이다. 지금은 2차선 포장도로가 나 있다.

● 울둔재

널문재를 울둔재라 한다. 원동 사람들은 널문재라 하고 판문리 사람들은 울둔재라고 부른다.

● 국수댕이

널문재 꼭대기를 국수댕이라고 한다. 예전에 고갯마루에 국수서낭이 있어서 국수댕이라고 한다. 국수는 국시라고도 하는데 원래의 말은 쿠시라고 한다. 고갯마루에 있는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서낭을 쿠시, 국시라고 한다.

● 연작골(燕雀谷)

큰터 아래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연작골은 이씨들이 개척한 곳으로 예전에는 화전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다. 지금은 연작이라고 제비연(燕)자에 참새작(雀)자를 써서 연작(燕雀)골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을연(連)을 쓰는 연작(連作)골이라고 하였다. 땅심이 좋아 매년 같은 작물을 연작(連作)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기에 연작골인 것이다.

원래 연작골은 연작골로 들어 가다가 왼쪽으로 꺽어져 새덕으로 가는 골짜기를 연작골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로 넘어가는 원골재까지의 긴 골짜기 전체를 연작골로 부르고 있다.

● 연자귀(鷰子歸)

연작골 안쪽을 연자귀라하여 한말에서 일제시대에 한 개의 리(里)를 이루며 많은 사람이 살았다.

구한말 때 기록한 삼척군읍지(三陟郡邑誌)에 보면 연자귀(鷰子歸)라 하여 하장면(下長面) 관할의 32개리(三十二個里)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 있다. 이 때 연작골 안쪽에는 수십 가구의 화전민들이 살았다고 한다. 연자귀는 나중에 원동에 편입되고 말았다.

● 원골

원동(院洞) 전체를 원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골은 원터 위쪽에 있는 골짜기 곧 연작골 전체를 원골이라고 불렀고 지금도 골짜기 안쪽을 원골이라고 부르고 있고 원골 끝에서 용연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원골재라고 부르고 있다.

원골의 원은 죽현원(竹峴院)의 원(院)을 뜻하고 골은 골짜기를 뜻하는 동(洞)의 원래 발음이므로 원골은 곧 원동(院洞)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죽현원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과 그 원으로 가는 골짜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골에서 왼쪽으로 첫 번째 골짜기가 연작골인데 연작골의 유명세가 원골 전체에 미치면서 원골이란 이름은 축소되고 원골의 한 갈래 골짜기에 불과한 연작골이 원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일은 한 때 연작골과 새덕을 중심으로 화전민들이 많이 살면서 연자귀(鷰子歸)라는 한 개의 리(里)가 형성되었던 바 있기에 원골보다는 연작골이 더 많이 알려지면서 원골 전체를 연작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원골은 원(院)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의 원동 본디의 이름이다.

● 굴뚝쏘

연작골로 들어가며 다리 건너의 하천에 있다. 석회암반이 흡사 굴뚝 처럼 생긴 곳에 물이 고여 빙빙 돈다.

그 물이 아래로도 빠져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다 한다.

● 굴뚝쏘깨

굴뚝쏘가 있는 부근을 굴뚝쏘깨라 한다.

● 서낭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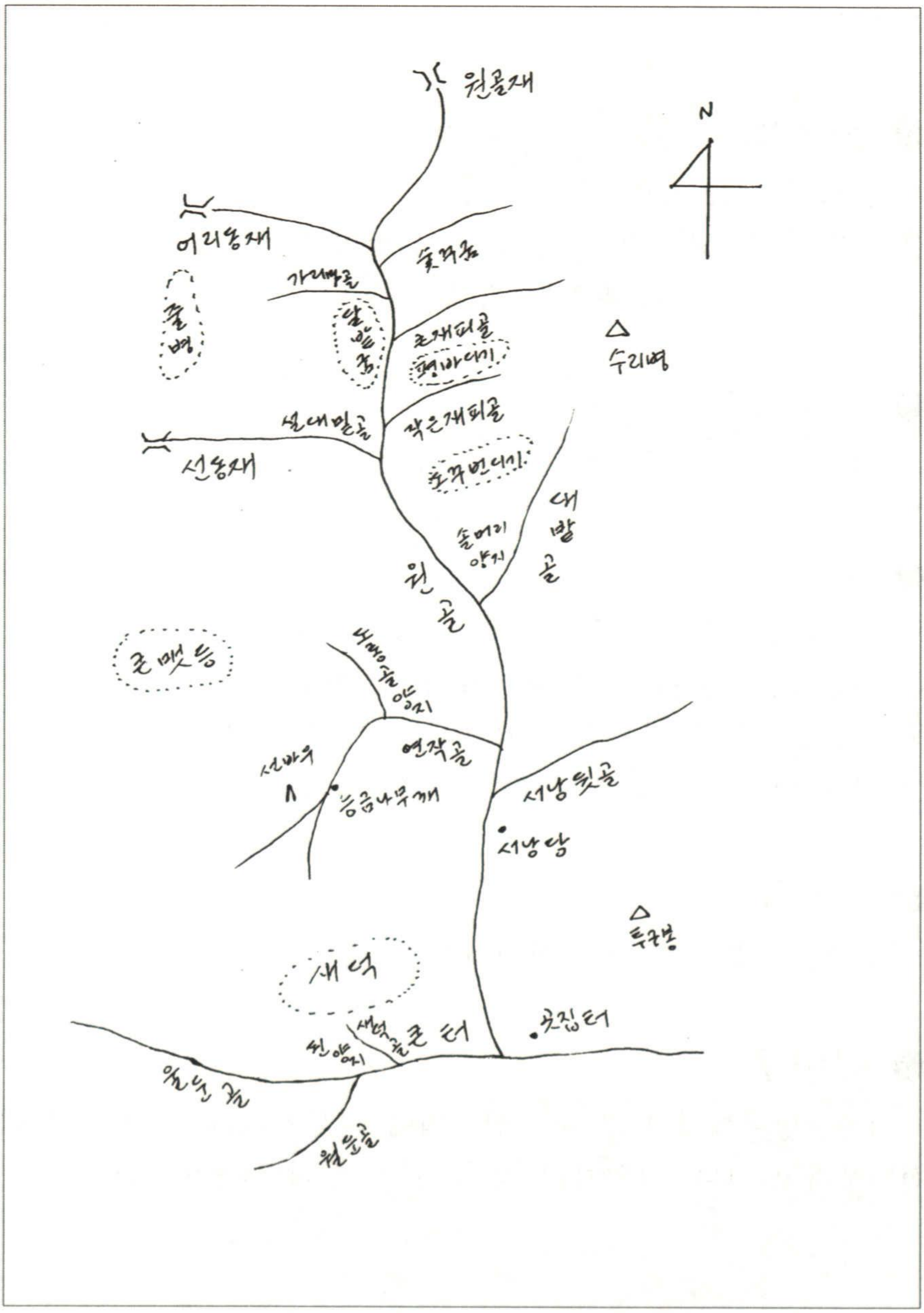
연작골 곧 원골로 들어 가다가 하천 건너 오른쪽으로 나 있는 서낭뒷골 아래쪽에 서낭당이 있다. 당집이 있고 약3~4백년 묵은 느릅나무가 당목으로 서있다. 매년 정월에 연작골 주민들이 날을 받아 제사하고 단오에도 제사한다.

● 서낭뒷골

서낭당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서 서낭뒷골이다.

● 선바우

새물웅덩이깨에서 오른쪽 산중턱에 바위가 하나 솟아 있는데 선바우라고 한다. 바위가 불쑥 솟아 서 있다고 선바우라 한다.


원골재
N
어리동재
숯꾸종
가래골
달을종
조재피골
혓바대기
△
수리봉
설대밭골
선동재
작은재피골
초꾸먼대기
대밭골
솔어리양지
원골
초맷등
서북능선
연작골
선바위
서낭뒷골
등금나무개
서낭당
△
투구봉
새덕
서북능선
원뜨기골

● 능금나무깨

연작골로 들어가서 새덕쪽으로 갈라지는 새덕굼을 지나 바른쪽으로 2백m 올라가면 능금나무깨라는 곳이 나온다. 지금으로부터 290여년전 전주 이진영(全州 李震英)이라는 사람이 연작골을 처음 개척하면서 능금나무 한그루를 심었는데 그곳을 능금나무깨 또는 임금정(林檎亭)이라 불렀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 전에 200년 된 능금나무 고목이 있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능금나무가 상당히 오래되고 큰 것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된다. 지금은 흔적이 없고 지명만 남아있다.

● 임금정(林檎亭) → 능금나무깨

● 새물웅덩이깨

능금나무깨 조금 위쪽에 맑은 샘물이 솟아 나오는 데를 새물 웅덩이깨라 한다. 예전에 전주이씨들이 이곳에 살 때 식수로 사용하던 샘물이었다.

● 서낭터

전주이씨들이 능금나무깨에 살 때 성황당이 있던 곳인데 지금은 당집이 없고 서낭터만 전해진다.

● 서낭등

서낭터를 지나 올라가면 산정상이 나오는데 주변이 평평한 지형이다. 이 산등을 서낭 뒤에 있는 산등이라고 서낭등이라고 한다. 작은 맷등을 서낭등이라고 하는 것이다.

● 큰 맷등

서낭터를 지나 계속 오른쪽 산등을 올라가면 긴 산등이 나오는데 큰 맷등이라 한다. 전주이씨 이진영(李震英)의 묘와 함씨네 묘가 있는 산등이라고 묫등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맷등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큰 맷등의 함씨네 묘 앞에 큰 늪이 있는데 오리가 날아와 놀기에 오리동이라 했고 그 말이 변해 어리동이 됐다는 전설이 있다.

● 수리봉

큰맷등을 따라 어리 경계 지점까지 올라가면 높이 솟아있는 산등을 볼 수 있는데 수리봉이다. 수리가 서식하였다고 하나 수리라는 말은 신성한 산이란 뜻이다.

● 도롱골

연작골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경사가 급한 골짜기이다. 흡사 도롱이를 걸어 놓은 것 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도롱골 양지

도롱골 위쪽에 있는 산으로 남향하여 양지바르므로 도롱골 양지라고 한다.

● 대밭골

연작골 어귀를 지나 500여m 정도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난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산죽(山竹)이 많이 자생하기에 대밭골이란 이름이 생겼다.

● 솔머리 양지

대밭골 왼쪽에 있는 경사가 있고 높이 솟은 산 언덕이다. 봉우리 위에 전주이씨네 묘가 있는데 잔 소나무가 있고 양지 바른 산등이므로 솔머리 양지라 고 한다.

● 설대밑골

대밭골 어귀를 지나 원골로 계속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나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오른쪽에 바위 절벽이 길게 되어 있어 설대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 있는 골짜기라고 설대밑골이라 한다.

● 설대

설대밑골 오른쪽에 형성된 바위절벽이다. 바위 아래에 설통(벌통)을 많이 갖다 놓아 벌을 받기에 설대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설이 바위를 뜻하는 말이기에 설대는 바위가 길게 형성된 것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 설대밑

설대 아래의 땅을 설대밑이라 고 한다.

● 독밑등

설대밑골로 들어가 설대 위쪽에 있는 바위 산등 아래에 있다. 독은 돌을 뜻하는 말로 큰 바위 산등 아래에 있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 선동재

설대밑골 끝 산등에 있는 삼척시 하장면 어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아래의 산세가 급하여 고개 부분의 산이 벌떡 일어선 느낌을 주는 고개이므로 선동재라고 한다. 선동이란 말은 산이 가파라 벌떡 일어선 느낌의 산을 선동이라 한다.

● 어리동재

설대밑골로 들어가다가 오른쪽 산등으로 올라가서 어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어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라서 어리동재라 한다.

● 삿갓봉

선동재와 어리동재 사이의 산을 삿갓봉이라 한다. 산봉우리 끝이 삿갓 처럼 생겨서이다.

● 작은재피골

설대밑골 어귀를 지나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큰 재피골 아래에 있다고 작은 재피골이라 한다.

● 큰 재피골

작은 재피골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재피나무가 많이 자란다고 재피골이라고 하는데 실지 골짜기에는 재피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재피는 무엇일까. 재피는 재피나무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피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을 재피한다고 했으니 재피골

은 피나무가 많아 그 껍질을 벗겨(재피) 줄먹도 만들고 바(노끈)를 꼬기도 하였기에 재피골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 평바디기

큰 재피골과 작은 재피골 사이의 산등을 올라서면 펀펀한 산등이 나오는데 평바디기라 한다. 평바디기라는 말은 평평한 땅이라는 뜻인데 바디기는 경사가 완만하고 지대가 두둑한 땅을 이르는 말이다.

평바디기를 평정밭깨라고도 한다.

● 평정밭깨 → 평바디기

● 도꾸번디기

평바디기 위쪽 산등으로 예전에 화전민들이 농사짓던 곳이다. 당시 화전민들은 톱이 없어 도끼(도꾸)로 나무를 쳐내고 불을 질러 밭을 일구었기에 붙은 이름이다. 도꾸는 도끼의 방언인데 펀펀한 땅을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고 이룩한 번디기라는 뜻이다.

번디기는 바디기와 비슷한 말로 좀 더 크고 경사가 약간 더 급한 곳을 이르는 말이다.

● 숯꾸굼

평바디기와 도꾸번디기 사이에 있는데 예전에 숯을 굽던 곳이다. 굼은 골짜기와 비슷하나 좀 더 작고 움푹한 지형을 이르는 말인데 숯을 굽던 굼이라고 숯꾸굼이라 한다.

● 쏘머리양지

가마쏘 오른쪽 산등에 있는데 가마쏘 머리에 있는 양지라는 뜻이다.

● 가마쏘

작은재피골 어귀를 지나 하천에 있는 깊은 소(沼)이다. 주위가 석회 암반으로 흡사 가마(釜) 처럼 생겼고 그 속에 물이 빙빙 돌기에 가마쏘라고 한다.

● 줄병

가마쏘 왼쪽에 높이 솟은 바위절벽이다. 줄병이란 말은 줄지어 서있는 뼝때라는 뜻으로 벼랑이란 말이다. 줄병은 줄병바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우는 바위의 방언이다.

● 줄병바우 → 줄병

● 줄병밑

줄병바우 아래에 있는 땅을 줄병밑이라고 한다. 설대 밑 윗쪽이 된다.

● 호식총(虎食塚)

줄병 아래쪽의 설대에 호식총이 있다. 호식총은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장소로 남아 있는 유골을 화장하고 재만 남은 그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시루를 엎어 놓고 시루 가운데 구멍에 가락을 꽂아 놓은 형태의 특이한 무덤이다. 이

곳 호식총은 최씨 할아버지의 무덤이라고 한다.

● 달밭굼

가마쏘 왼쪽 산등 쪽에 있다. 지형이 좀 우묵하게 들어가 있고 좀 경사가 완만하여 예전에 화전농사를 짓던 곳이다. 달밭이란 말은 산전(山田)이란 뜻으로 예전에 산전(山田)이 있던 굼이라는 말이다.

● 가리마골

달밭굼을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곧게 뻗어 있어 흡사 가리마를 타 놓은 듯이 생겨서 가리마골이라 한다.

● 늪통매기

가마쏘 뒤 오른쪽 산등에 있다. 질퍽한 늪이 있어서 늪통매기라 한다.

● 고무구멍깨

숯꾸굼과 도꾸번디기 사이에 있다. 바위 벼랑이 좀 있고 그곳에 바위구멍이 있는데 예전에 곰이 살았다고 해서 고무구멍깨라 한다.

● 원골재

원골 끝에 있는 고개로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용연리 사람들이 원골(원동)로 넘어가는 고개라서 원골재라고 한다. 원골재를 다른 이름으로 용수골재라고 하는

데 그것은 원동사람들이 용수골(용연리)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용수골재라고 부른다. 원골 끝에서 왼쪽으로 산등을 타고 넘으면 원골재이고 오른쪽으로 산등을 타면 하사미동의 가리골로 가는 태재로 갈 수 있다.

● 용수골 재 → 원골재

● 곳집

연작골 어귀와 평지골 어귀 사이의 산등 끝에 있었다. 곳집 속에는 오래된 상여가 있었는데 용상여라 하여 화려한 조각과 그림으로 새겨진 귀중한 상여였다. 용조각과 신랑 신부의 조각과 각종 짐승 조각 등이 만들어져 상여 머리를 장식하였고, 방상씨 그리고 요여 등이 보관되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계를 조직하여 마을에 상사가 나면 상여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 30여년 전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상포계는 시들해지고, 또 곳집 부근은 음습하고 무서운 곳이라서 사람들이 왕래하기를 꺼려하던 차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곳집에 불을 질러 모두 불타 버리고 말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용상여들은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귀중한 문화재인데 아까울 따름이다.

● 곳집깨

곳집이 있던 부근을 곳집깨라고 한다.

● 곳집 모랭이

평지골 어귀에서 연작골 어귀로 가는 산 끝을 곳집모랭이라고 한다. 근처에 곳집이 있고 산모랭이이므로 곳집 모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곳집 모랭이를 곳집 모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곳집 모팅이 → 곳집 모랭이

● 미모랭이

곳집 모랭이에서 평지골 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미모랭이이다. 그곳 산 끝에 오래된 묘가 있어서 미모랭이 또는 뫼모랭이라고 하는데 미는 묘의 방언이다.

● 평지

현재 원동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자연부락인데 부근의 땅이 평평하여 평지(平地)를 이루므로 평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평지에는 가게집도 있고 예전에 철광산과 석회석 광산이 있을 때 원동에서 가장 번화한 마을이었고 외지인이 가장 많이 살던 땅이었다.

● 평지말

평지를 평지말이라 한다. 말은 마을의 준말이다.

● 평지골

평지마을에서 북쪽으로 난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은 하사미동의 가리골로 넘어가는 고갯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예전

에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었다.

● 투구봉

평지골과 연작골 사이의 산등 끝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장군대좌형의 명당이 있다하고 그 봉우리를 투구처럼 생겼다고 투구봉이라 한다.

● 맹골

평지골로 들어가서 오른쪽 첫 번째 골짜기인데 면산쪽으로 깊게 나 있다. 골짜기 안쪽이 꽉 막혀서 맹골이라 한다고 하나 실제로 골짜기를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막혀있지는 않고 면산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골의 어원은 좀 다르게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맹골의 골짜기 어귀에 묘가 있어서 멧벌이라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멧벌이 있는 골짜기라고 맷골이라 하던 것이 와전되어 맹골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멧벌

맹골 어귀의 왼쪽 산등을 멧벌이라 한다. 이곳에 묘가 있어서 멧벌이라 한다.

● 납닥소나무

맹골어귀 멧벌 아래쪽 산등에 있는 소나무이다. 흡사 양산을 펼친 것처럼 생겼는데 위쪽이 납작하다고 납닥소나무라고 한

다. 납닥은 납작의 방언이다.

● 금밭등

맹골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첫 번째 골짜기이다. 예전에 이곳에 금광이 있어서 금을 많이 캤기에 금밭등이라 한다.

● 천제당굼

맹골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첫 번째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 등에 천제당이 있어서 천제당골이다. 이 천제당은 태백산에 망제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황폐화 되었다.

● 차돌배기

금밭등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곳에 차돌이 많이 박혀있기에 차돌배기인데 차돌이 많다는 것은 금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이다.

● 담많은 밭골

차돌배기 건너편 골짜기인데 그곳에 밭이 있고 밭에 돌담이 많기에 담많은 밭골이라 한다. 담많은 밭골에는 뱀이 많다고 한다.

● 느릅나무골

차돌배기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느릅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산제당골

맹골 가장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산제당이 있어서 산제당골이다.

● 쉰패랭이 구뎅이

담많은 밭골 어귀를 지나 오른쪽 산등에 있는 예전에 금광산을 하던 곳이다. 금광을 하느라고 깊게 구덩이를 파 내려갔는데 어느 날 굴이 무너지며 구덩이 속에서 일하던 사람이 모두 묻혀 죽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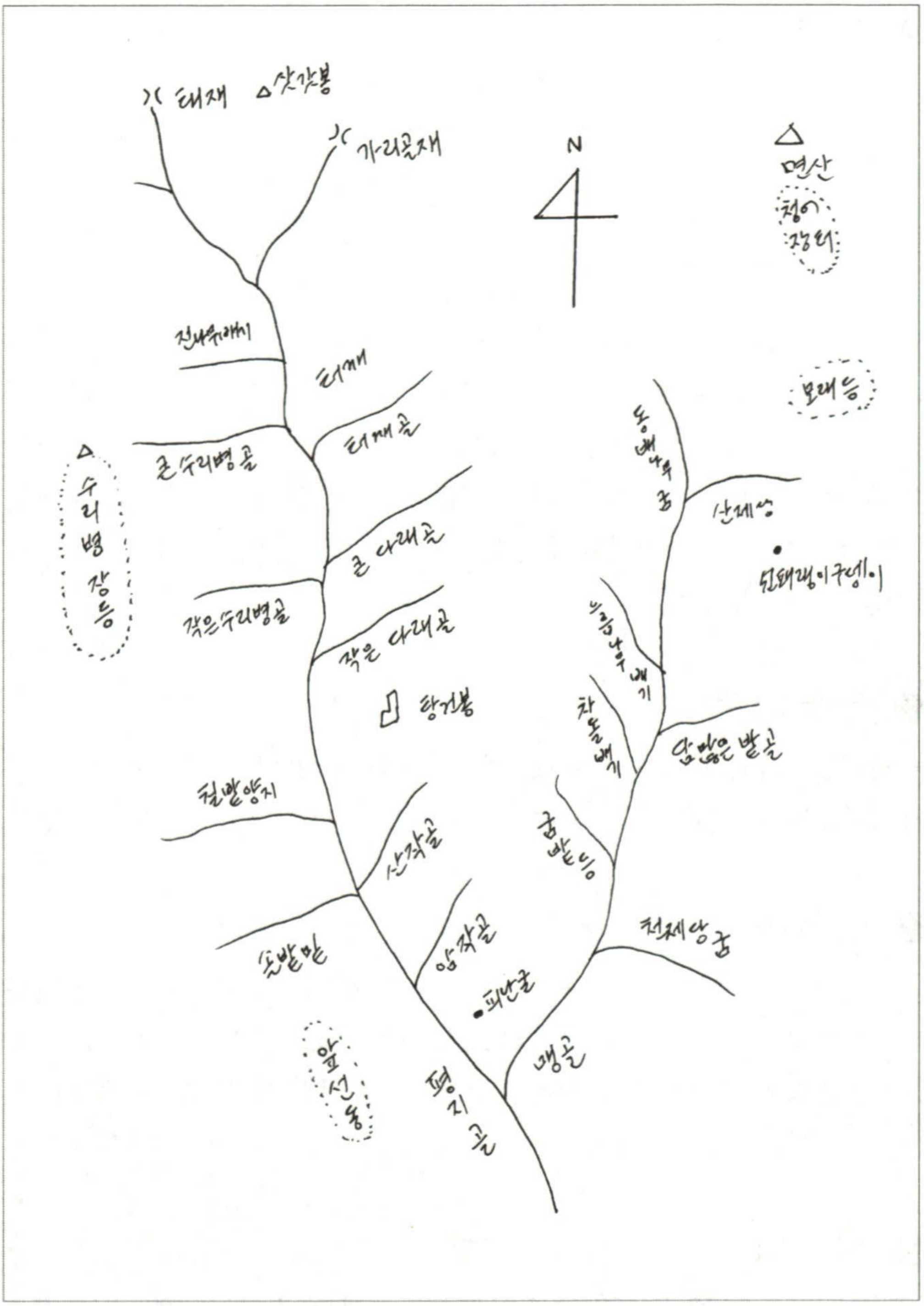
굴 밖에서 사람들이 모여 모두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마침 굴속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밖에다 벗어 놓은 패랭이가 대략 50개이므로 50여명이 죽었음을 알았고 그 후 그 구덩이를 쉰패랭이 구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후 쉰패랭이 구뎅이 부근에서는 그 누구도 금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쉰패랭이 구뎅이의 광산은 은광산이었다고 한다.

● 동배나무굼

느릅나무골 어귀를 지나 더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인데 그 곳에 큰 동배나무가 있어서 동배나무굼이라 고 한다. 굼은 골짜기와 같은데 좀 작고 움푹한 지형이다.

● 청어등

맹골 끝의 면산 산등에 있다. 옛날 조수가 올라와 청어등 만큼 남아서 청어등이 되었다고 하며 근처에 청어(靑魚) 화석(化石)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청어등이라고 한다. 청어등을 청애등이라 고 도 한다.


태재
삿갓봉
가리곶재
N
연산
청이장터
진새우개미
터개미
터개미골
큰두리뱅골
큰다래골
작은두리뱅골
작은다래골
탕건봉
두리뱅장등
보래등
동래나무골
산래산
원태랭이구멍이
차돌배기
양반은발골
질빨양지
산작골
양작골
피난굴
큰발등이
천제당골
한발등
뱅골
평지골
알선봉

● 청어장터

청어등 부근의 산정상이 제법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을 청어장터라고 한다. 아주 옛날 조수가 올라와 청어장터 부근이 바다였는데 그 곳에 청어를 파는 장터가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산등에서 살고 골짜기에는 길이 없고 맹수가 많아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고 한다. 그 때 사람들이 산등에 살 때 장사꾼들이 청어를 가져다가 그 산꼭대기에서 장터를 열었다는 것이며 이 산 저 산 살던 사람들이 청어장이 열리면 모여들어 청어를 사갔다는 것이다. 대덕산의 조개장터에서는 조개를 파는 장터가 있었고 청어장터에서는 청어를 파는 장터가 있었다고 한다. 청어장터에서는 맑은 날 동해바다가 보인다.

● 누룩바우

청어등 아래에 누룩 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흡사 둥근 누룩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맷돌바우

누룩바우를 맷돌바우라고 부르기도 한다. 누룩이나 맷돌이나 그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룩이 우선 먹을 수 있고 발효가 되며 부글부글 끓으니 살림살이도 누룩 처럼 부글부글 끓으라고 맷돌보다는 누룩으로 부르기 좋아 한다.

● 국시당

청어장터 남쪽에 옛 고갯마루에 국시당이 있었다. 오고가는

길손들이 돌을 던지고 추매하는 사람들은 베쪼가리를 걸어 놓기도 하였다.

● 서낭당(평지골 서낭당)

맹골 어귀에서 하천건너 왼쪽에 서낭당이 있는데 평지골 서낭이다.

정월에 날받이를 하여 제사지내고 5월 단오에 제사한다. 당집 속에 무쇠말이 있었으나 최근에 없어졌다.

● 피난굴

맹골 어귀와 암작골 사이의 산 중턱에 있는 석회동굴이다. 옛날 난리가 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들어가 피난을 한 굴이다. 동굴이 들어가다가 아래로 형성되어 있다.

● 굴물

피난굴 아래의 밭 한가운데에 물이 솟아나오는 곳이 있다. 수량이 많으며 평지골 하천 물에 유입되는데 예전에는 뚜구리 등 물고기가 많이 서식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곳을 파내어 커다란 못을 만들었다.

● 굴물깨

땅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굴물이 있는 근처를 굴물깨라고 한다.

● 암작골

굴물깨를 지나 평지골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골짜기에 작은 암자(庵子)가 있었는데 그 암자 때문에 암자골이라고 하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말이 와전되어 암작골로 부르게 되었다.

● 앞선동

암작골 어귀를 지나 건너편 왼쪽 산등에 있다. 암작골 쪽에서 바라보면 앞쪽이 되는 가파른 산등이라고 앞선동이라고 한다. 선동은 가파른 산등을 이르는 말이다.

● 산작골

암작골 어귀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어귀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삼눈 앓을 때 삼잡이를 잘 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골짜기라고 삼잡이골이라 하였는데 그 말이 변해 삼잡이골, 삼잡골, 삼작골, 산작골로 부르게 되었다.

삼눈을 앓게 되면 눈에 무엇이 들어간 듯 마틀거리고 아프며 눈이 붉게 충혈이 되는데 바람벽이나 빈지 등에 사람을 세워놓고 그림자를 그리고 눈을 그려 아픈 눈에 못을 박아 놓으면 낳는다고 한다.

● 할미쏘

산작골 앞 하천에 있는 깊은 쏘(沼)이다. 제법 물이 고여 깊은데 옛날 어느 때 할머니 한사람이 쏘에 빠져 죽었는데 그 뒤로 그 쏘를 할미쏘라고 부르게 되었다.

● 솔밭밑

산작골 맞은편에 있는 굼이다. 굼 윗쪽에 솔밭이 있고 그 아래에 있다고 솔밭밑이라 한다.

● 칠밭 양지

솔밭밑을 지나 조금 더 올라가 왼쪽에 있다. 제법 양지 바른 곳에 칡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서 칡이 밭을 이루므로 칡밭 양지인데 그 말이 변해서 칠밭 양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 탕감봉

칠밭 양지 건너편 산중턱에 있다. 바위 봉우리가 흡사 머리에 쓰는 탕건처럼 생겨서 탕건봉인데 그 말이 변해 탕감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아마도 탕건이나 감투처럼 생겼다고 해서 탕감봉이라고 하지 않았나 한다.

● 탕건봉 → 탕감봉

● 수리병

원골과 평지골 사이에 높이 솟은 바위 벼랑으로 된 곳이 있는데 수리병이라 한다. 원골의 대밭골 끝에 있고 도꾸번디기 위쪽에 위치한다. 수리병에는 가끔 수리가 집을 짓고 새끼를 치므로 수리병이라 하는데 병은 벼랑을 의미하는 말이다.

수리병을 다른 이름으로 수리병장등이라고도 한다.

● 수리병장등 → 수리병

● 작은 수리병골

칠밭 양지를 지나 수리병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다.

● 큰 수리병골

작은 수리병골을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수리병으로 가는 큰 골짜기라서 큰 수리병골이다.

● 작은 다래골

작은 수리병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다래나무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다.

● 큰 다래골

작은 다래골 어귀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골짜기 끝은 면산으로 이어져 있다. 골짜기가 갚고 다래나무가 많아 가을철이면 원동 사람들이 다래를 많이 따는 골짜기라서 다래골이다.

● 터깨

큰다래골 어귀를 지나 좀 더 골짜기로 올라가면 제법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터깨라 한다.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던 터가 있었다고 터깨라 한다.

● 터깨골

터깨 뒤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면산으로 갈 수 있다.

● 재마을

하사미동으로 넘어가는 태재와 가리골재 남쪽에는 옛날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재(고개)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재말(재마을)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한집도 살지 않지만 화전이 성할 때는 한 개의 자연부락이 있었던 곳이다.

재마을을 새말(새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는데 새롭게 마을이 형성됐다고 새마을이라 하였다.

● 새마을 → 재마을

● 재마을골

재마을 동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오른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면산으로 갈 수 있고 왼쪽으로 가면 조리골로 간다.

● 전나무 배기

수리병 동쪽에 있는 굼이다. 그곳에 전나무가 많아서 전나무배기이다.

● 태재

재마을골 어귀를 지나 왼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고개가 나오는데 하사미동 가리골의 대밭골로 가는 재이다.

고개가 높고 크므로 큰재였는데 한자로 쓰면서 대재(大峙)라고 하다가 태재(太峙)로 부르게 되었다.

● 삿갓봉

태재에서 동쪽으로 보면 뾰족이 솟은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삿갓봉이라 한다. 산봉우리가 흡사 삿갓 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다.

● 가리골재

재마을골로 들어가다가 왼쪽 골짜기로 계속 올라가면 고개가 나오는데 가리골재라 한다. 하사미동의 가리골의 조리골로 갈 수 있는 고개인데 상당히 고개가 높고 가파르다.

● 살개목

가리골재를 다른 이름으로 살개목이라 한다.

고개가 높고 가파르고 양쪽 산이 불쑥 솟아 흡사 디딜방아의 살개(다리)처럼 생겼는데 그 사이의 목재라고 살개목이라 한다.

● 큰서낭

평지마을 한 가운데에 서낭당이 있다. 원동에서 가장 큰 중심 서낭이라 큰 서낭이라고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돌담과 무너진 서낭이 있었는데 3년 전에 서낭을 새로 지었다. 서낭당을 자연석 돌로 쌓아 벽을 만들고 지붕을 이었는데 근래에 보기 드문 서낭당이다. 서낭당 안에는 무쇠로 만든 쇠말(철마)이 2개 있었는데 당집 수리때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발이 성한 것을 도둑맞고 다리가 부러진 쇠말이 남아있다. 정월에 날을 받아 고사하고 단오에 또 제사한다.

● 서낭골

큰 서낭 아래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서낭당이 있는 곳의 골짜기라고 서낭골이라 한다.

● 평지밭깨

일정골과 평지골 사이의 넓은 들을 평지밭깨라 한다. 평평한 땅이라는 평지밭이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평지밭깨라 한다.

● 일정골

서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원동 마을 특히 평지 마을에서 보면 원동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골짜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첫골이라고 하였는데 일제시대에 원동마을에서 철광산을 하면서 일본문화가 유입되어 첫 번째 골짜기라는 뜻의 첫골을 일정(一町)골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지금의 일정골이다.

옛날 일제시대에 장성동의 계산 부근을 화광동(和光洞)이라고 부르고 그곳의 사택들을 일정목(一町目)에서 팔정목(八町目)까지 구분하여 부르던 것이 불과 몇십년전 까지 통용되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일정골 안에는 커다란 너럭바위가 있다.

● 작은 일정골

일정골과 서낭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재피골

일정골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골짜기 안에 피나무가 많아 그 껍질을 벗겨 밧줄을 만들고 줄먹

짚신 등을 만드는데 사용했는데 그 피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을 "재피한다". 또는 재피 벗긴다고 했는데 재피골은 여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 노장골

일정골로 들어가서 재피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골짜기 안에 노장중이 살았다고 해서 노장골이라 한다.
노장은 나이 많은 승려를 이르는 말이다.

● 작은 노장골

재피골 건너편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호랑이굴

노장골 지나 가덕산 쪽 중턱에 있다. 바위 벼랑에 굴이 있는데 예전에 호랑이가 새끼를 쳤다고 한다.

● 토끼바우

호랑이굴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흡사 토끼 귀처럼 생겼기에 토끼바우라 한다.

● 가덕

일정골 오른쪽에 있는 산등을 가덕이라 한다. 원동에서 보면 한쪽 가에 있는 덕이라고 가덕이라 한다. 가덕은 가덕산 남쪽 사면으로 산비탈면이 완만하여 화전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이다. 예전에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지르고 개간을 하여 농사짓

던 곳인데 지금은 산 아래쪽에 고랭지 채소가 재배될 뿐이다.

태백시에서 조성한 가덕산 고지대 훈련장이 있는데 산 중턱을 빙 돌아 뛸 수 있는 도로를 닦아 놓았다.

원동 사람들이 말하는 삼덕(가덕, 새덕, 고무덕) 또는 사덕(가덕, 새덕, 고무덕, 싸리덕) 가운데 하나이다.

● 가덕산

가덕 윗쪽에 있는 산이다. 가덕에 있는 산이라고 가덕산이라고 하는데 상사미동에서는 거무산이라 부르고 한자로는 흑운산(黑雲山)이라고 한다.

● 샛벌

미동초등학교에서 일정골 사이의 넓은 밭이 있는 곳을 샛벌이라 한다. 상사미동과 원동 사이에 있는 벌판이라고 사이벌, 곧 샛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논깨

미동초등학교 부근을 논깨라고 한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 그곳에 논이 있어서 벼농사를 하였다. 논이 있었다고 논깨라고 한다. 예전에 산골 마을에서 논을 만들어 벼농사를 하는 것은 조상님께 제사 지낼 때 멧밥을 장만하기 위해 그리하였는데 고산지대여서 시절이 좋지 않으면 날씨가 추워 결실이 되지 않아 벼농사가 어려운 곳이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하장면에 사는 처녀가 쌀 한말 못 먹고 시집간다는 말이 있는데 오직 화전 농사가 주요 농사인데 잡

곡밥 말고 쌀밥 먹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산골짜기에 다락논이라도 있는 집안은 그래도 누대를 살아서 조상제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잘사는 편이었다.

● 큰 뫼터

미동초등학교가 있는 터를 큰 뫼터라 한다. 학교를 짓기 전에 그곳에 전주 이씨네 큰 묘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미동초등학교

큰 뫼터에 지은 초등학교로 원동과 상사미 마을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지었는데 상사미의 아름다울 미(美)자를 취하고 원동의 마을 동(洞)자를 취하여 미동(美洞) 초등학교로 명명하였다.

당초에 미동초등학교 부지는 전주 이씨인 이세개(본명:李)씨의 소유였는데 학교 부지로 기증하였다. 학교터에 있던 묘는 학교 뒤쪽으로 이장하였는데 매년 10월 1일에 학교 측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묘주인이 기증한 부지의 일부분은 수원지에 들어가 있고 500여 평은 학교 실습부지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학교 부지를 기증한 이세개씨는 학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면 모셔다가 상석에 앉혀 예우하였고 돌아가시자 이세개씨의 사진을 교무실에 걸어 놓았었으나 최근에는 없앴다고 한다.

미동초등학교는 단기4273년(서기1940년) 11월 30일, 하장공립국민학교(下長公立國民學校) 부설 미동간이학교(美洞簡易學校)로 개교하였다.

2년 뒤인 단기4275년(서기1942년) 5월 29일 미동국민학교

(美洞國民學校)로 승격되었고 단기4329년(서기1996년) 3월1일에 미동초등학교(美洞初等學校)로 개칭이 되었다.

단기4328년(서기1995년) 1월 1일 삼척시 하장면에서 태백시로 편입되면서 태백교육청 관할이 되었고 동시에 하사미분교장과 도릉분교장의 본교가 되었다.

● 점터

미동초등학교 아래쪽 하천가의 산 밑에 있는데 예전에 쇠를 녹이던 점터가 있었기에 점터라고 한다.

● 원동수원지

미동초등학교 아래쪽에 있다. 단군기원4315년(1982년)에 신설한 취수장으로 하루 3,000톤의 물을 취수하여 태백시민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 삼굿깨

점터 아래쪽에 산 쪽으로 좀 들어간 굼에 있다. 옛날 그곳이 물이 가까워 삼굿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에 삼단을 쌓아놓은 투방집을 짓고 돌을 달구어 삼을 쪄 물에서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하던 곳이다.

● 덜수길

점터 아래쪽에 가덕으로 올라가는 작은 골짜기가 있는데 덜수길이라 한다. 덜수라고 하는 것은 경사가 급한 산비탈에서 나뭇단을 묶은 지게를 끌고 내려오는 것을 이르는 말인데 그곳이 경

사가 급해 지게를 끌고 내려오는 덜수길이라서 붙은 이름이다.

계속 지게를 끌고 내려오다 보니까 땅에 흙이 씻겨 내려가고 바위가 드러나며 지금처럼 작은 골짜기가 되고 말았다.

● 가덕골

덜수길을 가덕골이라 한다. 가덕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 진배리

사조동파출소 뒤쪽에 있는 긴 산능선을 말한다. 창죽동과 경계를 이루는 산등으로 대덕산에서 뻗어 내려온 산줄기이다. 배리는 벼리 또는 벼루에서 온 말로 물가에 있는 급한 벼랑이나 급한 산줄기를 이르는 말로 진배리는 길게 생긴 물가에 있는 산등이라는 뜻이다. 진배리를 진배리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 진배리산 → 진배리

● 복쿠쏘

진배리를 지나 원동으로 들어오면서 하천에 있는 깊은 쏘이다. 쏘 위쪽이 작은 폭포를 이루므로 복쿠쏘라 한다. 복쿠는 폭포이 방언이다.

● 너레골

복쿠쏘와 샛벌을 지나 미네골 가기 전에 하천 건너편에 있는 급한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온통 너레 반석으로 되어 있기

에 너레골이라 한다.

● 미네골

너레골 어귀를 지나 하천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아래에 살던 미네라는 여인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는데 그 여인의 호식총이 골자기 안에 있었다고 한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미네라는 여인 때문에 미네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고무덕골

미네골을 다른 이름으로 고무덕골이라 하는데 최근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무덕으로 가는 골짜기라고 고무덕골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 고무덕

고무덕골 안쪽에 있는 넓고 평평한 고원 평탄지이다. 고무라는 말은 고미의 방언으로 지붕에서 천정부분을 산자를 깔고 흙으로 덮어 놓은 곳을 이르는 말이다.

흔히 고무 올린다 고 하여 지붕 아래 천장 부분을 흙으로 덮어 집을 만들면 겨울엔 따스하고 여름엔 시원한 역할을 한다. 고무덕이란 고무 처럼 높다랗게 생긴 덕이라는 말로 덕은 산중턱의 평평한 땅을 이르는 말이다. 최근 고무덕에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765kv 송전선로 변전소가 건설되어 있다.

● 싸리덕

고무덕 남쪽에 있는데 미네골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평평한 산중턱이 나온다. 싸리나무가 많아 싸리덕인데 원동의 사덕(새덕, 가덕, 고무덕, 싸리덕) 가운데 하나로 땅심이 좋아 농사가 잘되어 쌀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 전한다.

● 미덕(米德)

싸리덕을 다른 이름으로 미덕이라 고 한다. 싸리덕에 있는 옛무덤의 비석 뒷면에 미덕(米德)이라는 글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미덕은 싸리덕의 이두표기가 아닌가 한다. 싸리덕의 싸리를 쌀로 보고 쌀미(米)자를 써서 미덕(米德)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래서 싸리덕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쌀밥을 먹는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 미덕산(米德山)

싸리덕 곧 미덕 뒤쪽에 있는 산이다.

● 음달산

미덕산을 다른 이름으로 음달산이라 한다. 원동 마을에서 보면 음달편에 있는 산이므로 음달산이라 한다.

● 갈번지

고무덕 위쪽 창죽동과의 경계인 산등에 올라서면 펀펀한 지형이 나오는데 갈번지라 한다.

갈나무(참나무종류)가 많은 펀펀한 땅이라고 갈번지라고 하는데 곳곳에 습지가 많다 번지는 번디에서 온 말로 산 쪽 펀

펀한 땅을 번지라고 한다.

● 큰 늪

갈번지에 있는 늪이다. 둘레가 수백미터나 되는 큰 습지로 우기에는 물이 많고 가물면 물이 마르는 곳이다. 늪이 크다고 큰 늪이다.

● 소늪

큰 늪 아래에 있는 작은 늪이다. 둘레 수십미터로 항상 물이 고여 있다.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의 명당이 있다하여 늪가에 묘가 있는데 동네의 소가 풀을 뜯으러 와서 묘를 언덕 삼아 뿔이나 몸을 비비면서 묘를 파헤치면 그 집안에 소가 한 마리씩 생긴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화산봉(火山峯, 花山峯)

평지마을에서 바라보면 하천건너 남쪽에 솟아 있는 작은 산봉우리이다. 고무덕 아래에 솟은 작은 산봉우리로 봉우리 남쪽에 원동 마을의 공동묘지가 있다. 평지마을에서 보면 풍수학에서 말하는 산이 뾰족한 것이 화기(火氣)를 닮은 화산(火山)처럼 생겨 붙은 이름이다.

화산봉 남쪽은 고무덕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북쪽인 평지 마을쪽은 경사가 급하다.

봄철에 진달래꽃이 만발한 곳이기도 해서 꽃화(花)자를 써서 화산봉(花山峯)이라고도 한다.

● 뼝때깨

화산봉 북쪽 평지마을 쪽으로 바위 벼랑이 있는데 그곳을 뼝때깨라고 한다. 뼝때는 벼랑의 방언으로 특히 바위 벼랑을 이르는 말이다.

뼝때에는 나무가 있어 바위 벼랑을 감싸주는데 마을 사람들이 뼝때의 나무를 베어 바위가 드러나면 평지마을에 불이 난다고 한다. 그래서 뼝때의 나무는 베지 않는다고 한다.

● 줄솔

화산봉의 뼝때깨에서 평지마을의 큰 서낭까지 소나무를 심어 한 줄로 길게 이어지게 하였는데 이 소나무들을 줄솔이라 하였다. 지금은 소나무들을 베어 그 흔적이 희미하다. 전설에 의하면 화산봉의 뼝때깨에서 방울이 날아와 평지말의 큰 서낭터에 떨어졌기에 그곳에 큰 서낭을 세우고 방울이 날아온 경로에 소나무를 심어 화산봉과 큰 서낭을 연결시켜 줄솔이라 한 것이다. 평지말이 화산봉 때문에 마을에 자주 불이 나므로 큰 서낭의 영험으로 화산봉의 화기를 꺽고자 큰 서낭에서 화산봉까지 줄솔을 심었다고도 한다.

● 한작골

평지말에서 바라보면 화산봉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은 고무덕으로 올라가는데 화산봉의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서 예전에 쇠를 녹이는 한점터가 있었기에 한점골이 한작골이 되었다고 한다. 노천에서 쇠를 녹이는 것을

환정 또는 한점이라 하고 쇳돌을 불에 녹이는 것을 돌찜한다고 한다. 한점하던 곳이 있는 골짜기라고 한점골이라 하던 것이 그 말이 변해 한작골이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말로는 산전(山田)을 한전(旱田)이라고 하니 고무덕 쪽에 한전이 많아 한전골이 한작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유래는 고무덕 쪽이 북향으로 되어있는 음지쪽이라 땅에 습기가 많아 가뭄을 타지 않고 농사가 잘되는 땅이라 가물어도 매년 지을 수 있는 농사를 한작이라 하는데 그러한 땅으로 가는 골짜기라서 한작골이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연작은 매년 이어짓기 하는 것이고 한작은 한해씩 걸러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기에 연작의 반대말이 아닌가 한다.

● 한점터

한작골 어귀 오른쪽에 있다. 원동은 철이 많이 생산되던 곳인데 이곳에서 쇠를 녹이는 용광로를 설치하여 수철을 제련하였다. 쇠를 녹이는 곳을 흔히 점터라고 하는데 비가림 없이 노천에서 대형으로 하는 점터를 한점이라고 하고 그곳을 한점터라 한다.

● 점터 → 한점터

● 꽃밭등

점터 위쪽 화산봉 줄기 아래쪽에 볼록히 솟은 산등을 꽃밭등이라 한다. 그 곳에는 참꽃나무가 많아 봄철에 참꽃이 붉게 피어 흡사 산등에 불이 붙은 것 같이 꽃밭을 이루기에 꽃밭등이라 한다.

● 철굴

평지마을 북쪽에 있는 철광산을 하던 굴이다. 원동의 철 생산은 조선시대 중엽부터 있어 왔으며 원동에서 캔 쇳돌을 창죽의 점말 둔덕으로 옮겨가 대형으로 제련을 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일제시대에 왜인들이 철 생산을 해서 일본으로 가져갔고 뒤이어 해방이후에 민간에서 철 생산을 하였다.

삼척동양철산, 또는 원동광업소라는 광산업체가 철 생산을 하였는데 철광석의 가치 하락으로 지금은 철광산이 운영되지 않으나 예전에 철광산을 하던 철굴은 남아 있다.

● 쇳구뎅이

평지마을 큰 서낭 뒷쪽 산을 올라가면 산중턱에 직경 5~60m정도 되게 땅이 꺼져 내려 간 곳이 있다.

예전에 철광산을 할 때 쇳돌을 캐내어 땅이 무너져 생긴 구덩이다.

쇠를 파낸 구덩이라고 쇳구뎅이라고 한다.

● 상촌(上村)

월둔과 울둔 쪽 마을을 웃마을 곧 상촌(上村)이라고 불렀다. 원동을 세 곳으로 나뉘어 상촌, 중촌, 하촌으로 부르기도 한다.

● 중촌(中村)

평지말 부근을 중간말 또는 중촌(中村)이라고 부른다.

● 하촌(下村)

미동초등학교와 샛벌 부근을 아래쪽에 있다고 아랫말 또는 하촌(下村)이라고 부른다.

● 죽현천(竹峴川)

창죽동과 원동과 상사미, 하사미, 조탄으로 흐르는 한강상류의 하천을 죽현천이라고 하였다.

지금은 지도와 각종 책에 골지천(骨只川)이라고 부르고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일제 때 지도제작을 하면서 한강상류의 마을 가운데 정선군의 마지막 마을인 골지리(骨只里)의 마을 이름을 따서 골지천이라 했는데 버려야 할 이름이다. 만약 골지천이라고 한다면 골지리에서 발원하는 하천도 아니고 그 유역의 상류에는 하장면과 사조동의 5개리 말고도 창죽동이 있는데 그 이름을 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고산자 김정호가 지은 대동지지(大東地志)에 보면

「죽현천은 삼척부의 서쪽 60리에 있고 정선군의 동쪽 50리에 있다. 창옥봉에서 발원하는데 북쪽으로 흘러가 토산리에 이르고 백복령과 대박산의 물을 지나 여량역에 이르고 소래동천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가 성석촌에 이르러 세천으로 흘러간다.」 (竹峴川, 西六十里詳旌善, 東五十里源出蒼玉峯北流至兎山過白福嶺及大朴山之水至餘糧驛過素米洞川西流至省石村入細川)

라고 하였으니 바로 죽현천의 물 흐름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죽현천(竹峴川)은 바로 원동(院洞)에 있었던 죽현원(竹峴院)의 명칭을 따서 붙인 이름으로 되찾아야 할 하천 이름이다.

창옥봉은 함백산이나 금대봉을 지칭하는 산 이름으로 보인다.

● 원동 무후제(院洞無后祭)

원동 마을회관에서 매년 음력 9월9일 중구날에 무후제를 지낸다. 권막조를 비롯해 9명의 후손(後孫)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을에서 무후제(無后祭)를 지내준다. 이들은 후손이 없기에 죽은 뒤에 가지고 있던 땅을 마을에 희사했기에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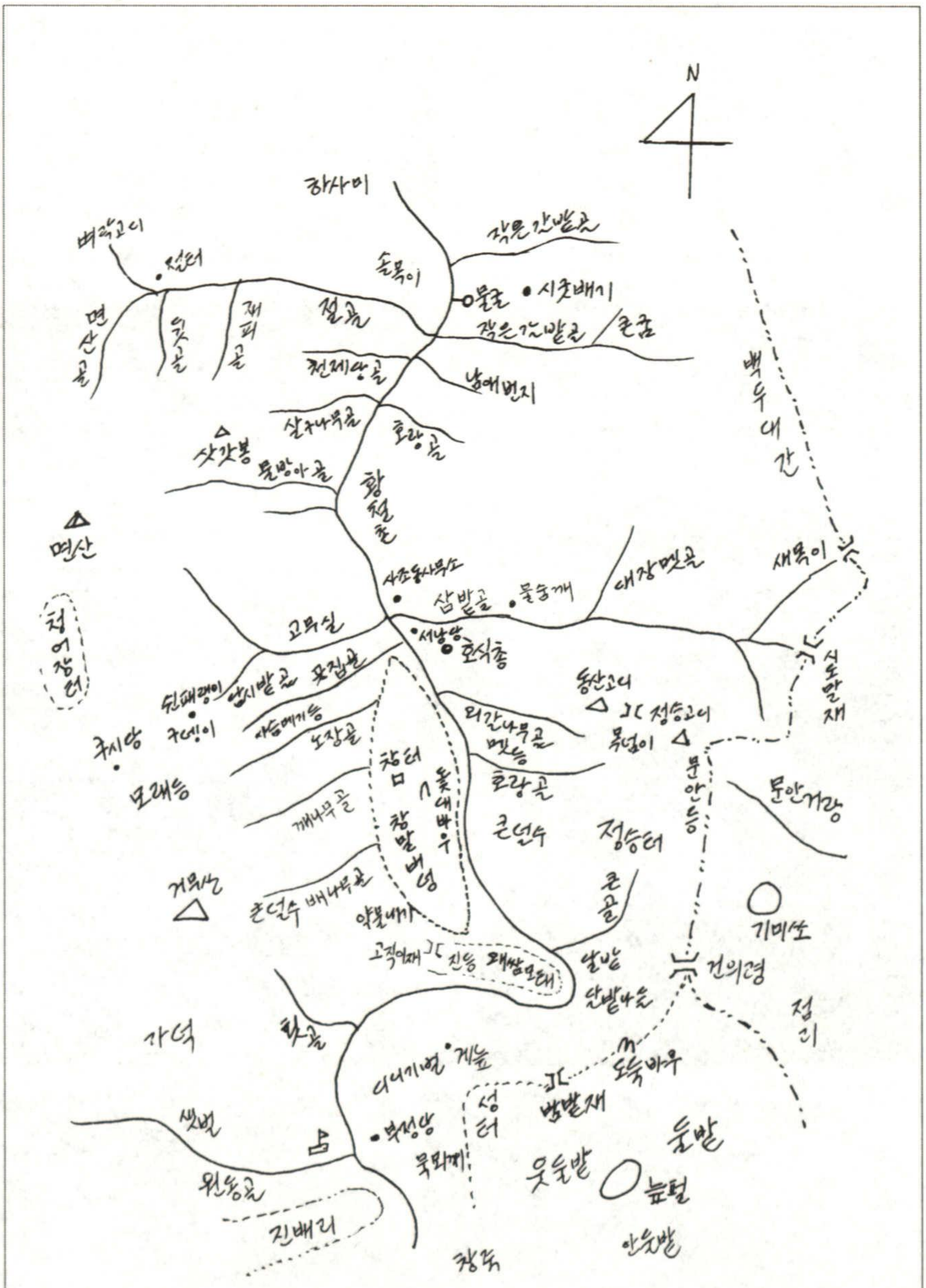
● 태백경찰서 사조분소

진배리 끝에 있다. 처음에는 상사미 부정당 윗쪽에 있었는데 35번 국도 확포장 때문에 뜯겨 지금의 장소로 옮겼다.

단군기원4284년(서기1951년) 5월 20일 장성경찰서 상사미지서로 신설되었고 단군기원4314년(서기1981년) 태백경찰서 상사미지서로 개칭되었고 단군기원4317년(서기1984년) 12월 15일 현재의 청사로 이전하여 단군기원4328년(서기1995년) 사조파출소로 개칭하였다가 구조조정으로 단군기원4333년(서기2000년) 6월 1일 사조분소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현재 사조동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상 사 미 (上士美)

상사미 마을


N
하사미
벼락고디
•전터
면산골
뒷골
제피골
절골
솔복이
작은갓밭골
•물골
•시초배기
작은갓밭골
콘골
전제산골
놈에번지
살차나무골
호랑골
삿갓봉
물방아골
황철골
백두대간
면산
사조동사무소
삼발골
•물숭깨
대장멧골
새목이
고목실
•서낭앙
호식총
청어장터
쉰패랭이
삿시발골
못집골
동산고디
정승고디
묵업이
쿠시앙
쿠데이
서숭메기등
노장골
모래등
참터
돌대바우
깨나무골
호랑골
큰넌수
분안등
분안거랑
거무산
큰넌수 배나무골
약물내기
정승터
큰골
기미쏘
고직여재
진등 괘쌈모태
살밭
단발나슨
건의령
가덕
탕골
다니기현
게눌
도둑바우
성터
쌍발재
•부정앙
묵와께
웃숟발
숟발
늪털
안숟발
쌧현
원등골
진배리
창골

상사미(上士美)

상사미는 원래 하사미와 함께 한 동네였는데 나중에 갈라지게 되었고 갈라지기 전에는 삼(蔘)이라고 불렀다.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 장생리(長生里)조에 보면

「죽령의 서북쪽이 갈전이고 갈전 남쪽이 조탄이며 조탄 남쪽이 삼이다. 삼 서쪽은 울탄이고...삼 남쪽은 건의령인데 서남쪽으로 태백산이 바라다 보인다.」(竹嶺西北葛田葛田南助呑助呑南蔘蔘西鬱呑...蔘南巾衣西南望太白)

라고 하여 상사미와 하사미를 삼(蔘)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어찌하여 마을 이름을 삼(蔘)이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조선조에서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 상사미 지방에서는 산삼을 조세 공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조세 공물인 삼(蔘)을 마을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척주지(陟州誌)에 보면

「갈전과 삼은 가장 깊은 산중으로 마을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조세공물로 대개 목재와 산삼, 복령, 꿀, 오미자, 백화사 등을 바치고 마포(삼베)의 이익이 있는 곳이다.」(葛山蔘最山中佳村多壽考其民供凡瓌村蔘苓蜜五味子白花蛇有麻布之利)

라고 하였으니 그 당시 공물(貢物)로 산삼을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 깊은 산중이라 산삼이 많았고 그것을 캐다가 바쳤는데 중간에 삼척부의 관리가 산삼을 착복하며 좀 더 많이 캐서 바치라고 하니 산삼이 귀해질 수 밖에 없었고 없는 산삼을 자

꾸 더 캐서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사미리 사람들은 난감해질 수 밖에 없었고 자구책을 강구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산삼 씨를 받아서 자기만 아는 곳에 뿌려서 키워내어 때가 되면 나라에 바쳤으니 지금의 장뇌삼이 이 때부터 재배된 것이다.

당시에 사미리 사람들은 면산, 거무산, 삼봉산, 덕항산, 심밭골, 삼밭골 등지에서 장뇌삼을 키웠는데 조정에서는 그것을 산삼으로 알고 받았다. 나중에 공물 제도가 사라지고 나자 장뇌삼의 풍습이 덕항산 아래 마을인 삼척시 대이리의 골말로 이어져 명맥이 유지되다가 골말의 장뇌삼이 삼척시 여삼리로 전파되어 여삼리가 지금은 장뇌삼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장뇌삼의 원조는 사미리인 것이다.

삼(蔘)이 사미로 부르게 되고 사미가 다시 이두표기로 사미(士美) 또는 사미(四美)로 표기하게 된 것이 지금의 사미리가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상사미의 고직이재 아래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오는 곳이 있기에 샘(泉)이 라고 불렀는데 그 말이 샘→새미→사미로 부르게 되고 한자로 표기하면서 사미(士美) 또는 사미(四美)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구한말의 기록을 보면 한 때 장사미(長蛇尾)라고 불렀던 때도 있었다. 삼밭골(麻田谷), 창말(倉村), 절골(寺谷), 황철촌(黃鐵村), 부정당(不淨堂), 둘밭(斗田村) 등 6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로 단군기원 4327년(서기1994년) 12월26일 삼척시 하장면(三陟市下長面)에서 태백시(太白市)로 편입된 법정동이나 행정동인 사조동(士助洞)에 속하였었고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금은 삼수동(三水洞)에 속해있다.

원래 상사미(上士美)와 하사미(下士美)를 사미리(士美里)라고 불렀는데 단군기원4175년(서기1842년) 현종 8년에 상사미리와 하사미리로 나뉘어 졌다.

구한말에는 부정당(不淨堂) 근방이 독립된 마을로 상장면 관할 24개 리(里)의 하나로 부정당(富鼎堂)이라고 불렀으나 일제 때 상사미리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조 광해군 때 임씨(林氏)네가 개척하였다 하며 그 후 이(李), 박(朴), 심(沈), 김(金), 전(全), 권(權)씨 등이 이주하여 왔다.

호구수(戶口數)는 단군기원4092년(서기1759년) 영조 35년 기묘장적(己卯帳籍)에 보면 상하사미 합쳐 55호 258명으로 되어 있으며 일제 강점기인 단군기원4249년(서기1916년)에는 61호 300명, 단군기원4295년(서기1962년) 81호 544명, 단군기원4315년(서기1982년) 79호 496명이 었는데 태백시로 편입된 뒤인 단군기원4329년(서기1995년)에는 70호 251명이었고 단군기원4339년(서기2006년) 현재 48호 152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남쪽은 창죽동에 동쪽은 삼척시 도계읍에, 서쪽은 원동에 북쪽은 하사미에 접해 있으며 동서 6km, 남북8km이다. 서남쪽은 거무산 서쪽에 면산이 원동과 경계에 솟아 있고 동쪽에는 백두대간의 원줄기가 삼척시 도계읍과 경계에 남북으로 길게 뻗어 막아서 있으며 창죽과 원동에서 흘러오는 죽현천(竹峴川)이 북으로 흘러가 하사미에 유입 된다.

도로는 35번 국도가 창죽에서 와서 마을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하사미로 이어지며 동쪽의 건의령(巾衣嶺)을 넘어 삼척시 도계읍으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지금 2차선 포장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건의령을 통과하는 굴을 뚫었다.

농산물은 고냉지채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점차 산채 등

을 심으며 시설재배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창말(倉村)에 사미창(士美倉, 四美倉)이 있었는데, 원래는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에 있던 서창(西倉)을 영조 15년(단군기원4072년)에 상사미 창말로 옮겨온 것이다. 그래서 사미창(士美倉)을 서창(西倉)이라 고 불렀는데 조선시대에 세곡(稅穀)을 모아 두었다가 나라에 바치고 흉년이나 춘궁기에 백성을 구휼하는데 썼다. 삼밭골 어귀에 사조동사무소(士助洞事務所)가 있었으나 단군기원4331년(서기1998년) 9월 10일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사무소 기능을 중지하였고 지금은 사조동보건진료소 건물로 이용되고 있다.

물방아골 앞 하천 건너편에 수자원공사 사미가압장이 있다.

● 창말(倉村)

상사미 마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상사미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 마을인데 예전에 사미창(士美倉)이 있는 마을이라고 창말이라 했다. 말은 마을의 방언이다.

● 사미창터(士美倉址)

사미창이 있던 곳이다. 상사미 들판 한가운데에 있는데 지금도 네모반듯한 밭이 창터로 남아있다.

사미창을 사미창(士美倉) 또는 사미창(四美倉)등으로 표기하는데 지명보다는 서창(西倉)으로도 불린다.

서창(西倉)은 삼척도호부의 서쪽에 있는 창고라는 뜻인데 서창의 역할은 관곡(官穀)의 보관이었다. 구한말에 의병들이 상사미에 주둔하며 일본군과 싸웠는데 아마도 이 때 의병들이 사미창의 관곡을 취하여 군량미로 사용하지 않았나 한다.

서창은 처음에 삼척시 신기면에 있었는데 영조 15년에 현재의 상사미 창터로 옮겨 지은 것이다.

● 창터 → 사미창터

● 서창(西倉) → 사미창터

● 창말버덩

상사미 창말 부근의 너른 들판을 창말 버덩이라 한다. 상사미뿐만 아니라 사조동에서는 가장 넓은 들판이 형성된 곳이 바로 이 창말버덩이다. 얼마 전 경비행기 활주로로 거론되던 곳으로 1.5km가 넘는 길이의 벌판이다. 버덩은 벌판과 같은 말이다.

● 장사미(長蛇尾)

구한말의 기록인 삼척군읍지(三陟郡邑誌)에 보면 사미리를 장사미(長蛇尾)라고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미리(ㅏ:美里)를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리한 것 같다. 사미리(ㅏ:美里)도 넉사(四)자를 써서 사미리(四美里)로 병용한 것을 보면 장사미(長蛇尾)도 사미리를 표기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였나 한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상하사미(上下ㅏ:美)가 백두대간의 원줄기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長) 뱀꼬리(蛇尾)처럼 형성되어 있기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사미리를 소리 나는 데로 표기하면서 장사미(長蛇尾)라고 쓴 것이 아닌가 한다.

● 돛대바우

창말의 창말버덩 한 가운데에 있던 바위이다. 창터에서 남쪽으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었는데 지금으로 부터 30여년 전에 없어졌다. 높이는 지표에 나와 있는 것이 약 120cm이고 땅속에 묻힌 부분은 거의 같은 길이가 아닌가 한다. 30여년 전 땅 주인이 밭 한가운데에 솟아 있어 밭 가는데 걸리적 거리기에 땅을 파고 넘어뜨려 묻어버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돌은 푸른 빛깔을 띠는 아주 단단한 돌로써 중간에 하얀 차돌 띠가 가드다랗게 돌려처져 있고 윗쪽이 뾰족한 자연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돛대바우라고 불렀다. 상사미의 땅이 풍수학에서 말하는 배형국의 행주형(行舟形)이라서 이 바위가 배형국의 돛대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지 돛대바우가 있는 곳은 상사미 마을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 배형국의 돛대에 해당하는 것 처럼 느껴진다. 어느 때 누가 어떤 연유로 세웠는지는 모르나 돛대바우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 세운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그것이 풍수학의 비보의 수단으로 세웠는지 또는 다른 뜻이 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바위는 부족국가 시대에 경계의 표시나 고인돌과 함께 세워진 선돌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보는 것이다. 주민들의 뜻을 모아 하루 빨리 복원하여 제자리에 세워지길 기대한다. 돛대바우를 갈미바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바위 윗쪽이 뾰족하여 비올 때 갓 위에 쓰는 갈모(갈미)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갈미바우 → 돛대바우

● 고직이재

상사미 창말에서 부정당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진등의 중간에 있는데 그리 높지는 않으나 임무소깨로 가서 디디기벌로 하천을 건너 갈 수 있는 고개이다. 고개 아래에 고직이가 살아서 고직이재라고 한다.

고직이(庫直이)는 창말의 사미창을 지키던 관리로 그의 집이 고직이재 아래에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고직이재가 매우 신성한 곳으로 상여나 가마가 넘어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만약 시집가는 가마가 고직이재를 넘어가면 고생을 많이 한다는 전설이 전한다.

● 늪물

고직이재 아래에 물이 솟아나는 물웅덩이가 있는데 늪물이라 한다. 이곳의 샘물을 새미라 하여 사미리(士美里)의 마을이름이 되었다는 말이 전해진다. 수천톤의 물이 솟아 나오기에 예전에 양어장을 하기도 한 곳이다.

몇년에 한 번씩 늪물의 물이 말라 양어장이 망했다고 한다. 이곳의 늪물은 부정을 잘 타는 물로써 누군가가 늪물에 비린내 나는 생선을 씻거나 개를 잡아 씻으면 물에서 벌레가 수십, 수백 마리가 나온다 고 한다. 그 벌레는 팥망아지 처럼 크고 빛깔은 흰데 물이 더럽혀지기만 하면 물속에서 나왔다가 물이 맑아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

● 새미

늪물을 다른 이름으로 새미라고 한다. 새미라는 말은 샘(泉)

에서 온 것이다.

● 포항구뎅이

과거에 새미 부근의 물을 당겨 깊게 구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 두던 곳이 있었는데 포항구덩이라 한다.

포항은 포갱(浦坑)을 말하는 것이다.

● 고려장터

고직이재 아래에 돌서덜이 있는 곳에 고려장이 있다고 한다.

● 약물래기

고직이재에서 북쪽으로 300m 지점의 산 밑에 석회동굴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데 약물래기라 한다.

하루에 수천 톤의 물이 솟아 나오는데 커다란 하천을 이루며 마을 한 가운데인 창말버덩으로 흘러간다. 예전에 이 석회동굴 물이 흘러 나오는 옆에 또 다른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몸에 바른 문둥병 환자가 병이 나아서 그 물을 약물이라 하고 약물이 나는 물이라고 약물래기라 했는데 그 뒤로는 약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은 석회동굴 물을 약물래기라 한다. 약물래기 굴 속에는 얼럭대 같은 구렁이가 산다고 하며 100여년 전에는 약물래기 동굴에서 강철이가 나왔다고 한다.

● 뒷골

약물래기 뒤에 있는 가파른 골짜기 이다. 약물래기 뒤에 있

는 골짜기라고 뒷골이라 한다.

● 배나무골

뒷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다. 골짜기 안쪽에 200여년 묵은 큰 돌배나무가 있어 배나무골이라 한다. 골짜기 안쪽이 몹시 가파르다.

● 큰덜수

배나무골 안쪽 산등을 큰덜수라 한다. 덜수는 나무꾼들이 나무를 실은 지게를 끄는 비탈길을 이르는 말이다. 산이 경사가 급하면 나무 지게를 지고 올 수 없으니 지게를 벗어 눞히고 목발을 잡고 내리 끌게 되는데 이때 지게를 끌고 내려오는 비탈길을 덜수 혹은 들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 서낭당터

배나무골 어귀에서 창터 중간 쯤인 길가에 서낭당터가 있다. 예전에 마을 서낭당이 있었으나 쇠락하여 터만 남아있었는데 그곳에 가게집이 들어서고 나중에 창고가 들어서면서 서낭당의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몇 번 생기자 큰 마을에 서낭당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30년 전에 하천 건너 외갈나무터로 서낭당을 옮겨 신축하였다. 서낭당터의 서낭당에는 무쇠말이 있었고 몇 아름되는 버드나무와 당산림이 있었다.

● 깨나무골

배나무골 어귀를 지나 북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제법 깊은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깨나무골이라 한다.

골짜기 안쪽에 옛 집터가 있고 그곳에 깨나무(오얏나무)가 있기에 깨나무골이라 한다. 깨를 꼬약이라 고도 하고 꼬야라 고도 하는데 표준말로는 오얏이다.

● 오꼬리굴

깨나무골 안쪽 8부 능선쯤에 석회동굴이 있는데 오꼬리굴이라 한다. 다른 말로는 오소리굴이라고도 하는데 오소리를 이 지방에서는 오꼬리라 고도 하는데 오소리가 이 굴에서 새끼를 치며 서식하기에 오꼬리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굴 입구는 작으나 안쪽은 넓다.

● 오소리굴 → 오꼬리굴

● 고려장터

깨나무골에 고려장터가 있다고 한다.

● 노장골

깨나무골 어귀를 지나 좀 더 내려가 북쪽에 있는 골짜기 이다. 옛날 골짜기 안에 작은 암자가 있었고 그곳에 노장스님이 살았기에 노장골이라 한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골짜기 안에 장군대좌형국(將軍大座形局)의 명당이 있는데 옳은 명당이 아니라서 젊고 씩씩한 장군이 나오지 않고 늙은 장군 노장(老將)이 나기에 노장골이라 한

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곳집골

노장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 이다. 골짜기 어귀에 곳집이 있어서 곳집골이라 한다.

곳집골 막장에는 맑은 물이 솟아나오는 샘이 있고 그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산메기를 하는 곳이다.

● 곳집터

곳집골 어귀 왼쪽에 곳집터가 있다. 예전에 상사미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던 상여를 보관하던 집을 곳집이라 하는데 그 곳집이 있던 터이다.

● 사슴매기등

노장골과 곳집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사슴매기 산등에 장군대좌형국(將軍大座形局)의 명당이 있는데 삼척 김씨네가 묘를 쓰고 의병대장이 나왔다고 한다. 묘 뒤쪽에는 장군바우라는 바위가 있다. 예전에 묘를 쓸 때 사슴이 누웠다가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는 것을 보고 사슴이 누웠던 자리가 명당임을 알아차리고 그곳에 묘를 쓰고는 그 부근을 사슴매기등이라 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묘 아래가 노장골인데 노장골이기에 의병장이 나왔지 장수골이었으면 정말 벼슬하는 진짜 장군이 나왔을 것이라면서 골짜기 이름을 잘못 짓는 바람에 참 장군이 못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장군바우

사슴매기등의 삼척김씨네 묘 뒤쪽에 있는 바위이다. 장군처럼 생겼기에 장군대좌의 명당이 성립되었다고 하고 바위의 기운이 장군을 낳게 하는 근원이 되었다고 한다.

● 사슴매기굴

사슴매기 산등 아래쪽에 석회동굴이 있다. 굴은 작지만 깊이를 가늠할 수는 없다.

● 거무산

노장골과 배나무골 끝에 솟은 산을 거무산이라 한다. 원동 사람들은 가덕산이라고 부르는 산이다.

상사미에서는 거무산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면 꼭 비가 온다고 한다. 그래서 거무산 또는 검은산이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흑운산(黑雲山)이라고 쓴다.

아주 옛날 천지개벽할 때 조수(潮水)가 올라와 거미 만큼만 남아서 거무(거미)산이라고 한다.

● 검은산 → 거무산

● 흑운산(黑雲山) → 거무산

● 작은등

거무산에서 깨나무골 쪽으로 내려온 산등을 작은등이라 한

다. 진등 보다 짧기에 붙은 이름이다.

● 진등

거무산에서 뻗은 산줄기가 왜쌈모랭이까지 길게 뻗어 내려왔는데 이 산등을 진등이라 한다. 진은 길다는 방언으로 진등은 긴 산등이란 뜻이다.

고직이재에서 왜쌈모랭이까지의 산등을 진등이라 한다.

● 왜쌈모랭이

진등 끝의 산모랭이를 왜쌈모랭이라고 한다. 구한말 때 강릉 방면에서 싸우던 의병들이 관군과 일본군에 밀리면서 태백산속으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곳 왜쌈모랭이의 진등을 방패 삼아 왜놈(일본군)들과 일전을 치르게 된다. 왜놈들은 하사미쪽에서 밀고 올라오고 의병들은 왜쌈모랭이의 진등에서 진을 치고 싸우게 된다. 왜놈들은 조총이 주무기이고 의병들은 화승총이 주무기였는데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그때는 전쟁을 하는데 소리를 질러 사기를 돋우며 싸웠는데 의병들은 건의령과 밤밭재 부근에 후방부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디디기벌에 본진이 있었으며 전위부대가 왜쌈모랭이의 진등에 몸을 의지한 채 싸움을 벌였다. 그때 의병들은 불떡이라는 음식을 준비해서 비상식량으로 썼다.

불떡은 메밀가루와 보리 등개에 짠지(김치)를 넣고 된장도 넣고 하여 반죽을 한 다음에 솥에 쪄낸다. 그것을 그냥 먹고 짜니까 물을 마시면서 배를 채웠는데 마르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이때는 불에 구워 먹었다. 그래서 불떡이라고 한다.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몇날 몇일을 싸우다가 어느 날 비가

내려 의병들의 화승이 젖게 되었고 그러자 화승총을 쏠 수 없게 되면서 의병들이 패퇴하게 된다. 그 때 그곳에서 수많은 의병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나머지 의병들은 황지쪽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 뒤에 지방 사람들은 왜놈들과 싸운 산모랭이 이기에 왜쌈모랭이라 고 부르게 된 것이다. 왜쌈모랭이를 왜쌈모테, 왜쌈모퉁이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 왜쌈모퉁이 → 왜쌈모랭이

● 왜쌈모테 → 왜쌈모랭이

● 의병뫼깨

왜쌈모랭이 앞쪽 도로 아래쪽을 의병뫼깨라 한다. 왜놈들과 싸우다 죽은 의병들을 한 구덩이에 수십명씩 묻었다고 하며 그러한 묘가 주위에 수십개나 된다고 한다. 왜쌈모랭이 뿐만 아니라 진등과 부정당 뒷쪽의 묵뫼깨에도 의병들의 무덤이 있다고 하니 나라를 위해 순국한 의병들의 수가 부지기수라는 것을 알겠다. 현재의 35번국도 개설 때 의병들의 묘가 무연고묘로 되어 많이 훼손되었고 그때 해골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의병뫼깨 부근의 흙이 좋아 가끔 사람들이 그 흙을 가져다가 벽이나 부뚜막을 바르는데 하장 사는 박모씨가 그 흙을 파다가 부뚜막을 발랐는데 마르고 나자 하얀 뼈 조각이 많이 드러나서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이다. 이곳의 흙이 좋아 이 흙으로 기와를 굽기도 하였다.

● 짐대배기

고직이재 꼭대기를 짐대배기라고 한다. 예전에 그리로 사람들이 넘어 다녔는데 고갯마루에 짐대가 세워져 있어서 짐대배기라고 한다. 짐대는 솟대와 같은 것으로 긴 장대 위에 새 세 마리를 만들어 올려놓은 신간(神竿)으로 신성한 장소에 세우던 것이다. 태양신을 상징하는 신물(神物)로 새 세마리는 삼족오(三足烏)를 상징하고 긴 나무는 해가 떠오르는 부상(扶桑)나무를 뜻하는 것이다.

● 임무소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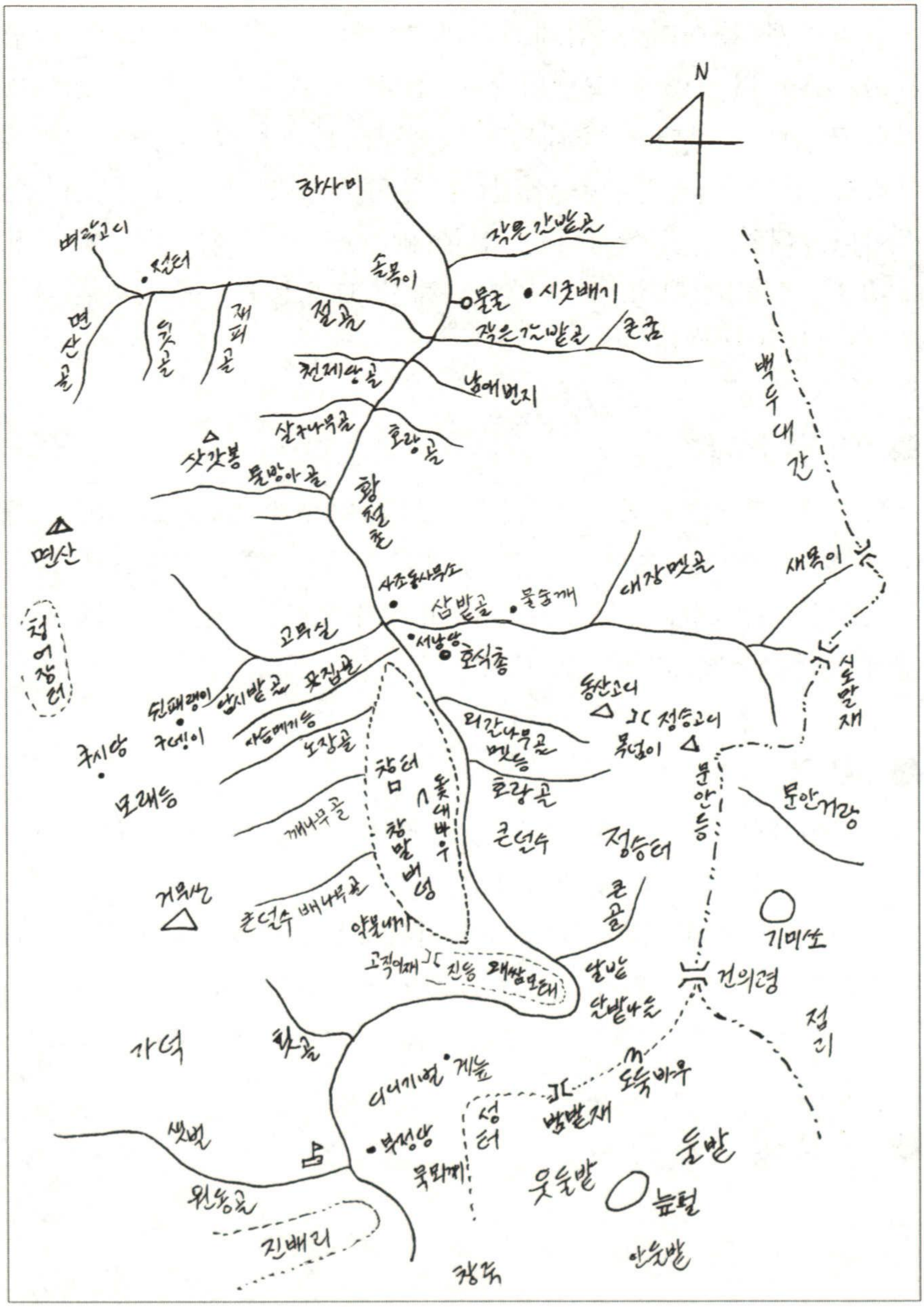
고직이재에서 남쪽으로 넓은 밭이 있는데 그곳을 임무소깨라고 한다. 과거 수십년전에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갱목을 조달하던 임무소 사무실이 이곳에 있었기에 그 임무소를 따서 임무소깨라고 한 것이다.

● 횟굴

고직이재에서 오른쪽 산등으로 8부 능선 쯤 올라가면 석회동굴이 하나 있는데 횟굴이라고 한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만 겨울만 되면 김이 무럭무럭 올라와 주변에 하얀 서리가 쌓인다. 흡사 굴뚝같기에 굴뚝굴이라고도 하는데 횟굴이란 말은 석회동굴이란 말이 그냥 횟굴이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굴뚝굴 → 횟굴


N
하사미
작은갓밭골
솔목이
물골
시초배기
큰골
작은갓밭골
백두대간
벼락고이
전터
면산골
잣골
재피골
절골
전제상골
놀에번지
살차나무골
호랑골
삿갓봉
물방아골
황철골
면산
사조동사무소
삼밭골
물숭개
대장멧골
새목이
청어장터
고목실
서낭당
호식총
동산고니
정승고니
뒤패랭이
삼밭골
못집골
쿠시당
구데이
서낭메기등
도장골
모래등
러갈나무골
멧등
호랑곡
큰넌수
참터
참말버덩
돌대바우
깨나무골
거믓산
큰넌수 배나무골
약물내기
정승터
큰골
분안등
분안거랑
기미소
고직여재
진등 괘쌈모태
살밭
단밭나슨
건의령
점리
가덕
차골
서낭당
게늘
도둑바우
쌍밭재
성터
부정당
묵뫼끼
웃둠밭
둠밭
뉴털
안둠밭
왼동골
진배리
장둠
샛번
占

● 횟골

고직이재와 미동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이 골짜기에서 횟돌을 캐내어 회를 구웠기에 횟골이라 한다.

옛날에는 회를 구워 횟가루를 만들어서 집 벽에 회벽을 하기도 했고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 때 회다짐을 하는데 쓰기도 하였다. 요즘에도 회를 구워 시멘트를 만드는데 옛날에도 회를 구워 시멘트 처럼 썼으니 선조들의 지혜가 오늘에 이어지는 것이다.

횟골 안에는 석회동굴이 있다.

● 횟골굴

횟골에 있는 석회동굴이다. 횟골 안쪽에 있는 석회동굴로 상당히 큰 굴이다.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려 석순 등은 별로 없으나 주변의 석회암층으로 봐서 하부가 발달한 동굴이 아닌가 한다.

● 돌모랭이

창죽동과 경계 지점에서 부정당으로 오는 산모랭이를 돌모랭이라 한다. 산모퉁이를 돌아서 온다고 돌모랭이라 하기도 하고 또 산모퉁이에 돌도 많기에 돌모랭이라고 부른다. 35번국도가 확장되기 전에는 돌모랭이와 부정당 사이에는 경찰지서도 있었고 가게집과 일반 주택이 10여채가 넘게 있었으나 도로 확장과 합께 뜯겨 버렸다.

● 묵뫼깨

돌모랭이 뒷쪽 산등성이에 올라가면 약간 편편한 분지가 나

오고 오래된 무덤이 많은데 묵뫼깨라 한다. 옛날 왜쌈모퉁이에서 왜놈과 싸울 때 전사한 의병들의 묘가 이곳에도 많다. 묵뫼라는 말은 오래되어 벌초를 하지 않은 묵은 묘를 뜻하는 말로 무연고 묘가 많아서 묵뫼깨라 한다.

● 새목이등강

돌모랭이 뒷쪽 산등을 올라서서 둘밭으로 가는 산등을 이르는 말이다. 남쪽에 점리로 가는 새목이라는 고개가 있고 새목이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서 둘밭으로 가는 산등을 새목이등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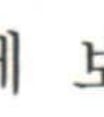
새의 목처럼 가늘게 늘어진 산등이라서 새목이 등강이라 한다지만 부정당과 둘밭 사이의 산등이라는 사이 목(고개)이 라는 말이 새목이로 변한게 아닌가 한다.

● 부정당(不淨堂)

돌모랭이를 지나 디디기벌로 내려오다 보면 35번 국도 오른쪽에 있는 성황당을 부정당이라 한다.

이곳 부정당은 그 역사가 오래되고 영험함이 널리 알려진 서낭당이다. 원래는 삼척 사람들이 태백산 천제를 지내러 갈 때 이곳 부정당에 들려 부정굿을 하고 태백산으로 갔다고 해서 부정당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태백산 천제가 금지되고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지자 마을 서낭당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부정당에서는 정월에 날받이를 해서 제사하고 오월 단오에 제사한다.

● 부정당(富鼎堂)

디디기벌에 있던 자연부락을 부정당(富鼎堂)이라 했다. 인근에 있는 부정당(不淨堂)이란 성황당에서 유래된 이름이긴 하나 구한말 기록인 삼척군읍지(三陟郡邑誌)에 보면 상장면(上長面) 관할 24개리(二十四個里) 가운데 하나로 부정당(富鼎堂)이라 하여 한 개의 리(里)로 인정이 되던 부락이었다. 나중에 일제 때 하장면 관할인 상사미리에 속하게 된 것이다. 부정(富鼎)이란 부자 솥이거나 부자가 되는 솥이란 뜻이니 부정당 사람들은 집집마다 솥단지에 쌀밥이 그득하여 부자로 다 잘 살았나 보다. 일부에서 부정당(富鼎堂)을 부승당(富昇堂)이라고 부르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찌하여 부정당(富鼎堂)을 부승당(富昇堂)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일부 글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단군기원4249년(서기1916년 : 대정5년)에 삼척군수 심의승에 의해 간행된 삼척군지의 상사미조에서 부정당(富鼎堂)의 정(鼎)자를 복잡하여 약자(略字)로 써 놓은 것을 승(昇)자로 잘못 읽은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책에 보면 정(鼎)자를 약자로  으로 써 놓았는데 이것을 승(昇)으로 잘못 읽은 것이다. 이 책 외에 어떠한 문헌에도 부승당이란 기록은 없다.

● 디디기벌

부정당이 있는 아래쪽 넓은 벌판을 디디기벌이라 한다. 상사미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디디기벌이라 하느냐고 물으니, 그곳에는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불어 아무리 걸어도 나아가질 못하고 제자리를 디디는(밟는)것 같아 디디기벌이라 한다고 대답한다. 일견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으나 실지 창말바덩이나 디

디기벌이나 피재 밑의 바깥 창죽 마을들은 겨울철만 되면 바람이 세서 사람들이 걷기에 힘든 곳이다. 그런데 유독 디디기벌만 발을 디디기가 쉽지 않단 말인가. 물론 디디기벌의 겨울 바람은 세다.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유래를 찾아보면 디디기벌이 창말에서 보면 뒷쪽에 위치한 벌판이 된다. 그러니 뒷쪽에 있는 벌판이 되는 것이다. 창말버덩의 뒷쪽에 있는 밭뙤기들이기에 "뒷뙤기벌"이 변해 뒤띠기벌→디디기벌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 배형국묘

디디기벌 한 중간인 35번 국도 서쪽의 밭 한가운데에 오래된 묘가 하나 있다. 예전에 누가 묘를 썼는데 디디기벌이 배형국이라 묘를 쓰고는 배가 떠나듯이 자손들도 떠나야 된다고 하여 자손들 모두 객지로 떠나게 되었고 마침 그 후손들이 잘되어 모두 부자로 살고 출세도 했다고 한다. 나중에 후손이 조상의 묘를 찾고자 디디기벌에 와서 물었으나 주민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는 그 후손이 잘나서 세도를 부리기에, 속된 말로 끄세기에 가르쳐 주면 나중에 귀찮게 할까봐 그랬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그 묘의 벌초를 해 주고 있다.

● 게늪

디디기벌 한쪽에 늪이 있는데 게늪이라 한다. 35번 국도 동쪽 산 밑에 있는데 둥근 가락지 모양의 늪이다. 항상 물이 고여 있는데 늪의 가운데에 섬 처럼 생긴 땅이 있으며 사방이 석벽이고 윗쪽에 묘가 있다. 게(蟹)형국의 명당이 있는 늪이라는 뜻으로 게늪이라 한다.

어떤 사람은 가재형국이라 하여 가재늪이라 고도 한다.

● 게형국묘

게늪 가운데 솟은 땅에 있는 권씨네 묘이다. 늪 가운데 섬처럼 솟은 땅 위에 쓴 묘인데 주변에서 보기 드문 명당이다. 사람들은 그 땅의 형상을 두꺼비 형국이니 게(蟹)형국이니 가재형국이니 말들이 많은데 일견 일리가 있는 관산법(觀山法)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늪 한 가운데에 사방이 석벽(石壁)으로 된 땅이 솟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 석벽이 물위에 뜬 연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산세가 연화부수 말고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 형국이라 그러하다. 당초에 이곳에는 다른 사람이 묘를 썼는데 좌향을 거무산 쪽으로 했는데 앞산이 장구처럼 생겨서 인지는 몰라도 무당이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묘를 이장하게 됐고 권씨네가 명당임을 간파하고 그 터를 사서 묘를 쓰되 완전히 반대 방향인 뒷산 쪽으로 보고 쓴 것이다.

● 건의령(巾衣嶺)

상사미에서 삼척시 도계읍으로 넘어가는 큰 고갯길이 건의령이다. 왜쌈모랭이 건너편에서 백두대간의 등마루를 넘어가는 고개인데 비포장 도로가 도계읍 점리와 늪구리로 이어지고 있다. 고갯마루에는 성황당이 있고 현재 건의령을 관통하는 굴이 갓 뚫려 있으나 포장이 안된 상태이다.

예전에는 삼척지방에서 정선지방으로 통하는 큰 길이었으며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대동지지(大東地志), 척주지(陟州誌) 등에 기록되어 있고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삼척부지도

(三陟府地圖), 해좌전도(海左全圖) 등 고지도(古地圖)에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는 이름 난 고개이다.

고려말 때 삼척으로 유배 온 공양왕(恭讓王)이 근덕(近德)의 궁촌(宮村)에서 살해되자 고려의 망국유신(亡國遺臣)들이 이 고개를 넘으며 불사이군(不事二君)하겠다는 뜻으로 쓰고 있던 관모(巾)와 입고 있던 관복(衣)을 벗어 고갯마루 나뭇가지에 걸어 놓고 다시는 벼슬길에 나서지 않겠다며 태백산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유서 깊은 고개이다.

관모와 관복을 벗어 걸었다고 관모(冠帽)를 뜻하는 건(巾)과 관복(官服)을 뜻하는 의(衣)를 합쳐 건의령(巾衣嶺)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건의령(巾衣嶺)의 건(巾)자를 괴로워하며 절뚝거린다는 뜻의 건(蹇)자를 쓰는 건의령(蹇衣嶺)으로 쓰기도 했는데 최근의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지도에는 절름발이 건(蹇)자를 찰한(寒)자로 잘못 인식해 한의령(寒衣嶺)이 되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고 있다.

● 건의령당(巾衣嶺堂)

건의령 꼭대기에 있는 서낭당으로 영로(嶺路)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곳이다. 건의령당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나 고갯길이 생기고 부터 있었지 않았나 한다.

마을에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임씨네가 설립하였다고 하니 마을 설립자가 임씨네이고 보면 그 전 일은 알 수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임씨네가 상사미 마을을 떠나고 없는데 건의령당도 임씨네와 더불어 쇠락되어 가고 있다.

특이한 것은 건의령 서낭당에 「百人敎君子堂」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는 것이다. 백인교(百人敎)라는 종교가 있는 것인지 군자당(君子堂)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추측이 꼬리를 물 따름이다. 현재 상사미 마을 사람들은 건의령당에 관여를 하지 않아 판자집으로 된 서낭당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며 당집 안에는 구멍 난 도기가 몇 개 놓여 있다.

● 밤밭재

건의령 오른쪽에 있는 산등에 있다. 건의령 남쪽이 되는 밤밭재는 꿀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 밭을 이루며 가을이면 그 근방에서 꿀밤(도토리)을 많이 채취하였기에 밤밭재라고 한다.

밤밭재를 넘으면 둘밭으로 갈 수 있는데 예전에 시집가는 가마가 이 고개를 넘어가지 않고 건의령 쪽으로 돌아서 갔다고 한다. 왜냐하면 밤밭재로 가마가 넘으면 시집가서 반년밖에 살지 못하고 쫓겨 온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밤밭과 반년이 어감상으로 비슷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한다.

● 숯굽배기

밤밭재를 오르다가 중턱쯤에서 오른쪽으로 움푹 들어간 지형이 있는데 숯굽배기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 참나무 종류가 많아서 그 나무들을 베어 숯을 구웠기에 숯굽배기라 한다.

● 도둑바우

밤밭재 꼭대기에서 왼쪽인 북쪽에 있는 볼록한 산봉우리 위에 있다. 이곳은 온통 바위로 된 곳인데 꼭대기에 커다란 바위 네개가 솟아 안쪽에 사람이 몸을 숨길 수 있게 되어 있다. 옛

날 도둑이 이 바위 속에 숨어 있다가 고개를 넘나드는 길손들을 위협하여 물건을 빼앗았다고 한다.

한때 어느 도둑이 길손의 베를 훔쳐 그 바위 속에서 숨어 여러 날을 버티다가 바위 안에서 연기가 나기에 가보니 도둑이 밥을 해 먹으며 숨어 있는 것을 잡아냈다고 한다. 지금도 바위에는 불에 그슬린 자국이 남아 있다.

● 둘밭

밤밭재 넘어 백두대간의 동쪽 산 중턱에 너른 밭이 형성되어 있는데 둘밭이라 한다. 밭이 높다란 산중턱에 형성되어 있어서 둘린밭이므로 둘린밭, 둘밭이 되었다는 말이 있고 또 그곳에 있는 밭들이 메밀씨 한가마니를 뿌릴 정도의 두락(斗落)이므로 두락밭이 변해 둘밭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 실지 둘밭을 두전(斗田)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두락(마지기)밭이란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말이라고 하겠다. 보통 백두대간이 마을의 경계인데 이곳 둘밭은 백두대간 너머로 상사미의 6개 자연부락 가운데 하나이다.

● 웃둘밭

둘밭에서 윗쪽에 있다고 웃둘밭이다. 둘밭에서 윗쪽 백두대간 바로 아래에 있는 높은 밭이다.

● 거리밭

전체 둘밭 마을에서 바깥쪽 길거리에 있는 곳을 거리밭이라고 한다. 바깥거리에 위치해 있는 밭이라고 거리밭이라 한다.

● 안둘밭

둘밭 마을에서 안쪽에 있다고 안둘밭이라 한다. 둘밭에는 3밭이 있는데 거리밭, 안둘밭, 삼밭인데 이 삼밭(三田) 사이가 피난지(避亂地)라고 알려져 왔고 실지 6.25사변 때도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아 무사히 난리를 피한 곳으로 유명하다.

● 둘밭골

둘밭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를 따라 내려 가면 도계읍 점리로 간다.

● 삼밭

거리밭과 안둘밭 아래에 있는데 삼(麻)을 많이 심던 곳으로 삼척시 도계읍 땅이다.

● 삼마골

안둘밭에 있다. 골짜기 아래쪽이 점리의 삼마골이다.

● 늪펄

둘밭 한 가운데에 커다란 못이 있는데 늪펄이라 한다. 처음에는 물이 질퍽한 습지였으나 정씨네가 늪 뒷쪽에 묘를 쓰고는 준설을 하여 지금은 엄청 큰 못으로 변해 있다. 늪은 못을 뜻하고 펄은 습지를 이르는 말이다.

● 성터

건의령에서 새목이재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구한

말 때 의병들이 주둔하면서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돌 몇개씩 들겨 놓는 형식으로 쌓은 성터가 있다. 어찌보면 자연 석축 같고 어찌보면 사람이 쌓은 것 같은데, 전하는 말에 의하면 신통한 의병장의 영험으로 하룻밤에 쌓았다고 한다.

● 벼루쏘

왜쌈모랭이 아래쪽 하천에 있는 깊은 소(沼)이다. 그곳의 돌이 푸른빛이 감도는 이암(泥岩)이기에 그 돌을 떼내어 벼루를 만들었기에 벼루쏘라고 한다.

● 달밭나들

왜쌈모랭이에서 건의령을 가기위해 달밭쪽으로 건너가는 하천에 있다. 나들이란 나루와 비슷한 뜻인데 나루는 배로 물을 건너지만 나들은 걸어서 물을 건너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 달밭

달밭나들을 건너자마자 있는 반달 처럼 생긴 밭이다. 건의령 아랫쪽 하천가에 평평한 밭이 흡사 반달같이 형성되어 있기에 달밭이라 한다. 땅의 형상이 반달 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달밭이란 말은 산전(山田)에서 유래된 바가 크다.

● 큰골

달밭 뒷쪽에서 정승터로 올라가는 골자기를 큰골이라 한다. 골짜기가 크다고 큰골인데 골짜기에서 제법 큰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큰골을 다른 말로는 큰굼이라고 부른다.

● 큰굼 → 큰골

● 달밭늪

달밭 아랫쪽이 되는 북쪽 산기슭에 늪이 있는데 달밭늪이라 한다. 큰골에서 흘러오는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곳에서 솟아 나오는 데 길게 형성된 늪으로 물풀이 자라고 있다.

● 정승터

큰골로 들어가서 산등을 올라서면 양지 바른 곳에 넓다란 산등성이가 나오는데 정승터라 한다.

샘도 있고 방아확도 있고 구들장도 발견되는 이곳은 토질도 좋아 상사미 사람들이 산림청에 개간을 신청하기도 한 곳이다. 정승터는 고려말 때 공양왕이 삼척에 유배 왔을 때 고려의 정승이 이곳에 와 살면서 매일 뒷산 문안등에 올라 삼척쪽을 바라보며 문안 인사를 드렸다고 한다. 정승이 살던 터라고 정승터라 한다.

● 문안등

정승터에서 동북쪽 뒷 산등으로 그곳에 올라서면 멀리 삼척과 육백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다. 정승터에 살던 정승이 매일 이곳에 올라와 육백산을 바라보며 육백산 넘어 궁터에 유배와 있던 공양왕께 문안 인사를 올렸다 고 한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신하의 예를 갖추고자 한 정승의 애틋한 충절이 전해지는 산등이다. 건의령 북쪽 산등이다.

● 문안거랑

문안등 넘어 동쪽 산비탈에 있는 문안골에 있는 거랑을 문안거랑이라 한다. 문안등으로 올라가는 거랑이란 뜻이다.

● 문안골 → 문안거랑

● 기미쏘

문안거랑 옆에 있는 커다란 웅덩이 이다. 평소에는 물이 없지만 장마 때는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찬다. 처음에는 물이 가득 차 있던 늪이 었으나 공양왕이 죽자 소(沼)의 물이 말라버렸다고 한다. 그 뒤에는 장마 때만 되면 물이 차고 평소에는 물이 말라 있는데, 기미쏘에 물이 차 넘치면 흉년이 들 기미(조짐)가 있으므로 기미쏘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기미쏘에 물이 차 있느냐 물이 말라 있느냐에 따라 흉년 풍년의 기미(조짐)가 점쳐 진다고 한다. 최근에 기미쏘와 문안거랑 사이에 굴이 뚫여 도로 공사를 하면서 기미쏘가 훼손될 위기에 있다.

● 정승고디

문안등에서 왼쪽인 서북쪽 산봉우리를 정승고디라 한다. 정승터 윗쪽의 산등이란 뜻으로 정승고디라 한다. 고디라는 말은 높은 산봉우리를 뜻하는 방언이다.

● 앞산

정승고디를 앞산이라 한다. 상사미 창말에서 바라보아 앞에 있는 산이라 고 앞산이다.

● 호랑골

정승고디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에 호랑이가 살아서 많은 사람을 잡아 먹었기에 호랑이골이라 한다. 호랑골 안쪽에 호식총이 있었다 고 한다.

● 외갈나무쟁이

호랑골 아랫쪽 하천이 있는 곳이다. 예전에 그곳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았고 외가리가 많이 서식하여서 그곳을 외갈나무쟁이라 하고 또는 외갈나무터라 고 한다. 외가리가 많이 서식하였는데 30여년 전부터 농약 사용이 많아지자 외가리들이 모두 떠나 갔다고 한다.

● 외갈나무터 → 외갈나무쟁이

● 외갈나무골

외갈나무쟁이 뒷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동산고디와 정승고디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나무가 울창하고 골이 깊다.

● 맷등

호랑골과 외갈나무골 사이에 있는 산등을 이르는 말이다. 이곳 산등에 오래된 묘(墓)가 있어서 묏등이 맷등으로 변했다.

● 목넘이

동산고디와 정승고디 사이에 있는 고갯길이다. 그리로 넘어가면 삼밭골로 넘어갈 수 있다. 삼밭골로 넘어가는 목재라고

목넘이라 한다.

● 동산고디

외갈나무골 안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상사미 마을에서 바라보면 동쪽에 있는 산 고디라고 동산(東山)고디라 한다.

● 호식총

동산고디에서 삼밭골 어귀로 뻗어 내려온 산줄기 중간 지점에 있다. 옛날 호랑이에 물려 죽은 사람의 무덤이다. 얼마전까지 만 해도 시루와 가락꼬지가 남아 있었으나 산판을 하면서 깨져 버리고 지금은 돌무덤 흔적만 있다.

● 화냥바우

동산고디를 올라 가다가 오른쪽 8부 산능선에 있다. 커다란 바위 절벽이 있고 절벽 윗쪽에 커다란 바위 구멍이 있는데 물이 조금씩 나오기에 이끼가 파랗다. 그 형상이 여인의 소문(小門)처럼 생겼는데 누군가가 그 구멍을 나뭇가지로 쑤시면 상사미 마을의 여인네들이 바람이 난다는 전설이 전한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이 요상하여 싫으므로 지금은 열녀바우라고 이름을 고쳐 부른다고 한다.

● 열녀바우 → 화냥바우

● 서낭당

외갈나무쟁이 끝 산등에 있다. 원래는 창말의 서낭터에 있었

는데 30여년 전에 이곳으로 옮겨 세웠다. 상사미 창말 사람들이 매년 정월에 날받이를 하여 제사 지내고 5월 단오에 제사 지낸다. 당집은 지붕과 벽이 모두 함석으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 그리 오래되지 않은 소나무가 총총하게 서 있다. 서낭당 내부에는 소나무 위패에 「城堭任尊位」라고 내리 써 있다. 제물은 술과 포와 삼실과와 시루떡을 쓰는데 닭고기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유는 서낭당의 위치가 마을의 동쪽에 있는데 닭은 유(酉)로 서쪽을 상징하므로 서로 상충이 되기에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 숯꾸배기

외갈나무골 안쪽에 있다. 예전에 그곳에서 숯을 많이 구웠기에 숯굽는 곳이란 뜻의 숯꾸배기라 고 하였다.

● 짐대배기

창마을 끝 35번 국도 도로 가에 있었다. 곳집골 어귀에서 삼밭골로 가는 도로 가인데 하천을 건너지 않은 지점이다. 이곳에 짐대라고 하는 긴 장대 위에 새 세마리를 올려놓은 구조물이 있었다. 상사미에는 짐대배기가 2개인데 하나는 이곳이고 하나는 고직이재 위에 있었다.

● 고무실

곳집골 아래쪽인 북쪽으로 더 가서 왼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말한다. 골짜기가 길고 깊어서 계속 올라가면 면산으로 갈 수 있다. 옛날 골짜기 안쪽에 곰이 많이 서식하여 곰실인데

그 말이 변해 고무실이라 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골짜기 안쪽이 갑자기 가파르게 치솟아 흡사 고무다락 처럼 생겨서 고무실이라 한다는 말도 있다. 실은 골짜기를 뜻하는 말로써 골 → 실 → 일 → 밀 → 미 등으로 변천되나 모두가 골짜기를 뜻하는 말이다. 고무실을 고무실골이라고도 부르나 이것은 중복된 말로 실이 골짜기인데 또 골이라 하면 역전 앞과 같은 말이 된다.

● 고무실골 → 고무실

● 담시밭골

고무실로 쭉 들어가서 왼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이다. 그 곳에는 돌이 많고 돌담도 많다. 그래서 돌담이 많다고 담시밭골이라 한다. 담시밭골의 돌담 속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경수(硬水)라서 상당히 센물이다. 보통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설사를 한다고 한다.

● 쉰패랭이 구뎅이

고무실로 들어가 담시밭골 윗쪽 산허리에 있다. 그곳에는 예전에 은(銀)을 파던 구덩이가 여럿 있는데 쉰패랭이 구뎅이 또는 쉰패랭이굴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은을 팔 때 갑자기 굴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묻혀 죽었고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었는데 마침 굴 밖에 벗어 놓은 패랭이가 대충 쉰 개가 되므로 50여명이 죽었는줄 알았고 그 뒤로 이곳을 쉰패랭이 구뎅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쉰패랭이굴 → 쉰패랭이 구뎅이

● 모래등

담시밭골 끝과 곳집골 끝이 합쳐지는 산등에 있다.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면산으로 갈 수 있는 산등이고 청어장터 아랫쪽 산등이다. 모래등에는 모래가 많고 조개화석도 발견되는데 상사미 사람들은 그 모래가 바닷모래라고 믿고 있다. 모래등 윗쪽에 청어장터가 있고 모래등에 바닷모래와 조개화석 까지 있으니 아주 옛날 이곳이 바다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모래등을 넘어가면 원동의 일정골로 갈 수 있고 한 등 넘어 맹골로도 갈 수 있다. 모래가 많다고 모래등인데 그 말이 변해 머리등으로 불린다.

● 머리등 → 모래등

● 쿠시당

모래등에서 면산쪽으로 더 올라가서 청어장터 못가서 산등에 있다. 예전에 이리로 큰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목이라 쿠시당이 있었다. 쿠시당은 다른 이름으로 국시당이라 하는데 고갯마루에 있는 성황당과 같은 곳이다. 오고가는 길손들이 돌을 주워 던지며 영로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던 곳인데 추매하던 삼장사들은 베쪼가리를 걸어 놓기도 하였다.

● 국시당 → 쿠시당

● 면산(免山)

청어장터 북쪽에 솟아 있는 최고 봉우리다. 해발 1221m의 산으로 원동과 하사미와 경계를 이루는 큰 산이다. 면산은 면할면(免)자를 쓰는 면산(免山)으로 옛날 난리가 났을 때 사람들은 이곳 산 밑으로 피난 와서 화전을 일구며 살면서 난리를 면했다고 면산이라 하였다.

면산 부근은 토질이 좋아 예로 부터 농사가 잘 되었고 특히 산삼이 많이 나던 산이 었다. 산 주변에 화전민이 많이 살았다. 상사미 사람들과 원동사람들은 면산이 멀리 있는 산이라서 먼산이라 했는데 그 말이 변해 면산이 되었다 고도 한다.

면산 꼭대기에는 일제가 박아 놓은 쇠말뚝이 있다고 한다.

● 삼밭골

고무실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사조동 동사무소 건물 뒷쪽의 골짜기가 삼밭골이다. 골짜기가 길어 백두대간으로 이어져 있고 골짜기 끝은 문안등과 정승고디로 이어 진다. 골짜기 안에서 삼(麻)을 많이 심는 밭들이 있어 삼밭골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옛날 상사미가 삼(蔘)이라 불렸고 나라에 삼공(蔘貢)을 바친 것을 감안하면 대마를 심는 삼밭(麻田)이기 보다는 삼을 많이 심는 삼밭(蔘田)일 가능성이 높다.

삼밭골 오른쪽은 북향으로 형성된 골짜기로 이루어져 산삼을 심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삼밭골은 상사미의 6개 자연부락 가운데 하나로 예전에 화전민들이 백두대간 사면에 많이 살았다.

● 사조동사무소

삼밭골 어귀에 있는 3층 건물로 사조동 시절의 동사무소 건물이었다. 단군기원 4327년(서기1994년) 12월26일 태백시로 편입된 4개리(원동, 상사미, 하사미, 조탄)가 사조동으로 되면서 이듬해 건물이 지어졌고 단군기원4331년(서기1998년) 9월 10일 삼수동으로 편입될 때까지 동사무소로 이용되었으나 지금은 사조동 보건진료소로 활용되고 있다.

● 삼밭골 서낭당

삼밭골 어귀 밭 가운데에 있는데 시멘트 벽돌로 지은 집에 스레트를 이었다. 삼밭골 주민들이 정월달에 날받이하여 제사 지내고 5월 단오에 제사한다. 당목으로 물푸레나무가 있다.

● 물숨깨

삼밭골 어귀에서 안쪽으로 약 500m 쯤 들어가서 왼쪽에 있다. 이곳 땅 속에서 물소리가 난다. 땅 밑으로 흐르는 물이 숨쉬는 구멍이 있어서 라고 하는데 석회암 지대라서 땅속으로 스며든 지하수가 흐르는 물길이 있는 것 같다. 지하의 물이 숨쉬는 곳이란 뜻이다.

● 대장멧골

삼밭골로 약 1km정도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 산등에 의병대장의 묘가 있어서 대장묘골이 변해 대장멧골이 되었다.

● 시도말재

삼밭골에서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 시도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삼밭골에서 똑바로 들어가면 골짜기 끝이 시도말재이다.

● 새목이

시도말재 북쪽에 있는 고개로 역시 한내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새목이는 사이목이로 상사미와 한내리 사이에 있는 목(고개)이라는 뜻이다.

● 작은 물방아골

고무실 어귀를 지나 북쪽으로 하천을 따라 내려가며 왼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큰 물방아골에 의하여 작은 물방아골이란 이름이 붙었다.

● 큰 물방아골

작은 물방아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이 골짜기 어귀에 물방아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물방아골이라 하였다.

● 호식총

큰 물방아골과 작은 물방아골 사이의 산등에 있었다. 큰 물방아골과 작은 물방아골 사이의 산등은 불쑥 솟아 가파른데 그곳에 돌무더기와 시루가 있었는데 최근에 시루가 사라졌다. 옛날 어느 처녀가 호랑이에 잡아먹힌 자리이다. 그 곳에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엎어 놓으며 시루구멍에 가락을 꽂아두는 무덤인데 호식총이라 한다.

● 점터거리

작은 물방아골과 고무실 사이에 점터거리가 있다. 예전에 이곳에서 쇠를 녹이는 점터가 있어서 솥과 쟁기의 보섭 등을 만들었다. 점터가 있던 곳이라 점터거리라 한다.

● 황철배기

수자원공사 상사미 가압장이 있는 부근을 황철배기라 한다. 황철나무가 몇그루 서 있어서 그 일대를 황철배기라고 부르게 되었다.

● 황철쏘(黃鐵沼)

황철배기 앞의 하천에 있다. 상사미에서 내려오는 하천물이 머물렀다가 가는 곳으로 주위에 바위가 있어 물이 깊다. 황철쏘의 물이 한질(한길)이 넘기에 한질쏘라고도 한다.

● 한질쏘 → 황철쏘

● 쏘깨

황철쏘가 있는 부근을 쏘깨라고 한다.

● 뼝때밑

쏘깨 윗쪽에 있는 절벽(뼝때) 아래쪽을 이르는 말이다.

● 상사미 가압장

황철배기에 있다. 수자원 공사에서 광동호의 물을 끌어 오는데 이곳에서 다시 물을 밀어 올리는 곳이다. 단군기원4320년(서기1987년)에 신설하였고 당시에 아파트를 지어 6세대 24명이 상주하였으나 단군기원4332년(서기1999년)에 철거하였다.

● 황철촌(黃鐵村)

황철배기 부근을 황철촌이라 한다. 상사미의 6개 자연부락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

황철배기의 이름을 따서 황철촌이라 하였는데 물방아골과 인근의 마을을 통틀어 황철촌이라 하였다.

● 호랑골

황철배기에서 북쪽으로 내려가다가 다리를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옛날 골짜기에 호랑이가 살았고 그 호랑이가 골짜기 어귀에 살던 처녀를 물고서는 하천 건너 물방아골 산등에서 잡아먹었다고 한다. 호랑이가 출몰하던 골짜기라고 호랑골이라 한다.

● 남애번지

호랑골 어귀를 지나 좀 더 내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언덕을 올라서면 펀펀한 산등을 남애번지라고 한다. 절골 어귀 마을에서 남쪽 있는 번지(번디)라고 남에번지가 남애번지가 됐다고 한다.

● 큰갈밭골

남애번지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갈대밭이 있는 고로 갈밭골이라 한다. 또는 갈나무(참나무 종류)가 많아서 갈밭골이라 고도 한다.

● 큰굼

큰 갈밭골로 들어가 왼쪽에 있다. 굼이 크기에 큰굼이다.

● 물굴

큰갈밭골과 작은갈밭골 사이의 하천가에 있다. 그곳에 석회동굴이 있고 비가 오거나 장마 때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온다. 물이 나오는 굴이라서 물굴이다.

● 작은갈밭골

큰갈밭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줄바우

작은갈밭골 안쪽으로 들어가 왼쪽에 있다. 커다란 바위가 길이 50여m 높이 약 5m 정도 되는 것이 있는데 줄로 서 있다고 줄바우라 한다.

● 덫목이

큰갈밭골과 작은갈밭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그곳에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설치하였기에 덫목이라 한다.

● 시굿배기

큰갈밭골과 작은갈밭골 사이의 산등을 올라 가면 땅이 가마솥 처럼 커다랗게 쑥 꺼져 내려간 곳이 있다. 석회암 지대에 나타나는 돌리네(Doline)형상이다. 시굿은 땅이 쑥 둘러 빠져 삼굿자리나 숯가마 자리 처럼 생긴 곳이란 뜻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옛날 숯을 구워서 숯가마 자리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숯꾸배기라고도 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20여m 되는 구덩이로 숯을 구운 숯가마 치고는 엄청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땅이 꺼져 내려가 숯가마 처럼 생겨서 붙은 이름이 아닌가 한다.

● 숯꾸배기 → 시굿배기

● 살구나무골

큰 물방아골 아래쪽에 있는데 황철배기를 지나 다리를 건너가 곧바로 보이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 커다란 살구나무가 있었기에 그 나무 이름을 따서 살구나무골이라 부른다.

● 삿갓봉

큰 물방아골 왼쪽이며 살구나무골 안쪽에 있는 높다란 산봉우리이다. 상사미 쪽에서 바라보면 흡사 삿갓 처럼 뾰족하기에 삿갓봉이라 한다. 경사가 상당히 급한데 옛날 천지개벽 때 조수가 올라와 다 물에 잠기고 삿갓봉에는 삿갓 만큼만 남았다고 한다.

● 목상집터

살구나무골 아랫쪽에 커다란 집이 한 채 있는데 과거에 김씨 성을 가진 목상(木商)이 살던 집이라고 목상집터라 한다. 집 주위에는 2아름이 넘는 커다란 돌배나무가 있는데 그 돌배나무에 수백년 묵은 큰 구렁이가 산다고 한다.

● 천제당골

목상집터 뒷쪽에 있는 작고 급한 골짜기이다. 과거에 목상집에서 천제당을 짓고 하늘에 천제를 지냈다고 하며 그래서 천제당골이라고 한다.

● 개구리늪

절골 어귀와 목상집터 앞쪽이다. 지금은 밭으로 변하고 말았지만 수십년 전 만해도 그 곳에는 커다란 늪이 있었다. 봄, 여름에 늪 속에서 개구리들이 매우 울어대기에 개구리늪이라 하였다.

● 통방아터

개구리늪 조금 윗쪽에 옛날 물통방아를 설치했던 곳이 있었는데 물통방아가 있던 곳이라고 통방아터라 한다.

● 절골

상사미에서 하사미 경계에 있는 깊은 골짜기로 예전에 골짜기 안에 절이 있었다고 절골이라 한다.

● 솔목이

절골 어귀의 오른쪽 산등에 있는 고개이다. 하사미의 석이바우골 어귀로 넘어 가는 고개이다. 고개에 소나무가 많아서 솔목이라 하였다.

● 물통방아터

절골로 들어가서 약 500m 지점에 하천 왼쪽에 물통방아터가 있다. 물통방아를 통방아라고도 하는데, 커다란 통나무 속을 파내고 그곳에 물이 차면 내려가 물이 쏟아지며 다시 올라오고 또 물이 차면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방아이다.

물통방아가 있던 터라서 붙은 이름이다.

● 소바우

물통방아터를 지나 300m 정도 가면 하천 가운데에 있는 바위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건천이고 비가 와야 하천에 물이 흐르는 곳인데 바위가 꼭 소가 누워 있던 자국 처럼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고 소 발자국이라는 발자국 형상으로 움푹 들어간 자국이 있다. 소 발자국과 소가 누운 자리가 있다고 하여 그 바위를 소바우라 한다.

● 방아폭포

물통방아터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있다. 2단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약 8m 정도 되는데 가물면 물이 쏟아지지 않고 장마 때 웅장하게 물이 쏟아진다.

● 너래폭포

절골에는 높이 2~3m 정도 되는 폭포가 10여개나 있다. 대개 너래 바위로 형성되어 있다.

● 재피골

소바우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서 피나무 껍질을 많이 벗겼기에 재피골이라 한다. 재피는 피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 것으로는 노끈이나 줄먹 등을 만든다.

● 물나오는 담

재피골 어귀를 지나 조금 올라 가다가 하천 건너 오른쪽에 있다. 그곳에는 커다란 돌담이 있고 돌담에서 물이 솟아 나온다.

● 맷벌양지

물나오는 담을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 산등에 오래된 묘(墓)가 있어서 묫벌인데 그 말이 맷벌로 변했고 남향한 양지쪽이기에 맷벌양지라 한다.

● 샛골

맷벌양지 어귀를 지나 골짜기로 들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재피골과 서낭뒷골 사이에 있다고 샛골이다.

● 물바우

샛골 어귀를 지나 서낭뒷골 못 미쳐 왼쪽에 있는 바위이다. 하천가에 바위 벼랑이 있는데 중간 지점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온다. 물이 솟아 나오는 바위라고 물바우라 한다.

● 서낭뒷골

물바우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 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서낭당 뒷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서낭뒷골이라 한다.

● 서낭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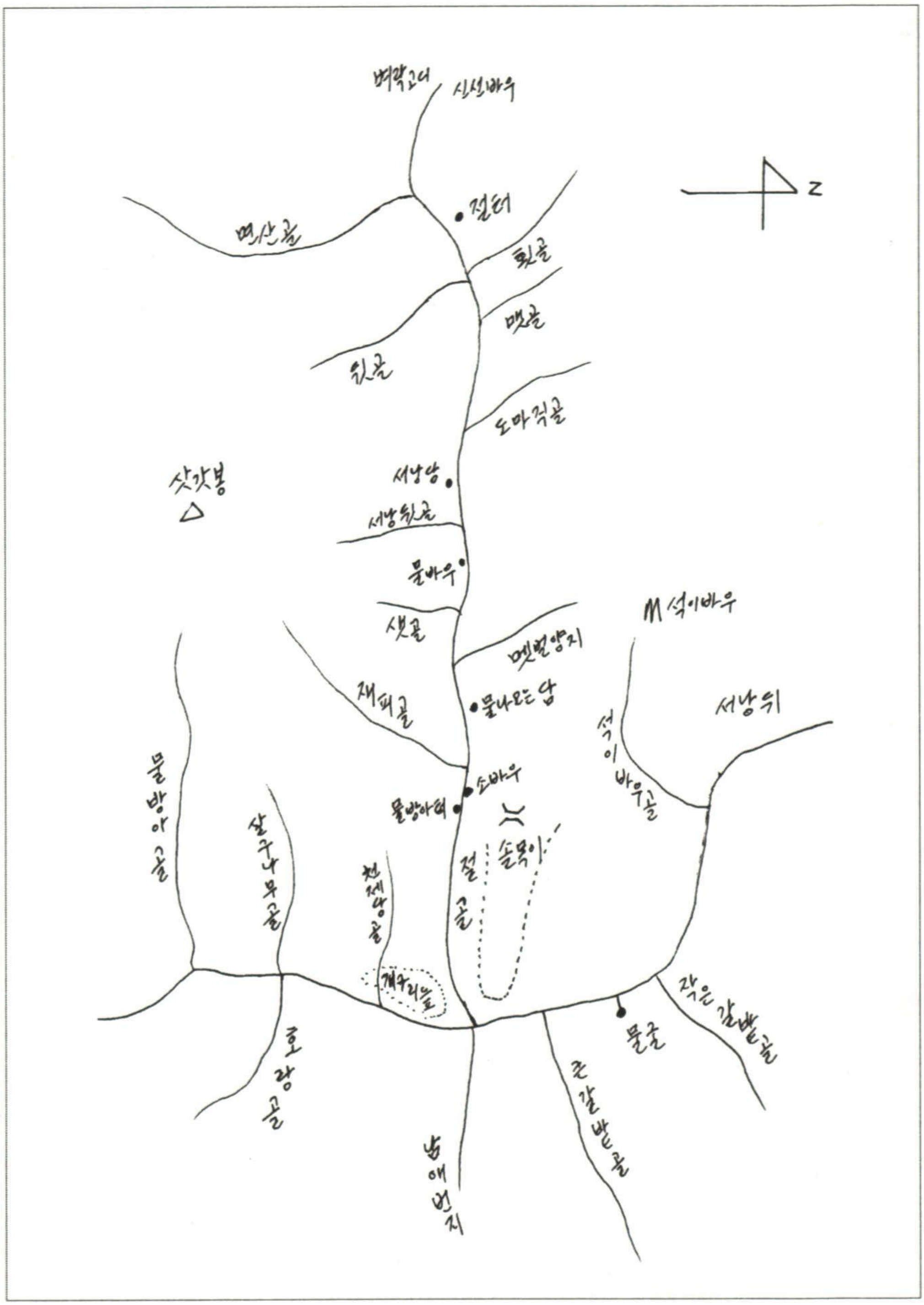
서낭뒷골을 지나 좀 더 올라가면 왼쪽에 서낭당이 있다. 목조로 지은 집에 함석으로 지붕을 이었다. 절골 사람들이 정월에 날받이하여 제사하고 절골이라는 지명 답게 4월 초8일에 제사한다. 서낭당 당목으로 2아름이 넘는 전나무 2그루가 있다.

● 뱀죽은 집터

서낭당 앞에 있다. 옛날 그 곳에 부자가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집 집지키미 구렁이가 그 집 울타리를 지나가다가 벌건 대낮에 벼락을 맞아 죽었다. 죽은 뱀이 울타리에 가로 걸려 죽어 있었는데 장정 4명이 목도로 들어 냈다고 한다. 그 뒤 그 집은 망해 버렸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도마직골

서낭당을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어귀에 도마름직이라는 마름이 살았기에 그 말이 변해 도마직골이 되었다. 옛날 절골에 절이 있었고 절골 전체가 그 절 땅이었는데 도마직이가 절 땅을 소작 놓고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버락고더
신선바우
N
정터
뫼산골
회골
맷골
윗골
도마질골
삿갓봉
서낭앙
서낭윗골
물바우
샛골
멧벌양지
재피골
물나오는 당
석이바우
서낭위
소바우
물방아골
물방아터
살구나무골
천제앙골
절골
솔목이
개구리늘
석이바우골
작은 갈빨골
물골
큰 갈빨골
호랑골
뫼자리

● 멧골

도마직골 어귀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윗쪽에 오래된 묘가 있기에 묫골이 변해 멧골이 되었다.

● 횟골

멧골 어귀를 지나 뒷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자기 안에서 횟돌을 캐내어 회를 구웠기에 횟골이라 한다.

● 뒷골

횟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 민가가 있고 그 민가(民家) 뒷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뒷골이다. 지금도 뒷골 어귀에는 빈집이 2채나 있다.

● 암물

뒷골로 들어가서 골짜기 오른쪽에 있는 샘이다. 물빛깔이 뿌옇게 되어 흙물이 섞인 듯이 보이는 샘물이다. 물빛깔이 뿌옇다고 암물이라 한다. 암물은 먹지 않는다.

● 숫물

암물 건너편에 있는 샘이다. 샘물이 상당히 맑고 물맛이 좋아 뒷골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샘물이다. 이 샘물은 상당히 영험하여 부정 타면 물이 변해 먹지를 못한다고 한다. 부정 탄다는 것은 샘물에 생선이나 육류를 씻으면 물에서 벌레가 나와 샘물을 못 먹게 된다는 것이다.

● 절터

횟골 어귀를 지나 300여m 정도 올라가서 도랑 건너 오른쪽에 있다. 절골이란 명칭이 나오게 한 절이 있던 곳이 었으나 절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단지 주변에 약간의 석축이 있어 절터였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 면산골

절터를 지나 올라가 왼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이다. 그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 면산으로 갈 수 있기에 면산골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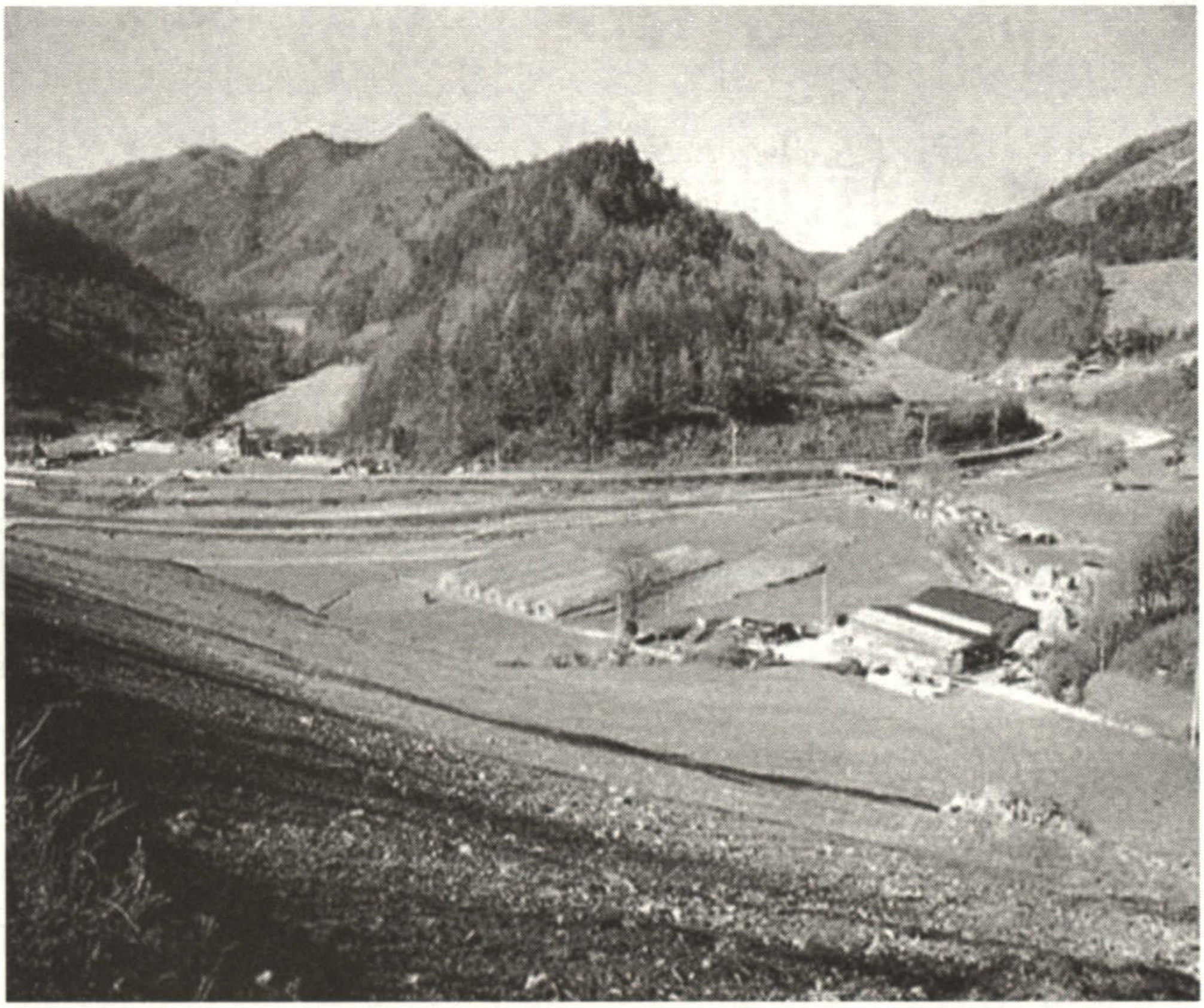
● 벼락고디

절골에서 하사미 가리골의 도장골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이다. 하도 가파르고 높아 자주 벼락을 치는 산등이라고 벼락고디라고 한다. 산이 높고 급하게 생겨도 벼락고디라 한다. 벼락고디를 넘으면 하사미 가리골의 용혈이 있는 조리골로도 넘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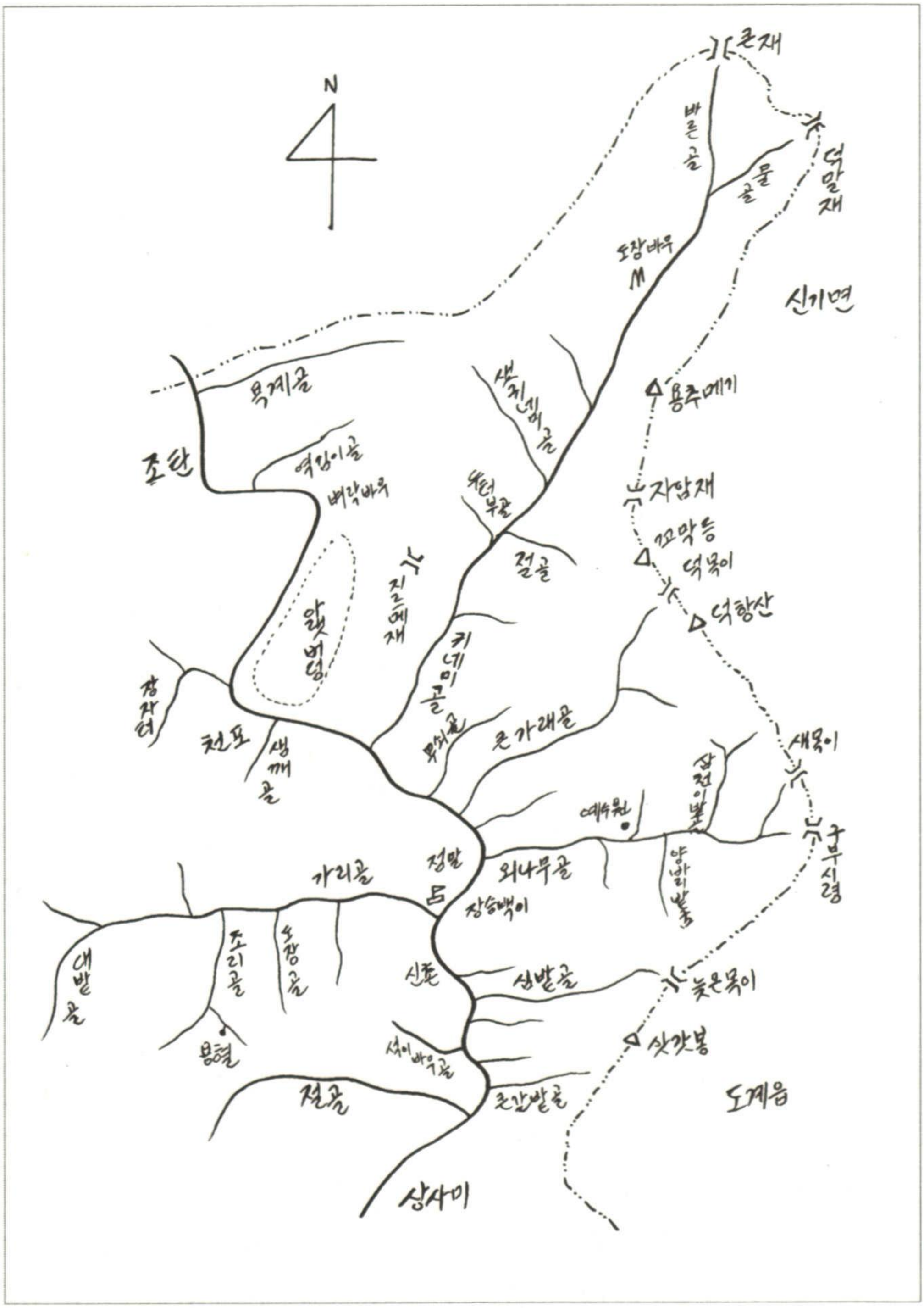
● 신선바우

벼락고디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바위 위에 신선이 장기 두던 흔적이 있다고 하며 가끔 바위 꼭대기에 있는 신선을 봤다는 전설이 전해 진다.

하 사 미 (下士美)



하사미 마을


N
큰재
바른골
물골
덕말재
도장바우
신기면
욕계골
샘치심이골
조탄
역장이골
벼락바위
용주메기
자암재
뚜턴부골
꼬막등
덕목이
절골
질가에재
덕항산
앞버덩
키네미골
장작터
천포
생깨골
온가래골
새목이
삼전이발골
예수원
구부시령
양달이발골
외나무골
장승백이
가리골
정말
대발골
조리골
도장골
신춘
성발골
늦은목이
용현
삿갓봉
서이바우골
절골
온갈발골
도계읍
상사미

하 사 미 (下士美)

하사미 마을의 유래는 상사미와 같으나 혹은 이르기를 천포(泉浦)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 나오기에 새미(泉)라고 부르다가 한자로 표기하면서 사미(士美)로 쓰고 부르게 되었다 고도 한다.

어쨋거나 하사미는 옛날 상사미와 합쳐 사미리(士美里)라 고 부르던 곳으로 단군기원 4175년(1842년) 현종 8년에 상사미리(上士美里)와 하사미리(下士美里)로 나누어 졌다.

구한말에는 천포(泉浦)와 가리골(可里洞)이 삼척시 하장면 관할의 32개리의 하나로 각각 독립된 마을이었는데 일제 침략 이후에 하사미에 통합이 되었다.

천포(泉浦), 무쇠골(武士洞), 점촌(店村), 송촌(松村), 새밭(新田), 상촌(上村), 가리골(可里谷), 귀내미골(牛耳谷)의 8개 자연부락이 합쳐진 마을로 단군기원4327년(서기1994년) 12월26일 삼척시 하장면에서 태백시로 편입되면서 처음에는 행정동인 사조동(士助洞)에 속하였다가 단군기원4331년(서기1998년) 9월 1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수동(三水洞)에 속해 있는 법정동(法定洞)이다.

조선조 광해군 때 김열운(金烈雲), 밀양박씨(密陽朴氏)가 이주했고 그 뒤에 정(鄭), 최(崔), 심(沈)씨 등이 이주하여 왔다.

호구수(戶口數)는 단군기원4249년(서기1916년)에 85호 464명, 단군기원4295년(서기1962년)에 88호 491명, 단군기원4315년(서기1982년)에 72호 447명, 광동호 수몰지 이주민이 귀네미골에 정착하면서 세대수가 37호나 늘어났으며 태백시로 편입된 뒤인 단군기원4329년(서기1996년)에는 106호 423명

인데 그 가운데 외국인 1세대 6명이 포함되어 있고 단군기원 4339년(서기2006년)에는 97호 272명으로 줄어 들었다.

마을의 동쪽은 삼척시 도계읍과 신기면에 서쪽은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에, 남쪽은 상사미에 북쪽은 조탄과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와 접해 있으며 동서 6km, 남북4km이다.

마을 동북쪽에 덕항산(德項山)이 솟아 있고 서쪽에는 용연리와 경계에 삼봉산(蔘峯山)이 솟아 있고 남쪽에는 상사미와 경계에 면산(免山)이 높이 솟아 있으며 마을 동쪽에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의 원줄기가 남북으로 길게 막아서 있다.

상사미에서 흘러오는 죽현천(竹峴川)의 물과 가리골에서 흘러오는 하천의 물이 하사미 분교장 앞에서 합류하여 조탄으로 흘러가고 2차선으로 포장된 35번 국도가 상사미에서 마을을 남북으로 관통하며 조탄으로 이어지는데 황지까지 19km이고 하장면 소재지까지 10km가된다.

가리골과 외나무골 무쇠골에 비포장 도로가 있고 귀네미골에는 2차선 포장도로가 있다.

예전에는 외나무골의 구부시령(九夫侍嶺)을 넘어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로 넘어가는 고갯길과 귀네미골에서 큰 재를 넘어 고무릉리로 가는 고갯길이 큰길이 었으나 지금은 인적이 드물다.

농산물은 고냉지채소가 주종을 이루고 그 밖에 약초와 옥수수, 콩 등을 심는데 특히 귀네미골의 고냉지채소 재배단지는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다.

귀네미골은 옛부터 정감록(鄭鑑錄)의 피난지(避亂地)로 알려진 곳인데 한 때는 이북(以北) 사람들이 정감록을 믿고 이곳으로 집단 이주하여 마을을 형성해서 살다가 해방전후(解放前後)하여 다른 곳으로 떠나가 빈 터로 남아 있었는데 단군기원

4321년(서기1988년)부터 2년여에 걸쳐 광동댐 수물지인 숙암리, 광동리, 조탄리 사람들 37가구가 집단 이주하여 현재 새로운 마을로 정착한 곳이다.

귀네미골이 이상향(理想鄕)으로 인식되게 한 것은 정감록(鄭鑑錄)의 경주이선생가장결(慶州李先生家藏訣)에 보면

「내가 지도를 얻은 지 8년째 되는 병진년에 금강산으로 부터 산천기운을 바라보고 그 근원을 찾으러 삼척부에 이르렀다. 삼척부에서 신술 방향을 향해 오십천에 들어서서 귀네미재에서 태백산을 바라보니 100여리 어간에 숲이 우거지고 사람이 살지 않으니 곧 대소궁기이다. 약한 것으로 능히 강한 것을 이기고 허한 가운데 실함이 있으니 산의 원맥이 활처럼 생겼으니 그 산세가 목성과 같아 이씨들이 가히 살만한 곳이라 하겠다.」(吾得見地道八年丙辰自金剛望氣尋源至三陟府向辛戌方五十川牛耳間望太白山百餘里許有深林無人之處卽大小弓基弱能勝强虛中有實元脈其形如彎弓其體如木星李氏可居之處云)

라고 한 대목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우이간(牛耳間)이 바로 귀네미골의 귀네미재를 말하는 것으로 이상향(理想鄕) 곧 피난처(避亂處)로 가는 입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또한 부근에 우목골(牛目谷)이 있어서 우이(牛耳)와 함께 소의 눈이며 소의 귀가 되니 도참적(圖讖的)으로 맞아 떨어지는 지명(地名)이라는 해석이다.

가리골 어귀에는 단군기원4285년(서기1952년) 4월 1일 개교한 미동초등학교 하사미분교장이 있고 단군기원4298년(서기1965년) 미국인 대천덕(戴天德) 신부가 건립한 예수원이 외나무골 안쪽에 있다.

사조동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단군기원4311년(서기1978년)의 일이다.

● 점말

하사미 분교장이 있는 부근을 점말이라 한다. 옛날 이곳이 산세가 오목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가까이 있어 점터를 설치하고 쇠를 녹이던 곳이었기에 이 일대를 점말이라 하였고 한자로 쓰면서 점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 점촌(店村) → 점말

● 점터

하사미 분교 북쪽 산 밑에 있었다. 지금은 집들이 있어 그 자리가 확실치는 않으나 그 일대 땅 밑에서 쇳똥이 발견되고 있으며 예전에 쇳돌을 녹이던 용광로를 설치하였던 곳이다.

● 점터거리

점터가 있는 부근을 점터거리라 하였다.

● 탑거리

하사미 분교 앞 도로 가를 탑거리라 한다. 옛날 어느 때 인지는 몰라도 이 곳에 돌탑이 있었다 고 하며 그 돌탑으로 인해 이 부근을 탑거리라 한다. 학교터나 점터 부근에 절이 있었지 않았나 추측이 되고, 또 가리골 안쪽에 절터가 있는데 그곳의 절에서 안내 표시로 가리골 어귀인 이 곳에 돌탑을 세워 절로 가는 이정표로 삼았지 않았나 한다.

● 하사미분교장(下士美分教場)

점말에 있는 초등학교 이다. 흔히 분교장을 분교라고 부르는데 하사미에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단군기원4285년(서기1952년) 4월 1일 개교할 당시에는 하장국민학교 하사미 분교였으나 태백시로 편입되고 나서는 미동초등학교 하사미 분교가 되었다. 현재 3학급에 14명의 학생이 다닌다.

● 가리골

하사미에서 가장 깊고 긴 골짜기로 점말의 하사미 분교 뒷쪽에 있다. 예로부터 가리골 안쪽은 토질이 좋아 화전민(火田民)들의 본 고장으로 많은 화전민들이 살았으나 지금은 몇 집 살지 않는다.

화전민들이 많이 살 때 가리골 안쪽에는 골짜기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 가리골 어귀에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길가의 밭마다 집집마다 마당에는 곡식가리가 즐비하게 서 있어서 가리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곡식가리 장작가리들이 집집마다 밭머리마다 즐비하게 서 있어야 그 해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하고 겨울을 나는데 모자람이 없으니 노적가리가 가리가리 쌓여 있는 가리골은 잘사는 동네였던 것이다.

가리골을 한자로 가리골(可里谷) 또는 갈리곡(葛里谷)으로 쓰기도 한다.

● 덕새

가리골로 들어가면서 왼쪽 산등성이에 있다. 산등성이가 경사가 완만하여 덕시를 이루기에 덕새라고 한다.

● 고총메기

하사미 분교 뒷산에 있다. 이 곳에는 년대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무덤들이 많아 고총(古塚)메기라 한다.

● 봉태미골

가리골로 들어 가다가 왼쪽 첫번째 골짜기이다.

골짜기의 경사가 완만하고 전반적으로 우묵하게 생겨서 거름이나 농작물을 담을 때 쓰는 봉태미라는 물건 처럼 생겼기에 붙은 이름이다.

● 치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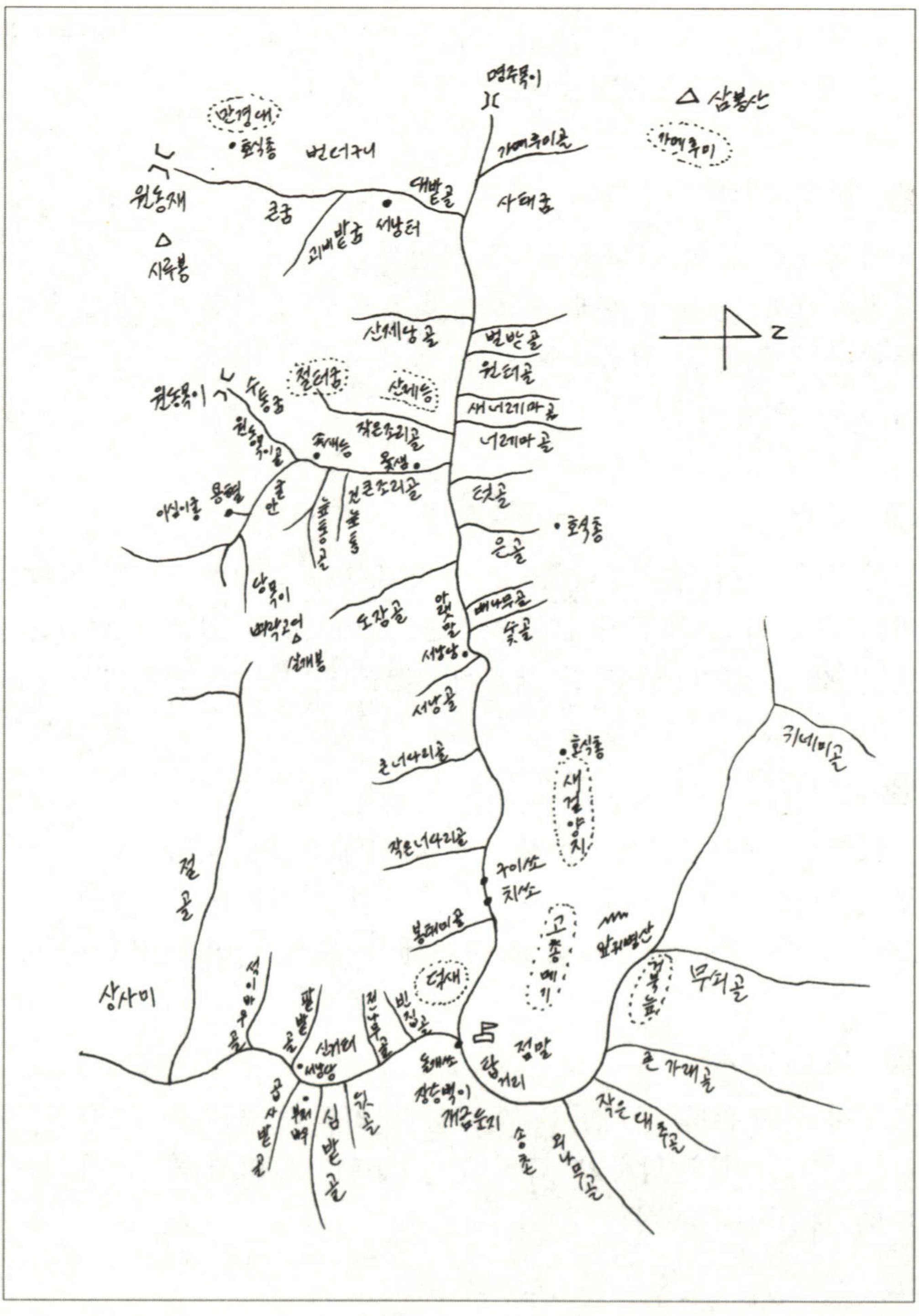
봉태미골 어귀를 지나 조금 올라가다가 하천에 있다. 바위절벽이 형성되고 하천에서 흘러오는 물이 고여 있는 소(沼)인데 생긴 것이 치(키:箕) 처럼 생겨서 치쏘이다. 치는 키의 방언이다.

● 구이쏘

치쏘를 지나 좀 더 올라가면 하천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구이쏘라고 한다. 바위가 소 구유 처럼 생겼는데 그 곳에 물이 고여 있다. 구유를 구이라고 하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 새걸양지

구이쏘 오른쪽 산비탈을 새걸양지라 한다. 남쪽으로 향한 양지 바른 곳인데 경사가 급하다. 그곳에 새(억새)가 많이 자라므로 새걸양지라 한다.


만경대
•호석총
번더거니
원숭재
△시루봉
큰굴
대발골
•세방터
괴메밭골
명주목이
가메우이골
△삼봉산
까메우이
사태굴
산제당골
철터골
산제등
원숭목이
수통골
원숭목이골
•숫제등
작은조리골
•웃샘
큰조리골
•호석총
은골
도장골
알뜻골
•세방
서방골
큰너덜이골
작은너덜이골
구이소
치소
봉제비골
•호석총
새길우치
고총떼기
앞뒤뫼산
무쇠골
귀네미골
절골
상사미
•웃샘
팔뱀골
빈집골
점말
탑거리
•호석총
장승백이
개숨둔지
큰가래골
작은대추골
외나무골
N

● 새걸양지 꼭대기

새걸양지 뒷쪽 산마루를 말한다. 새걸양지 꼭대기 넘어는 천포가 된다.

● 호식총

새걸양지 꼭대기에 있다. 사람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곳인데 돌무덤이 있고 시루가 엎어져 있었으나 최근 시루는 깨어져 사라졌다.

● 작은 너다리골

구이쏘를 지나 왼쪽에 있는 가파른 골짜기로 물이 흐르지 않는다. 골짜기가 너레 반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볼품없이 긴 너다리 처럼 생긴 골짜기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 너다리골

작은 너다리골 어귀를 지나 좀 더 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역시 물이 흐르지 않는다. 작은 너다리골 보다 크다고 큰 너다리골이다.

● 서낭당

큰 너다리골 어귀를 지나 한참 가면 길 왼쪽에 서낭당이 나온다. 가리골 사람들이 정월에 날받이하여 제사하고 5월 단오에 제사한다.

● 서낭골

서낭당 아랫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낭당 뒷쪽에 있다고 서낭골이다.

● 숯골

서낭당을 지나 올라가서 오른쪽 하천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안에서 숯을 구웠기에 숯골이라 한다. 숯골에는 물이 흘러 나온다.

● 배나무골

숯골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야생 돌배나무가 큰 것이 있어서 배나무골이라 한다. 골짜기에 물이 흘러나온다.

● 아랫말

배나무골과 숯골 어귀의 마을을 아랫말이라 한다. 가리골에서 아랫쪽에 해당되기에 아랫말이다.

● 도장골

아랫말을 지나 올라 가다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가 너레 바위로 되어 있어 가파르고 험한데 맑은 물이 흘러 나온다. 골짜기 안쪽을 올라가면 제법 펀펀한데 맑은 샘이 있어 옛날부터 산치성꾼들이 많이 찾아 온다. 골짜기 안에 도를 닦은 사람이 살아서 도장골인데 도장골을 들어가 고개를 넘으면 상사미의 절골로 갈 수 있다.

● 살개봉

도장골 끝 왼쪽 산등에 있다. 산봉우리가 바위로 되어 둘로 갈라진 것이 방아살개(방아다리)처럼 생겨서 살개봉인데 산삼이 많이 자란다고 한다. 살개봉에는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의 무덤인 호식총이 있고 시루가 있다고 한다.

● 은골

도장골 어귀를 지나 올라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안쪽에서 은(銀)을 캔 적이 있어서 은골이라 한다.

● 호식총

은골 꼭대기 산마루에 호식총(虎食塚)이 있다. 옛날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의 무덤인데 작은 돌무덤과 그 돌무덤 위에 시루가 엎어져 있었고 가락이 꽂혀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다.

● 텃골

은골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부터 사람이 산 흔적이 있는 집터가 발견되어 텃골이라 한다.

● 물방아던티

조리골 어귀의 하천가에 있다. 예전에 그 곳에 물통방아를 설치하였기에 물방아던티라 고 한다. 던티는 언덕과 같은 말이다. 그 곳은 너래바위가 형성되어 폭포를 이루는 곳이다.

● 조리골

물방아 던티 왼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쌀을 일때 쓰는 조리형국(笊籬形局)의 명당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고 또 골짜기 안쪽에 조리대(笊籬竹)가 많이 자생하기에 조리골이라 한다고 한다.

조리골을 큰 조리골이라 하는데 맑은 물이 흘러 나온다.

● 옻샘

조리골로 들어가서 200여m 지점의 하천가에 있다. 그 곳의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이 있는데 물맛이 특이하다.

예로 부터 가리골 사람들이 옻이 올랐을 때 이곳 으로 와서 옻샘의 물로 씻고 그 물을 마시면 옻 오른 것이 낳았다고 한다. 그래서 옻샘이라 한다. 가리골은 석회암 지대라서 복류수(伏流水)가 많은데 옻물도 복류수의 하나로 골짜기 윗쪽에 물이 없는 건천(乾川)의 하천이 있고 이곳 옻샘에서 비로소 물이 솟아나오는 지형으로 되어 있다.

● 늪통골

조리골로 들어 가다가 오른쪽에 있다. 골짜기 어귀와 안쪽 산등에 습지가 있어서 늪통이라 하는데 그리로 가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 늪통

늪통골과 도장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산마루 부근이 펀펀한데 곳곳에 습지가 있어서 늪통이라 한다.

● 수통굼

원동목이골로 들어가 오른쪽 산등으로 올라가는 굼이다.

수통굼 끝은 장병이라고 하는 석벽(石壁)인데 그곳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에 수통굼이라 한다.

● 장병

수통굼 끝에 있는 바위 절벽이다. 바위 벼랑이 길게 형성되어 있다고 장병이라 한다.

● 호랑이 구녕

장병 아래에 자연 석굴이 있는데 호랑이 구녕이라 한다. 옛날 호랑이가 살면서 새끼를 친 곳이라 한다.

● 굴안

원동목이골과 갈라져 왼쪽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용혈과 이심이굴, 새굴 등이 있기에 굴이 있는 골 안이라는 뜻으로 굴안이라 한다. 굴안으로 똑바로 올라가면 면산으로 갈 수 있다.

● 용혈(龍穴)

굴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다. 용혈에서 쏟아지는 물이 하천의 물을 거의 차지하기에 물길을 따라가면 절벽이 나오고 절벽을 올라서면 작은 골짜기가 나오고 그 골짜기 끝에 용혈이 있다. 용혈이 있는 곳은 수십m의 절벽이 솟아있고, 절벽 아래 부분 약 3m 높이의 절벽에 길이 약 1m 폭 약 40cm 정

도 되는 길쭉한 형태의 굴(구멍)이 있고 이 굴에서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맑은 물이 쏟아진다. 굴의 안쪽을 살펴보면 바위 면에 주름이 많이 형성되어 오랜 세월 바위가 물에 녹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주 옛날 이 용혈 윗쪽에 있는 이심이굴에서 도를 닦던 이심이(이무기)가 용이 되어 이 용혈 쪽으로 구멍을 뚫어 승천 하면서 생긴 굴이라 고 용혈이라 한다. 용혈은 보기에 따라 여인의 소문(小門) 처럼 생겼는데 하사미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던 금역의 장소였다.

용혈 앞에 산당을 짓고 매년 산메기를 하던 곳으로 예전에는 주변에 아름드리 나무가 꽉 차 있어서 대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음습한 기운과 무언가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는 곳이 었다. 용혈에서 떨어지는 물이 약 3m 정도 되는 폭포를 이루기에 용혈폭포라고도 한다.

용혈 폭포의 물도 옻 오른 사람에게 효험이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옻물이라고도 한다.

● 용혈폭포 → 용혈

● 옻물 → 용혈

● 산령각터

용혈 바로 앞에 있다. 그 곳에는 약 2~3평 정도의 터가 있는데 산령각이 있었다. 습기가 많은 곳이다.

오랜 세월 버티던 건물이 썩어 내려앉았다. 지금은 누군가가 조립식 포장 건물을 지어 놓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용혈

주변에는 몇 아름 되는 나무가 많아 한낮에도 하늘을 볼 수 없이 어두침침하여 음산한 기운이 감돌던 곳이었다. 산령각은 면산 산령각이었다.

● 이심이굴

용혈에서 윗쪽으로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50여m 올라가면 수직 동굴이 나오는데 이심이굴이라 한다.

수직으로 형성된 석회동굴인데 돌을 던지면 물소리가 난다. 굴속에는 귀가 달리고 사람 넓적다리 만큼이나 굵은 이심이(이무기)가 산다고 하여 이심이굴인데 위험하고 무서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동굴이다.

처음에는 7~8m정도 수직으로 내려가면 수평굴이 되는데 아직 내부를 확실히 탐사해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이 이심이굴의 바닥이 바로 용혈로 이어지고 이심이굴 바닥에 있는 물이 용혈로 빠져 나오는 것이라 고 본다.

● 당목이 거랑

용혈을 지나 좀 더 올라가면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이다.

상사미의 절골로 넘어 가는 당목이로 가는 골짜기라고 당목이 거랑이라 한다. 거랑은 작은 하천을 이르는 말이다.

● 당목이

상사미의 절골로 넘어 가는 고개이다. 고개 마루에 예전에 국시당이 있었기에 당목이라 한다. 당목이를 상사미 사람들을 벼락고디라 한다.

● 새구녕

굴안 골짜기를 곧 바로 계속 올라가면 오른쪽에 수직 동굴이 하나 있는데 새구녕이라 한다. 새라는 말은 수직으로 된 사다리에서 온 말인데 새구녕은 수직굴이라는 뜻이다.

● 작은조리골

큰조리골 어귀를 지나 좀 더 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는 큰조리골과 같은데 작다고 작은조리골인데 골짜기에서 맑은 물이 흘러 나온다.

● 절터

작은조리골 안쪽에 있다. 옛날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절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매우 가파른 골짜기 안쪽을 올라서면 움푹하고 펀펀한 땅에 있다. 별다른 흔적은 없고 약간의 축대와 집터로 추정되는 편편한 땅이 약간 있을 뿐이어서 작은 암자가 있었지 않았나 한다.

● 절터굼

절터가 있는 굼이다.

● 뼝때

절터 아랫쪽에 있는 벼랑이다.

● 고무구녕

뼝때에 있는 바위굴로 옛날 곰이 살던 굴이라 고 한다.

● 너레마골

작은조리골 어귀를 지나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너레바위(너럭바위)가 많기에 너레바우골이 변해 너레마골이라 한다. 너레마골을 너레밭골이라 고도 한다.

● 새너레마골

너레마골과 원터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인데 사이에 있다고 새너레마골이라 한다.

● 원터골

새너레마골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있는 골짜기이다.

가리골을 처음 개척한 사람이 살던 터가 있는 골이라고 터골이라 했는데, 가리골 아랫쪽 은골 위에 터골이 있으므로 그 텃골과 구분하기 위해 원래의 원조의 터골이라고 원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서낭당

원터골 어귀에 서낭당이 있다. 정초에 날받이 하여 제사하고 5월 단오에 제사 한다

● 산제등

원터골 맞은편 도랑 건너 남쪽 산등에 있다. 원터골 근방의 사람들이 산제를 지내던 산등이다. 산제등을 산제딩이라 고도 한다.

● 산제당골

원터골을 지나 하천 건너 왼쪽에 있다. 산제등으로 가는 골짜기라고 산제당골이라 한다. 골짜기 어귀가 험한 너레로 되어 있어 가파르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

● 산제딩이 → 산제등

● 아래벌받골

원터골 어귀를 지나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가파른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벼랑이 많아 벌통을 많이 놓아 두었는데 봄이면 토종벌을 많이 받으므로 벌 받는 곳이란 뜻의 벌받골이 되었다.

● 웃벌받골

아래벌받골 어귀를 지나 다음에 있는 골짜기이다. 역시 아래벌받골과 같이 토종벌을 많이 받은 골짜기로 윗쪽에 있다고 웃벌받골이다.

● 곰구녕

아랫벌받골과 윗벌받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바위 벼랑이 있고 작은 구멍(구녕)이 있는데 예전에 곰이 살았다고 한다. 곰구녕은 모두 3개인데 하나는 크고 둘은 작다.

● 점터

웃벌받골 어귀에 있다. 예전에 쇠를 녹이는 점부리 하던 터가

있는데 점터라 한다. 점부리는 용광로를 설치하여 쇳돌을 녹이는 일을 말한다. 정씨들이 이곳에서 살 때 만든 것이라 한다.

● 가매후미골

가리골 안쪽에서 대밭골과 갈라져 명주목이로 가는 골짜기를 가매후미골이라 한다. 골짜기가 쑥 들어가 바깥쪽은 좁고 안은 넓어 가마솥 처럼 생겨 후미지게 쑥 들어간 골짜기라고 가매후미골이라 한다 고도 하는데, 실지는 삼봉산에 있는 가매후미로 가는 골짜기라는 말이다.

● 사태굼

가매후미골로 들어가서 오른쪽 산비탈에 있다. 옛날 장마 때 경사진 산비탈에 사태가 나면서 골짜기가 형성됐는데 사태굼이라 한다.

사태굼 아래에는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사태에 무너지고 말았다. 집터 옆에 작은 석굴(石窟)이 있고 거기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부근에서 식수로 이용한다.

● 굴등

사태굼 어귀를 지나 오른쪽 산등에 있다. 그곳에는 작은 석회동굴이 있어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나오는 석회 동굴 윗쪽에 있는 산등이라고 굴등이라 한다.

● 할미바우

굴등을 지나 명주목이로 가는 산등에 있다. 바위가 솟아 있

는 것이 할머니 처럼 생겨서 할미바우라 한다.

● 영감바우

할미바우 윗쪽에 있다. 바위가 불쑥 솟아 있는데 할아버지(영감) 처럼 생겨서 영감바우라 한다.

영감바우와 할미바우는 부부 사이인데 아래 위에서 다정하게 솟아 있다. 옛날 늙은 부부가 명지목이를 넘다가 고개가 너무 가파라 힘이 들므로 하늘을 욕하며, 무슨 놈의 조화로 이 따위로 고갯길을 만들었느냐며 투덜대다가 벼락이 쳐서 돌이 됐다고 한다.

영감 바우는 탕건 처럼 생겼고 바위 밑이 우묵하여 비를 피할 수 있다.

● 명주목이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매우 가파른 고갯길인데 가리골에서 용연리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옛날 고갯마루에 국시댕이라는 성황당이 있었는데 당나무에 명주 천을 걸어 두기에 명주목이라 부르게 되었다.

● 가매후미

가매후미골로 들어가서 오른쪽 산등으로 올라가면 삼봉산이 된다. 삼봉산은 산 위쪽이 평평하며 용연리, 숙암리, 조탄리, 하사미리 청춘남녀들이 모여 놀기도 하고 소를 먹이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곳은 석회암 지대로 돌리네(Doline)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그 돌리네를 가매후미라 한다.

돌리네는 석회암 지대에 땅 밑에 석회동굴이 형성되면서 지반이 쑥 꺼져 움푹하게 생긴 것을 말한다.

흡사 가마솥 처럼 땅이 꺼져 내려간 곳인데 큰 것은 지름이 50여m되고 작은 것들도 몇10m는 된다. 큰 돌리네가 3개 있고 그 외에 작은 것이 몇 개 더 있다. 이웃 마을인 용연리에 석회동굴이 있고 조탄리 하사미리에도 크고 작은 석회동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돌리네 곧 가매후미 밑에는 거대한 석회동굴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가마솥 처럼 꺼져 내려간 땅이라고 가마솥의 방언인 가매후미라고 하는 것이다. 후미는 쑥 들어 가거나 쑥 꺼진 곳을 이르는 말이다.

● 웃가매후미

윗쪽에 있는 가매후미로 삼봉산 정산 부근이다.

● 삼봉산(蔘峯山)

가매후미가 있는 산을 삼봉산이라 한다. 이 산 꼭대기에서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와 숙암리, 태백시의 하사미와 조탄의 경계가 나누어진다. 옛날 조선시대에 삼공(蔘貢)이 행해 졌을 때 이 산에서 산삼을 많이 캤다고 한다. 이 산의 다른 이름으로 심봉이라고 하는데, 심은 산삼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도 숙암리의 지구령이 사람들은 심봉이라고 부르고 있고 삼봉산 아래 골짜기를 심봉골이라 하는데 아직도 삼봉산 음달에는 심(산삼)이 있다고 한다.

삼봉산은 원래 삼봉이었는데 일제시대 지도를 제작하면서

삼봉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산의 체계를 무시하는 이름이다. 삼봉 일 때 심봉도 가능한 것이다.

● 심봉 → 삼봉산

● 삼봉 → 삼봉산

● 아랫가매후미

아랫쪽에 있는 가매후미로 삼봉산 주봉에서 조탄과 하사미쪽으로 내려와 있다.

● 국시댕이

명주목이 꼭대기에 있다. 당집은 없고 돌무더기와 당목이 있는데 과거에 상인들이 추매하러 와서는 이 고갯길을 넘다가 국시댕이에 절하고 당나무에 명주 천을 걸어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성황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행위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추매한 삼 한오리를 빼서 걸어 두기도 하는데 당목은 커다란 신배나무이다. 추매(秋買)는 상인들이 가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질 좋은 대마(麻)를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예로 부터 하사미 용연리 등지에는 대마 재배가 성했고 또한 질이 좋았다.

● 대밭골

가매후미골과 갈라져 왼쪽으로 난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산죽(山竹)이 많이 자라기에 대밭골이라 한다.

● 서낭터

대밭골을 들어가서 길과 하천 사이의 오른쪽에 있다. 그곳에는 몇 아름되는 엄나무 20여 그루가 당목으로 서 있었는데 30여년 전 가리박 하는 사람들이 이 나무를 베어 목기(木器)를 만들었다. 한 2년간 이 나무들을 베어 가리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동티가 나서 가리박 하는 사람이 죽었다 고 한다.

새마을 운동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 정월에 날 받아 제사하고 5월 단오에 제사하던 곳으로 지금은 터만 남아 있다.

● 안동밭굼

서낭터 못가서 하천 건너 번더구니 아래쪽 산등이다. 그곳에 안동 사람들이 묘를 써서 안동밭굼이라 한다. 매년 안동에서 시제를 지내러 오다가 최근에는 오지 않는다고 한다.

● 번더구니

서낭터 오른쪽에 있는 산비탈이다. 산비탈 면이 펀펀하게 생겨서 번더구이 또는 번더구니라 한다.

● 괴비밭굼

대밭골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괴비(고비)가 많이 자라기에 봄철에 괴비 꺾으로 가면 고비가 밭을 이루기에 괴비밭굼이라 한다.

● 큰굼

괴비밭굼 어귀를 지나 곧바로 올라간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크다고 큰 굼이라 한다.

● 새물내기

큰굼 안쪽에 샘이 있는데 맑은 물이 나오기에 새물내기라 한다.

● 원골재

원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큰굼 끝에 있다. 원골재는 원동쪽에서는 태재라고 한다.

● 원동재

원골재를 원동재라고도 한다.

● 태재 → 원동재

● 시루봉

원동재 왼쪽에 솟아 있는 산이다. 옛날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의 무덤인 호식총이 이 산에 있었는데, 호식총은 돌무덤 위에 시루를 엎어 놓기에 그 시루를 따서 시루봉이라 한다.

● 만경대(萬頃臺)

번더구이 오른쪽 산등에 있다. 그곳은 용연리와 경계인 산등으로 제법 넓은 곳인데 전망이 좋아 아주 멀리까지 보이므로 만경대라고 한다.

● 호식총(虎食塚)

만경대 아래 산중턱에 있다. 범에 잡아먹힌 사람의 무덤인데 지금은 깨어진 시루 쪼가리가 남아있다.

● 돌개쏘

가리골물과 죽현천의 물이 합수하는 지점으로 하사미분교 앞에 있는 다리 앞쪽이다. 그곳에 깊은 소(沼)가 있고 물이 빙빙 돌면서 지하로 빠져 내려간다. 그래서 물이 빙빙 도는 것이 돌개가 도는 것과 같다하여 돌개쏘라고 한다. 돌개쏘의 물이 환선굴로 빠져 내려 간다고 한다.

● 빈집골

가리골 어귀에서 상사미 방향 남쪽으로 올라가며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 빈집이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기에 빈집골이 되었다.

● 전나무골

빈집골 어귀를 지나 남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전나무가 많이 자라기에 전나무골이 되었다.

● 팥밭골

전나무골 어귀를 지나 남쪽으로 좀 더 올라가면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큰 팥밭이 있었기에 팥밭골이라 한다.

● 신거터

전나무골과 팥밭골 사이의 도로변 산등 쪽이다.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으나 어느 때 누군가가 새로이 집을 짓고 살게 되자 신거(新居)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 신전촌(新田村)

신거터 부근을 신전촌(新田村) 또는 신전(新田)이라 했는데 하사미의 8개 자연부락 가운데 하나였다. 새로이 밭을 일구고 새로이 마을이 형성 했기에 신전(新田)이라 하였다.

● 서낭당

팥밭골 어귀에서 길 건너 하천쪽 하천부지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태풍 매미 때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지금은 흔적이 없다.

● 서낭딩이

서낭당이 있는 부근을 이르는 말이다.

● 큰늪

전나무골과 신거터 앞에 너른 들이 있는데 그곳 한 가운데에 커다란 늪이 있어서 큰늪이라고 하였다.

하천물이 그곳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물고기도 많았는데 어느 해 큰 장마가 져서 그 늪은 메워지고 그 위에 밭을 개간하여 지금 처럼 넓은 밭이 되었다.

● 재피골

팥밭골 어귀를 지나 남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가 양지 발라 따뜻한데 그곳에 재피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재피나무골이라 하였다.

재피나무 껍질을 벗겨 짓찧어서 물에 풀면 물고기가 죽는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데 많이들 이용하였다.

● 석이바우골

재피골 어귀에서 상사미 절골쪽으로 올라오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금은 개간을 많이 하여 골짜기 다운 모습은 없으나 예전에는 제법 숲이 우거진 골짜기였다. 골짜기 안쪽에 석이바우라는 바위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석이바우

석이바우골 안쪽 7부 능선 쯤에 있는 커다란 바위이다. 바위에 석이버섯이 많이 붙어 자생하기에 석이바우라 한다. 석이는 고급 음식에 고명으로 쓰는 귀한 버섯인데, 여름에 번개 칠 때 번개불을 받아먹고 자란다는 버섯으로 돌에 붙어 자라기에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더디다.

● 서낭뒤

석이바우골 어귀와 재피골 어귀에 있는 들판을 서낭뒤라 한다. 팥밭골 어귀에 있던 서낭당 뒷쪽에 있기 때문에 서낭뒤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 물방아골

작은갈밭골과 곱사밭골 사이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예전에 이 골짜기 어귀의 하천가에 물방아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물방아의 물은 큰 하천 물을 막아서 사용했다.

● 곱사밭골

물방아골과 심밭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어귀에 곱사등이 사람이 살아서 곱사밭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곱사밭골 밭고랑에는 장마 때 물이 나오는 바위 구멍이 있다.

● 부처바우

곱사밭골 어귀에서 아랫쪽 밭머리에 있다. 이곳에는 거대한 집채만 한 바위가 몇 개 있는데 어느 때 그곳 바위 아래 땅에서 금부처가 발견되어 그 부처를 바위 위에 모셔 놓았는데 수십년 전 고물장수가 가져갔다고 한다. 부처는 없어졌지만 그 바위를 부처바위라고 부른다.

원래 부처바우는 현재의 곳에서 산 쪽으로 50여m 올라간 엄나무가 있는 산제당 부근에 있었으나 어느 해 심한 장마 뒤에 새고 나서 보니 바위가 지금의 장소로 밀려 내려 왔다고 한다.

● 산제당

부처바우에서 윗쪽 산 중턱에 있다. 그곳에는 3아름쯤 되는 엄나무가 당목으로 있고 바위가 덩그렇게 솟아있다. 인근의 주민들이 산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 상촌(上村)

심밭골 어귀 일대를 상촌 또는 웃말이라고 부른다. 하사미 마을의 중심부라고 할 학교 부근에서 볼 때 윗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웃말 또는 상촌이라고 부른다.

● 웃말 → 상촌

● 심밭골

부처바우를 지나 북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동쪽으로 뻗어 백두대간 까지 연결된다. 옛날 골짜기 안에서 심(산삼)이 많이 발견되었고 또 나라에 삼공(蔘貢)을 바치기 위해 심(산삼)을 많이 심었던 골짜기였다. 그래서 심밭(산삼밭)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퇴끼바우고디

퇴끼바우가 있는 산등을 이르는 말이다.

● 퇴끼바우

삼밭골로 들어가다가 왼쪽 산등에 있다. 바위가 토끼의 귀처럼 쑥 튀어 나온 것이 토끼 처럼 생겼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퇴끼는 토끼의 방언이다.

● 골양지

심밭골로 들어가서 왼쪽 산비탈에 있다. 그곳은 남향으로 삼밭골로 들어가서 양지라고 골양지라 한다.

● 덕시

심밭골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첫번째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의 산등이 편편하여 덕시를 이루기에 그냥 덕시라고 부르는 것이다.

● 산제당골

심밭골로 들어가며 골양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산 치성을 드리는 산제당이 있기에 산제당골이라 한다.

● 차돌배기

산제당골 어귀를 지나 왼쪽 산비탈에 있는데 그곳에 차돌이 땅이 박혀 있기에 차돌배기라 한다.

옛날 금을 캐던 금꾼들이 이 차돌에서 금 시금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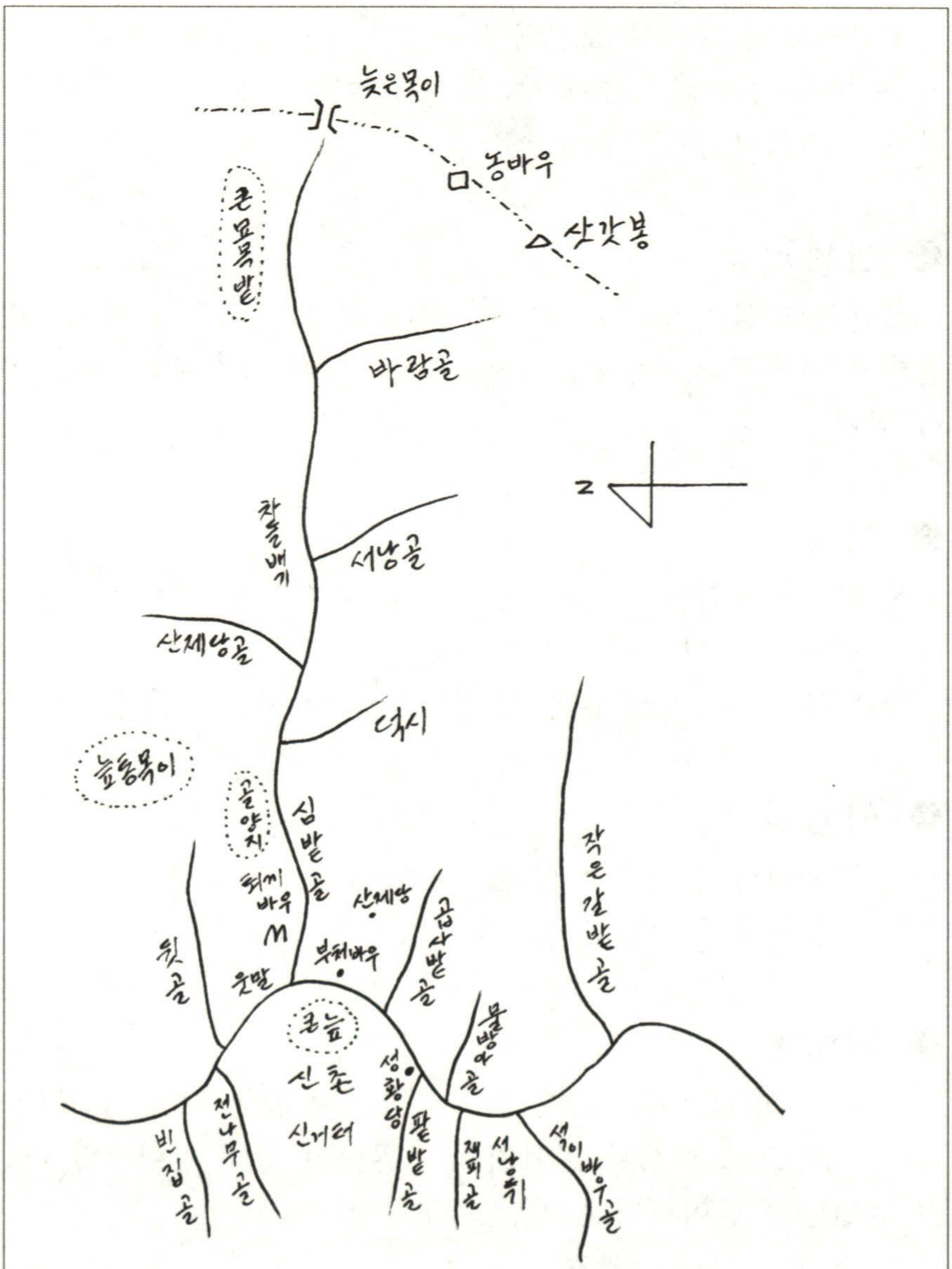
● 서낭골

덕시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 서낭당이 있었기에 서낭골이라 한다.

● 바람골

서낭골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북향으로 형성된 골짜기인데 골짜기 안에 들어서면 바람이 유별나게 불어대기에 바람골이라 한다.


늦은목이
동바우
산갓봉
큰묘목밭
바람골
N
찰수배기
서낭골
산제낭골
대시
늦등목이
골양지
심밭골
뒤께바우
산제당
부처바우
웃말
윗골
곱산밭골
굴늪
신촌
신게터
성황당
팥밭골
물방아골
작은갈밭골
재피골
선낭끼
색이바우골
전나무골
빈집골

● 큰묘목밭

차돌배기를 지나 왼쪽 산비탈에 있다. 예전에 그 곳에서 조림용 묘목밭을 경작하였기에 큰묘목밭이라고 한다.

● 늦은목이

심밭골로 들어가서 똑바로 올라가 마지막 산능선에 있는 고개이다. 삼척시 도계읍 한내리로 넘아가는 고개로 주변 산마루보다 낮기에 늦은목이라고 한다.

● 삿갓봉

늦은목이에서 산능선(백두대간)을 따라 남쪽 방향으로 바라보면 가장 높은 산봉우리이다.

아주 옛날 천지개벽 때 조수가 올라와 다 물에 잠기고 삿갓봉에는 삿갓 만큼만 남았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농바우

늦은목이와 삿갓봉 사이의 산능선에 있다.

커다란 바위가 흡사 농짝 처럼 생겨서 농바우라고 한다.

● 뒷골

심밭골 어귀를 지나 북쪽으로 내려오다가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어귀에 사는 집 뒷쪽에 있다고 뒷골이라 한다.

● 개금둔지

뒷골과 외나무골 사이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이다. 그곳에 개금나무가 많아서 개금둔지인데 둔지는 야트막한 언덕배기를 이르는 말이다.

● 장승백이

개금둔지 아랫쪽 밭이 있는 곳이다. 옛날 그곳에 장승이 서 있어서 장승백이라고 하였다.

● 늪통목이

개금둔지 뒷산으로 썩 올라가면 있다. 그곳 산등은 편편하여 습지가 많아 큰 늪이 있으므로 늪통목이라 한다.

외나무골에서 심밭골로 넘어가는 고개(목이)를 겸하기에 붙은 이름이다.

● 외나무골

예수원이 있는 골짜기이다. 원래는 오목골인데 외나무골이라 부른다. 외나무는 오동나무를 이르는 것으로 골짜기 어귀에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서 외나무골이다. 오목골의 오목(梧木)도 오동나무를 이르는 말이다.

● 오목골 → 외나무골

● 첫물양지

외나무골로 들어 가다가 왼쪽에 있다. 외나무골로 들어가서

첫번째 도랑을 건너서 있는 양지쪽이기에 첫물양지라고 한다.

● 새물래기

첫물양지를 지나 좀 더 들어가 오른쪽에 있다. 이곳에는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이 있어서 새물래기라 한다.

현재 외나무골 어귀에 사는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재삼밭굼

새물래기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굼이다. 옛날 골짜기 안에서 삼(麻)을 재배하던 밭이 있어서 재삼밭굼이라 한다.

● 예수원

재삼밭굼을 지나 좀 더 가서 왼쪽 산 밑에 있다. 대한성공회 예수원인데 단군기원4298년(서기1965년) 미국 사람 대천덕(戴天德) 신부(神父)가 건립하였다. 기독교인들의 성지화 되어 많은 교인들이 찾는다. 건축물은 돌집으로 산비탈면을 따라 올라가며 계단식으로 지어졌는데 아래에서 윗쪽까지 단층건물이면서도 외관에서 보면 몇 층으로 보이는 보기 드문 집이다.

● 삼천이밭골

예수원을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은 백두대간 산마루로 이어진다. 옛날 골짜기 안에 삼천이라는 사람이 개간을 하여 살았으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삼천이밭골이라 한다.

골짜기 끝은 백두대간인데 그곳에는 철 사다리와 철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서 환선굴로 내려갈 수 있다.

● 샘깨

삼천이 밭골로 들어가 정상 못 미쳐서 있는 샘 있는 곳을 이른다.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이 있어 예수원 쪽에서 샘물을 끌어다 먹는다. 샘이 있다고 샘깨라 한다.

● 텃골

삼천이밭골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예전에 집을 짓고 산 터가 있어서 텃골이라 한다.

● 자작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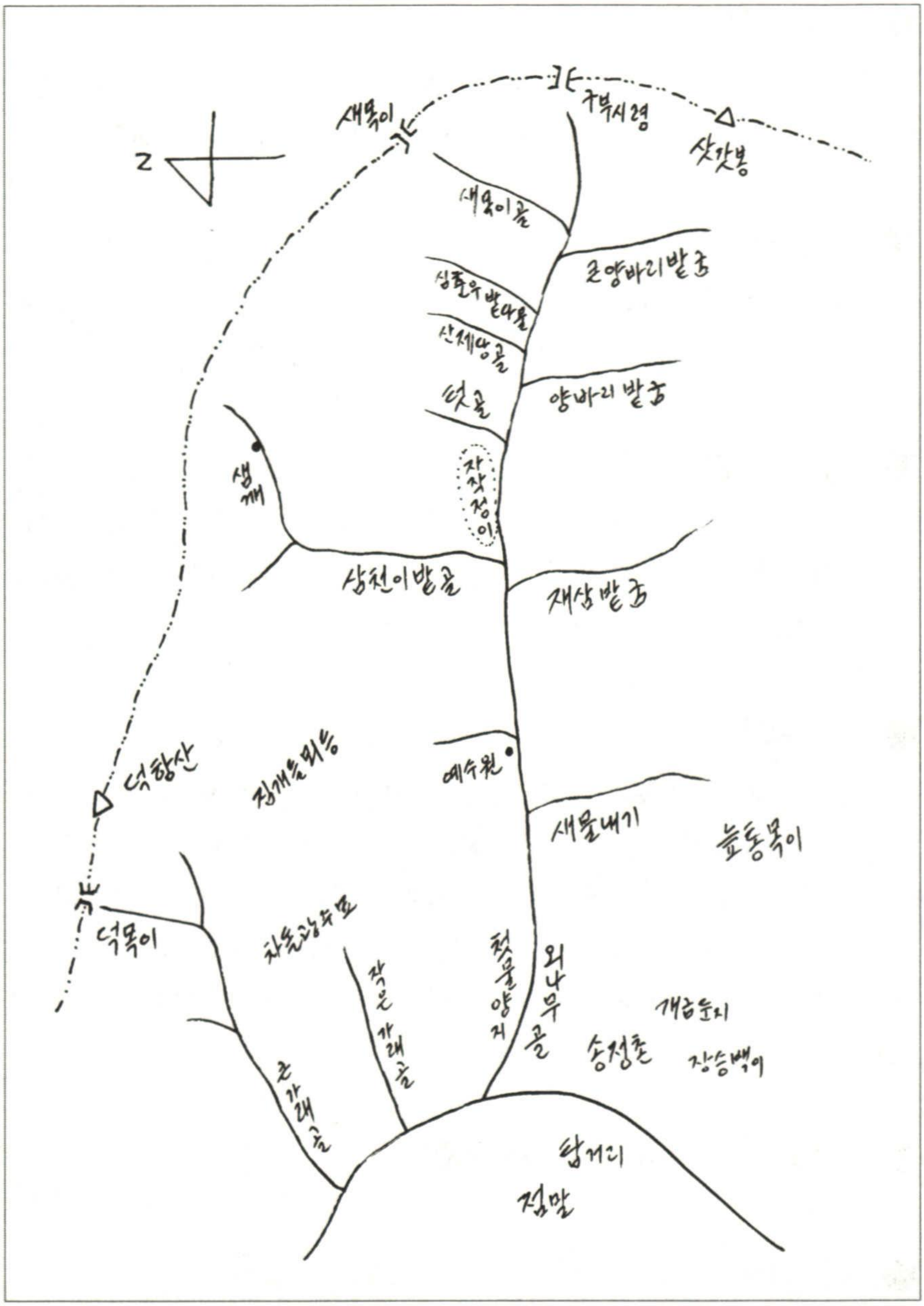
삼천이밭골과 텃골 사이의 왼쪽 산비탈에 있다. 이곳에 자작나무가 많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쉬었다가 가기에 자작정이라 한다.

● 산제당골

텃골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외나무골 사람들이 산메기를 하던 산제당이 있었기에 산제당골이라 한다.

● 농바우

산제당골 어귀의 도랑가에 있는 바위이다. 높이 약 3m 넓이 약 4m 정도 되는 사각형의 바위인데 흡사 농짝 처럼 생겨서 농바우라고 한다.


N
새목이
구부시령
삿갓봉
새목이골
온양바리발굼
상촌우발대골
산제앙골
양바리발굼
뒷골
생깨
자작정이
상천이발골
재상발굼
덕항산
장개늪뒤등
예수원
새물내기
늪등목이
덕목이
차돌고랑두또
작은가래골
천물양지
외나무골
개금동지
송정촌
장승백이
큰가래골
탕커리
정말

● 양바리밭굼

삼천이 밭골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밭이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서 양밭굼이 양바리밭굼으로 변하였다.

● 큰양바리밭굼

양바리밭굼을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양바리밭굼처럼 골짜기 안에 밭이 양쪽으로 있기에 붙은 이름이다.

● 심춘우밭다물

농바우에서 500여m 가서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묵밭이 있고 밭가에 돌담이 많다. 심춘우라는 사람이 살던 곳으로 다물은 돌담이다.

● 새목이

텃골을 지나 왼쪽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끝에 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삼척시 신기면 대기리의 다래미눈물재골로 넘어간다. 하사미와 대기리 사이에 있어서 사이목인데 새목이로 변했다.

새목이를 다른 이름으로 다래미눈물재라 하는데 그것은 고개가 하도 높고 가파라 다래미(다람쥐)도 울고 간다고 해서 다래미눈물재라고 한다.

● 다래미눈물재 → 새목이

● 화장터

구부시령 아래에 있다. 구부시령을 넘나들다 사고로 죽거나

얼어 죽거나 한 무연고 시신을 동네 사람들이 화장(火葬)을 한 곳이다.

● 구부시령(九夫侍嶺)

화장터를 지나 백두대간의 등마루에 있는 고개로 삼척시 도계읍 발리리의 구수골로 넘어간다. 지금은 인적이 뜸한 고개지만 예전에는 아주 큰 고개였다.

옛날 고개 아래에 기구한 팔자를 타고 난 여인이 살았는데 남편만 만나 살면 죽고 또 시집가 남편을 만나면 죽고 하여 무려 아홉 남편을 모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홉 남편을 모시고 산 여인의 전설에서 아홉 남편을 뜻하는 구부(九夫 : 아홉 남편)와 섬기거나 모시고 산다는 뜻의 시(侍 : 모실시, 섬길시)를 합쳐서 구부시령(九夫侍嶺)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 삿갓봉

구부시령에서 남쪽으로 백두대간 능선을 따라가면 뾰족한 산봉우리를 보게 되는데 삿갓봉이라 한다. 산이 뾰족한 것이 삿갓 같이 보인다.

● 송정촌(松亭村)

외나무골 어귀에 있는 마을을 송정촌이라 한다.

예전에 마을 어귀에 소나무가 무성하여 정자 삼아 쉬게 한 곳이 있어서 송정촌(松亭村)이라 고 부르게 되었다. 송정촌을 송촌(松村)이라 고 부르기도 한다.

● 송촌 → 송정촌

● 작은가래골

외나무골 어귀에서 북쪽으로 내려가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골짜기에 가래나무가 많아 가래골이다.

● 차돌광주묘

작은 가래골 산등에 올라서면 낮은 산등에 묘 2기가 있는데 차돌광주묘라 한다. 옛날 어떤 사람이 금광을 하고자 무쇠골을 찾았는데 무쇠골 사람들이 차돌을 캐다가 묻어 놓고 금이 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큰 돈을 투자 했다가 쫄랑 망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 묻힌 곳이라 한다. 차돌 묻은 것을 금줄인줄 알고 그 광산의 광주(鑛主) 노릇을 하며 돈을 몽땅 털렸다고 해서 놀리는 말로 차돌광주라고 한 것이다.

● 짐개들뫼등

삼천이 밭골과 작은 가래골 사이의 산등에 김씨네 묘가 몇기 있다. 묘 앞에 작은 늪이 있어서 오리가 놀았는데 쫓으면 개금둔지 뒷쪽의 늪통목이의 큰 늪으로 날아가고 그쪽에서 쫓으면 이곳 짐개들뫼등 앞의 늪으로 날아 왔다고 한다. 김씨들이 이 늪의 물을 빼고는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옛날 사람들은 방언으로 김씨를 짐씨라고 불렀고 짐개라는 말은 김가를 뜻하는 말로써 김가들의 묘가 있는 산등이라고 짐개들뫼등이라 고 하는 것이다.

● 큰가래골

작은가래골 아랫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작은 가래골과 같이 가래나무가 많아 큰가래골이다. 큰가래골을 다른 이름으로 대추골(大楸谷)이라 하는데 한자로 큰가래나무골이라는 뜻이다.

● 대추골 → 큰가래골

● 산제당골

큰가래골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 맑은 물이 솟아 나오는 샘이 있어서 사람들이 산 치성을 드리던 골짜기이다.

● 큰사랍

큰가래골 안쪽 백두대간 능선에 있다. 사랍은 산이 높고 급하게 생긴 경사면을 이르는 말이다.

● 덕메기

큰가래골에서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의 한구로 넘어 가는 고개이다. 덕항산 왼쪽의 낮은 목재이다. 덕항산의 덕항이 덕메기(덕목이)이다.

● 덕항산(德項山)

덕메기 오른쪽에 솟은 산이다. 해발 1080.6m의 산으로 동쪽은 급한 바위 벼랑이고 서쪽은 완만한 산세이다. 국립지리원

에서 만든 지도에는 외나무골 끝에 있는 1070.7m의 고지를 덕항산으로 표기하였는데 잘못된 것이다. 덕항산은 덕메기에 있는 해발 1080.6m의 봉우리가 덕항산의 주봉인 것이다.

덕항(德項)이란 말은 덕목이 곧 덕메기 산이란 뜻이다 삼척 쪽은 바위 절벽에 경사가 급한데 비해 덕항산 서쪽은 덕시가 형성되어 있어서 농사짓기 좋으므로 덕시로 가는 고개라는 뜻으로 덕메기라 하였고 그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덕항산이라 한 것이다.

덕항산은 석회암 지대로 형성되어 많은 석회 동굴을 산 속에 품고 있다. 삼척 땅의 환선굴이나 관음굴, 대금굴 등이 모두 덕항산 아래에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동굴들의 입구는 삼척 땅에 있지만 실지 동굴 내부는 태백시 땅인 하사미 동네의 땅 밑이 되는 것이다.

● 무쇠골

큰가래골 아랫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에서 무쇠 점부리를 하던 곳이라고 무쇠골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무쇠골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비슷한 발음이 나는 무사골(武士洞 : 무사동)으로 쓰게 된 것이다.

어느 땐가 무쇠골 안쪽 산등에 있는 오래된 고총(古塚)을 파게 됐는데 뼈가 큰 무사의 유골이 나왔다. 그 유골은 고리뼈에 9척 장신의 체구를 보여주는 장군의 뼈였는데 그 뒤로 그 무사의 유골과 마을 이름이 맞아 떨어져 무사골로 변형되어 부르게 된 것이다. 무사의 유골과 함께 칼과 도자기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 무사골 → 무쇠골

● 무사동 → 무쇠골

● 거북늪

무쇠골 어귀 하천가에 큰 늪이 있었는데 고기가 많아 낚시질도 하던 곳이었다. 늪가에 거북이 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서 거북늪이라 하고 그 돌이 마을을 잘 살게 해 준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병자년 개락 때 큰 물난리가 나면서 거북늪은 메워졌고 거북바우는 조탄리까지 떠 내려 갔다.

조탄리 사람들은 상서로운 거북바우가 떠 내려 왔기에 마을에 모셔 두었는데 무쇠골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돌은 무쇠골 돌이니 가져가야 된다며 가져왔다. 그러자 조탄 사람들은 물에 떠 내려 온 것이기에 우리 것이라고 하고 무쇠골로 와서 그 돌을 다시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양쪽 마을 사람들이 서로 자기네 것이라며 뺏어오고 뺏어가고 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화가 난 무쇠골 사람들이 조탄으로 가서 거북의 목을 깨어 버리고 돌아 왔다.

머리와 목이 떨어진 거북바위는 더 이상 거북이 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냥 둥글넓적한 바위 돌 이었다. 지금도 조탄리 노인 회관 근처에 목이 떨어져 나간 거북 바위가 방치되어 있다.

● 상사고디

작은가래골과 큰가래골 사이의 산등이다. 작은가래골 끝이 되는 산꼭대기로 작은 산봉우리가 있고 제법 평평하게 생긴

산마루인데 오래된 묘가 몇 기 있다. 상사(喪事)가 나서 운구하여 묘를 쓴 높은 산 고디라서 상사고디라고 부르게 되었다.

● 투장목이

큰 가래골과 무쇠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그곳은 예로부터 명당이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난 곳인데 어느 때 누군가가 그 명당이라는 곳에 몰래 투장(偸葬)을 하였기에 투장목이라 한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상사미에서 내려오는 죽현천의 물이 정면으로 흘러 들어오며 나가는 물줄기가 보이지 않아 명당이라는 말이 전해지는데 실지 그곳에는 10여기의 무덤이 있다.

● 귀병

작은가래골 어귀 왼쪽에 석벽(石壁)이 있는데 귀병이라 한다. 귀병은 사각형으로 생긴 뼝때 곧 사각형 절벽을 이르는 말이다. 사각형은 네 귀가 형성된 것으로 그러한 형태의 뼝때나 절벽을 귀병이라고 한다.

● 앞귀병산

무쇠골 어귀에서 바라보면 앞쪽이 되는 남쪽 방향에 높이 솟은 벼랑 산이다. 그 곳에도 각진 바위 벼랑 곧 귀병이 있기에, 앞에 있다고 앞귀병산이라고 부른다. 앞귀병산이 변해 악구병이산이라 고도 부른다.

● 호식총(虎食塚)

앞귀병산 중턱 바위 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 잡아먹힌 사람

의 무덤인 호식총이 있다. 작은 돌무더기와 시루가 엎어져 있었으나 최근에 그 시루가 보이지 않는다.

● 돌모랭이

무쇠골에서 귀네미골 사이의 빙 돌아가는 산구비를 돌모랭이라 한다. 빙 돌아가는 산구비 곧 산모랭이이므로 돌모랭이라고 한다.

● 서낭뜨렁

돌모랭이 안쪽을 서낭뜨렁이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고 그 서낭당 뒷쪽에 있는 뜨럭이라고 서낭뜨럭이 서낭뜨렁으로 된 것이다. 뜨렁은 뜨락과 같은 말로 조금 높은 언덕 같은 땅을 이르는 말이다.

● 귀네미골

돌모랭이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고냉지채소 재배 단지가 있는데 지금으로 부터 20년 전인 단군기원4321(서기1988년)에 광동호 수몰민들 37가구가 집단으로 이주하여 새로이 마을을 이룩한 것이다. 귀네미골 앞 도로에 있는 다리에 보면 우이곡교(牛耳谷橋)라고 다리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귀네미골을 한자로는 우이곡이라고 쓰는 것을 알겠다.

귀네미골은 우리나라의 유력한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에 등장하는 이상향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정감록에 우이간(牛耳間) 또는 우이령(牛耳嶺)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우이곡(牛耳谷)으로 불리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귀네미골의 귀네미는 귀 넘이가 변한 말로써 우이(牛耳) 곧 소 귀 처럼 생긴 고개를 넘어 가면 있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귀넘이골이 귀네미골로 변하지 않았나 한다.

귀네미골의 고냉지채소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산품으로 수분이 적고 고소하다는 소문이 나 있다. 최근에는 귀네골 안쪽 큰재 부근의 백두대간 산마루에 풍력 발전을 하는 풍차를 설치하는 사업이 검토 중이다.

● 우이곡(牛耳谷)

귀넘이골을 한자로는 우이곡(牛耳谷)이라 한다.

● 국시댕이

귀네미골로 들어 가다가 오른쪽에 있다. 옛날 국시댕이라는 성황당이 있었기에 붙은 이름이다. 당목과 돌무더기가 있었으나 도로개설로 훼손되었다.

● 배나무쟁이

국시댕이의 당목이 돌배나무 였기에 그 인근을 배나무쟁이라 고 한다. 배나무 밑에서 쉬었다 가기에 배나무쟁이다.

● 황지거랑

국시댕이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 이다. 골짜기 안에 물이 흐르므로 그 물을 가두어서 귀네미골 마을 사람들이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물을 가두기 전에는 그 골짜기에 물웅덩이가 있었는데 황지(潢池)라고 하였고 그 황지가 있는 거랑이라고 황지거랑이라 부르게 되었다.

● 약물래기

황지거랑 건너편 산기슭에 있다. 독 처럼 생긴 바위 홈에 물이 가득하다. 위쪽은 불과 폭이 4~50cm 밖에 안 되지만 속에는 큰 독처럼 넓은 공간이 있는데 약간 푸른빛이 도는 물이 가득 고여 있다. 부정한 사람이 가면 약물이 사라진다고 하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으로 피부병에 바르고 위장병에는 마시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약물래기를 약수둔지, 약물둔지 등으로도 부르는데 둔지는 약물이 나오는 언덕으로 이해가 되는 이름이다.

● 약수둔지 → 약물래기

● 두터부골

약수둔지를 지나 올라 가다가 왼쪽 도랑 건너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안쪽에 두꺼비가 많이 서식하여서 붙은 이름이다. 이 지방에서는 두꺼비를 두터비라 고 부르는데 두터비골이 변해 두터부골이 된 것이다. 이 골짜기에 살던 커다란 두꺼비는 구렁이도 삼켰다는 말이 전해진다.

● 절골

두터부골 어귀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안에 절이 있었기에 절골이라 한다.

● 절터

절골 안쪽에 있다. 절이 있던 자리이다.

옛날 이 절은 상당히 큰 절이었는데 절에 하도 빈대가 많아서 사람이 베겨내질 못하자 스님이 절에 불을 질러 버리는 바람에 절이 불타고 망해버렸다고 한다. 지금도 절터 인근의 바윗돌을 들추면 바위 밑에 빈대가 보인다고 한다.

● 농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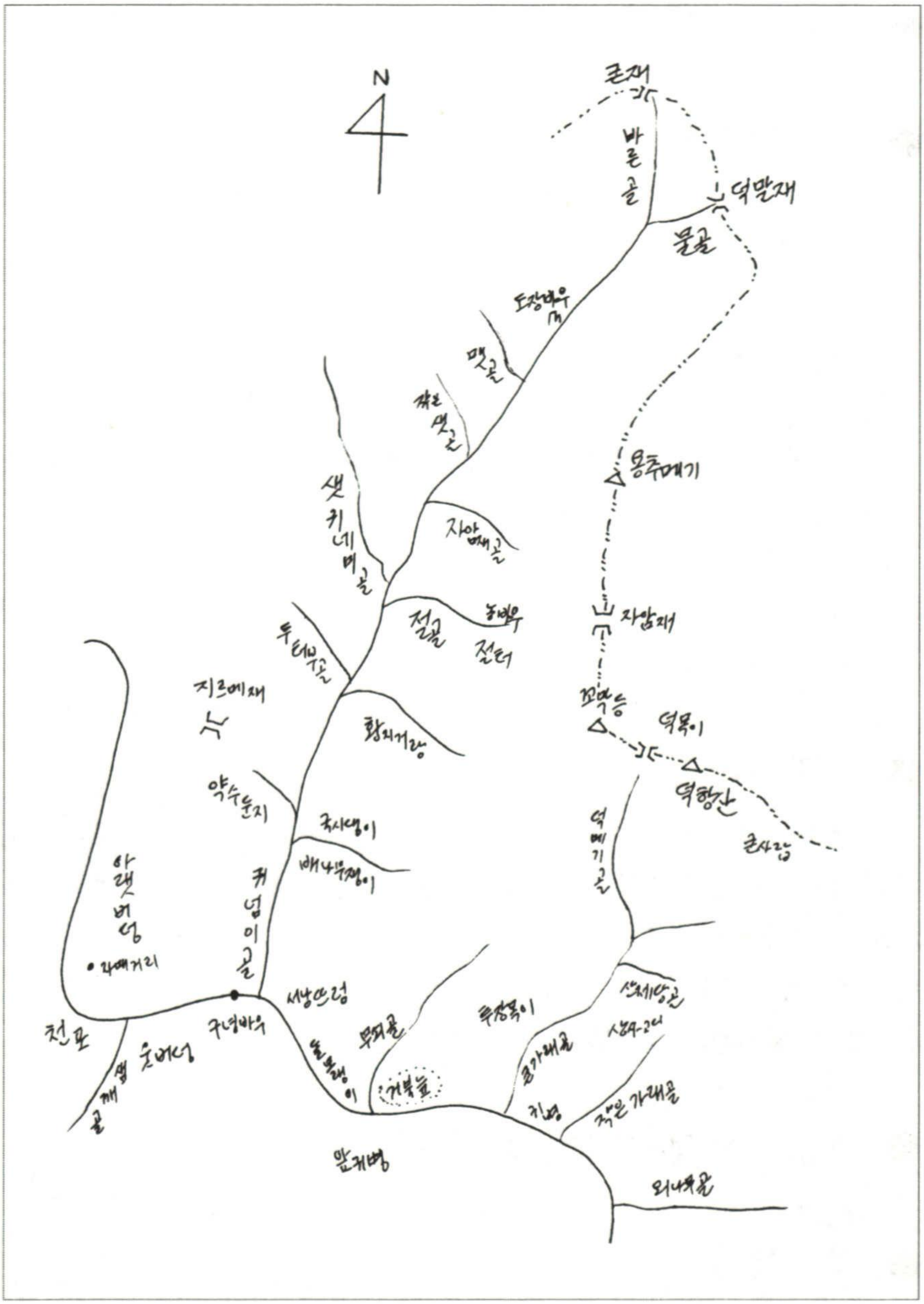
절골 안쪽에 있는 네모 번듯한 바위로 가로 세로 높이가 5~6m 정도 되는 커다란 바위이다.

생긴 형상이 농짝 처럼 생겨서 농바우라 한다.

전설에 의하면 아주 옛날 근처에 살던 마고할미가 이 바위를 들어다 놓고 앉아 쉬고 갔다고 한다. 바위 위에 2~30명은 앉아 쉴 수 있다. 농바우 옆에 작은 바위가 있어 꽤 떨어져 있는데 마고할미가 두 바위에 걸터앉아 똥을 누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 바위를 통시바위라고 도 한다.

● 시굿배기

두터부골과 약수둔지 사이에 있는 석회동굴이다. 굴이 수직으로 형성되었는데 위험하여 들어가 본 사람은 없다고 한다. 수직으로 형성 된 굴을 시굿배기라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새굴이라 한다.


N
큰재
바른골
덕말재
물골
도장바우
맷골
재넘엇골
용추메기
샛키네미골
자암재골
자암재
농바우
절골
절터
두터운골
꼬막등
덕목이
지르메재
황새거랑
덕항산
약수등지
국사댕이
큰사람
배나무정이
덕메기골
알캣버덩
개머거리
커넘이골
세방쓰렁
구넝바우
천포
숯버덩
무지골
들몰랭이
거북늘
유정목이
신제당골
사장골
콩가래골
지장
작은가래골
알캣버덩
외나무골

● 새굴 → 시굿배기

● 천제당말랭이

절골로 들어가 끝 쪽 산꼭대기로 바로 덕항산 주봉을 천제당말랭이라고 한다.

예전에 가뭄이 들면 삼척 땅의 사람들이 덕항산 꼭대기에 제단을 설치하고 태백산을 향해 망천제(望天祭)를 지내며 비를 내려주기를 간절히 빌면 꼭 비가 왔다고 한다. 기우제를 지낼 때는 우장(雨裝)을 갖추어 와서는 제사가 끝나면 곧 바로 비가 오던 안 오던 우장을 갖추어 입고 돌아갔다고 한다.

덕항산 주봉은 이 처럼 신령한 곳으로 여겼으며 덕항산이란 이름 말고도 천제당말랭이로 불렀다. 말랭이는 산말랭이로 산꼭대기를 이르는 말이다.

● 샛귀네미골

두터부골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조탄의 역김이골이나 욕개골에서 산등을 넘어 오면 바로 이 곳 샛귀네미골로 넘어온다. 조탄과 귀네미골 사이에 있어서 조탄에서 귀네미골로 넘어오는 골짜기라서 샛귀네미골이라 한다. 샛귀네미골을 그냥 샛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샛골 → 샛귀네미골

● 작은샛골

샛골 다음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매골

작은새골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 바위 벼랑에서 매가 새끼를 쳤다고 그래서 매골이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세를 보니 골짜기 어귀에 묘가 많아서 묘골이 매골로 변하지 않았나 한다. 대개 묘가 있으면 맷골, 맷등, 매굼 등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 자암재골

자암재로 올라가는 골짜기로 매골 맞은 편에 있다.

● 자암재

삼척시 신기면 환선동굴 쪽으로 넘어가는 가파른 고개이다.

백두대간의 등마루에 있는데 고개 동쪽은 매우 가파라 바위 절벽의 연속인데 반해 고개 서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덕시를 이루고 있다.

정감록에 나오는 우이령(牛耳嶺)이 바로 이 고개가 아닐까 하고 추측이 되는 고개이다. 왜냐하면 고개의 동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거대한 바위 절벽과 바위산이 양쪽으로 벌려 서 있어서 흡사 소귀(牛耳)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고개를 올라 오다보면 얼마나 가파른지 코가 땅에 닿을 정도이며 힘들게 올라오면 평평한 땅이 전개 되니 이상향일 수도 있는 것이다.

자암재 근방에는 민가가 없어서 이 고개를 넘나들던 사람들이 고개 동쪽 사면의 큰 바위 밑에서 자고 가는 일이 많아서 잠자는 바위 고개라는 뜻으로 잘 암(岩:바위) 재라 했는데 그 말이 자암재가 되었다고 한다.

● 꼬막등

자암재에서 남쪽으로 백두대간의 산마루에 있는 봉우리이다.

덕항산 못가서 있는데 산등이 평평하여 상당히 넓게 생긴 곳이다.

덕항산 정상 못 미쳐 300여m 지점으로 이 일대에 고막조개 화석이 발견 되므로 꼬막등이라 한다. 옛날 천지개벽 때 조수가 올라와 꼬막등이 꼬막조개 만큼만 남고 모두 물에 잠겼다는 말이 있다. 산등이 펀펀하여 헬기장을 닦아 놨다.

● 용추메기

자암재 북쪽에 솟아 있는 산등성이다. 산등이 용트림하듯 깍아지른 절벽과 함께 솟아 있어서 용추메기라 한다.

● 도장바우

귀네미골 마을 어귀 왼쪽에 있는 커다란 석회암 바위이다. 바위 아랫쪽에 굴이 있는데 들어가면 흡사 도장방 처럼 생겨서 도장바우라고 한다. 도장방은 곡물이나 귀한 물건을 보관하는 방으로 집에서 가장 안쪽에 설치하는 방이다. 도장바우 앞에는 움푹한 땅이 있는데 장마 때 큰 못이 되었다가 몇일 지나면 물이 땅속으로 스며든다.

● 도장바우굴

도장바우에 있는 석회동굴이다. 처음에 조금 들어가서는 수직으로 형성된 굴인데 상당히 크고 넓다.

수십년전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벌(盜伐)을 하여 차량 몇대

분량의 나무를 잘라 놓았는데 산간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결국 도장바우굴로 나무를 옮겨다 넣었다. 넓은 수직굴 속으로 몇대 분량의 나무를 다 집어넣었는데도 차지 않았다고 하며 그 들은 그래서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전해 진다. 도장바우굴의 아래는 신기의 환선굴과 통하였다고 본다.

● 물골

귀네미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서 물이 나오기에 물골이라 한다.

● 바른골

귀네미골 마을에서 곧바로 올라간 왼쪽 골짜기를 바른골이라 한다. 바로 올라갔다 고 바른골이다.

● 덕말재

물골 끝에 있는 고개이다. 삼척시 신기면 덕말이라는 곳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고 덕말재라 한다.

● 큰재

바른골 끝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를 넘으면 삼척의 고무릉리(古武陵里)로 갈 수 있다. 고개가 크다고 큰재라 한다.

● 우이령(牛耳嶺)

귀네미골에 있는 고개인데 현재로서는 우이령(牛耳嶺)이라고

부르는 고개가 없으니 딱히 어느 고개가 우이령이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살다가 안살다가 하기를 100년도 넘게 하였으니 귀네미골의 원주민이 없는 터라 지명(地名)과 말이 많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다. 귀네미골에는 큰재, 덕말재, 자암재가 있는데 셋 가운데 하나가 정감록(鄭鑑錄)에 나오는 우이령(牛耳嶺)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본다.

우이령(牛耳嶺)은 난세(亂世)에 이상향(理想鄕)으로 가는 고갯길로 전해지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이란 책에 그 내용이 나온다.

정감록(鄭鑑錄)의 일책(一冊)인 감결(鑑訣)이란 책 속에 토정가장결(土亭家藏訣)을 보면

「내가 지도를 얻어 본지 8년째 병진년에 금강산으로 부터 산천의 기운을 바라보고 그 근원을 찾아 삼척부에 이르렀다. 삼척에서 신술방(서북방)으로 해서 오십천으로 들어가 우이령에 이르러 태백산을 바라보니 백여리 되는 어간에 숲은 우거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있으니 곧 대소궁기로 크고 작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지가 있도다. 이는 태백산 원맥이로다.」
(吾得見地圖八年丙辰自金剛望氣尋源至三陟府向辛戌方入五十川牛耳間望太白山百餘里許有深林無人家卽大小弓基而此太白山源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이간(牛耳間)이 바로 우이령이며 귀네미골에서 신기나 고무릉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는 것이다.

고무릉리(古武陵里)도 무릉도원으로 가는 동네라는 암시이고 활기리(活基里)도 활(弓)과 발음이 같으니 활인지로 가는 어귀라는 뜻이 된다.

우이(牛耳)는 이두표기 이므로 우리말로 풀어보면 우귀가 되고 우귀는 어귀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 우이(牛耳)는 이상향

으로 가는 입구를 뜻하는 어귀인 것이다. 동네 어귀, 골짜기 어귀, 굴 어귀 등의 어귀는 입구를 뜻하고 이상향 무릉도원으로 가는 관문인 어귀라는 뜻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태백산 어딘가에 우복동(牛腹洞)이라는 이상향 곧 피난지(避亂地)가 있는데 우복이라는 말은 소(牛)의 배(腹)에 해당하는 동네를 뜻하니 이곳 우이령(牛耳嶺)과 우이곡(牛耳谷)은 소(牛)의 귀(耳)에 해당하고 산 넘어 있는 우목골(牛目谷)은 소(牛)의 눈(目)에 해당하므로 이곳은 소의 배로 들어가는 머리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이령은 이상향으로 가는 어귀인 것이다.

● 구멍바우

귀네미골 어귀를 지나 천포쪽으로 조금 가서 길 아래에 있다. 구멍바우의 구멍으로 하천의 물이 빠져 들어가서 환선굴로 나온다고 한다. 평소에는 괜찮으나 장마 때면 그리로 물이 들어간다. 구멍바우를 구녕바우라고도 부른다. 35번 국도가 개설되면서 구멍바우가 훼손되었다. 구멍바우는 소의 코구멍 같이 생긴 구멍이 2개가 있다고 한다.

● 구녕바우 → 구멍바우

● 구멍바우쏘

구멍바우 앞에 있는 깊은 쏘(沼)이다. 이곳 소(沼)의 물도 환선굴로 빠져 들어간다. 이 구멍바우쏘 아랫쪽 부터는 건천이 되어 조탄까지 하천에 물이 없다.

● 아랫버덩

천포에서 아랫쪽이 되는 북쪽에 넓은 들판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랫버덩이라 한다. 천포마을에서 아랫쪽이 된다고 아랫버덩이라 한다. 버덩은 벌판과 같은 말이다.

● 연자방아터

아랫버덩 윗쪽 도로 가에 있었다. 그곳에 연자방아가 있었는데 조탄 사람들이 옮겨다가 조탄마을 노인정 앞에 가져다 놓았다. 지금도 조탄 노인정 앞에 그 연자방아가 있다.

천포의 밭 주인이 농사 짓는데 걸리적 거리던 차에 조탄의 노인정에서 달라고 하니 가져가라고 한 것이라 한다. 천포 사람들은 연자방아라 하지 않고 잘매바우 또는 자매바우라 부르고 그 부근을 자매바우거리라 고 한다.

● 잘매바우거리 → 연자방아터

● 자매바우거리 → 연자방아터

● 천포(泉浦)

하사미와 조탄 사이에 있는 하사미의 8개 자연부락 가운데 하나이다. 들이 넓고 땅이 비옥한 곳으로 부촌이다.

천포는 석회암 지대로 하천에 물이 없어 건천(乾川)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귀한 동네이다.

천포를 샘깨라고 하는데 샘깨골에서 샘(泉)이 나기에 천포(泉浦)라고 했다고 한다. 상사미와 하사미의 마을 이름이 샘깨

의 새미가 사미(士美)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샘깨 → 천포

● 웃버덩

천포에서 윗쪽에 있다. 아랫버덩과 대비되는 곳으로 아랫버덩은 천포 아랫쪽에 있고 웃버덩은 천포 윗쪽에 있다. 아랫버덩 보다는 작다. 버덩은 벌판과 같은 말이다.

● 고사리밭재

웃버덩에서 가리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갯마루 부근에 고사리가 밭을 이루어 봄철에 고사리를 꺾어 묵나물로 많이 만들었기에 고사리밭재라 한다.

● 화장터

고사리밭재 왼쪽 산능선에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은 사람을 화장을 하고 돌무덤을 만들었기에 그곳을 화장터라 한다.

● 샘깨골

웃버덩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샘이 있어 맑은 물이 솟기에 천포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한다.

천포는 물이 귀한 동네라 샘깨골의 물은 생명수와 같은 것이다.

● 큰굼

샘깨골 안쪽에서 왼쪽으로 올라가 움푹한 골짜기이다. 굼이

크다고 큰굼이다.

● 작은굼

큰굼 오른쪽에 있다. 큰굼보다 작다고 작은굼이다.

● 독바우

샘깨골로 들어가서 왼쪽 산중복에 있다. 커다란 바위가 채독처럼 생겨서 독바우라 한다. 높이 5~6m정도 되는 바우로써 힘센 사람 열명 정도가 밀면 흔들릴 정도이다. 바위 밑에 동물의 뼈가 많은데 큰 짐승이 잡아 먹은 것이라 한다. 독바우를 장군석이라 고도 하는데 흡사 장군 처럼 서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장군석 → 독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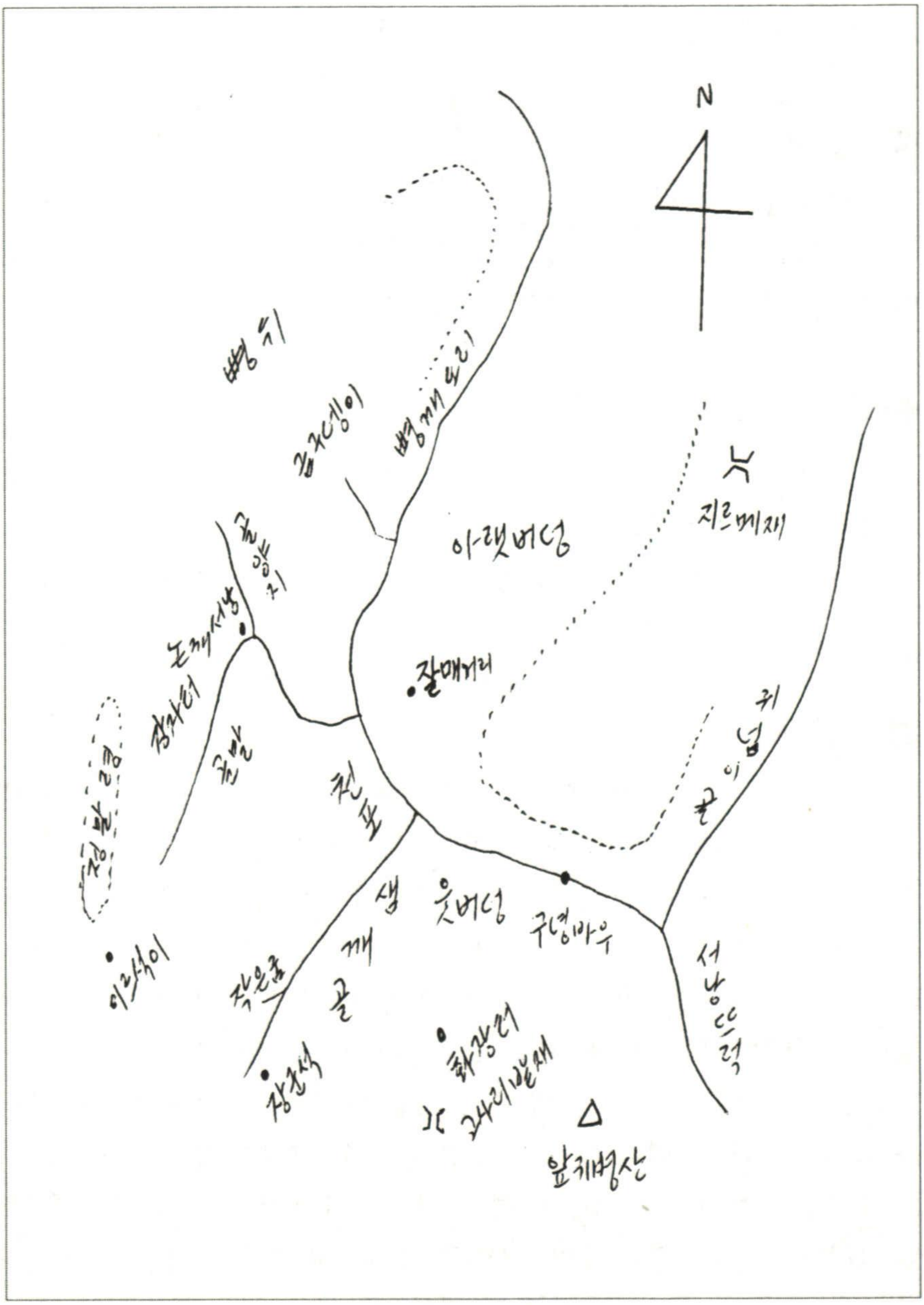
● 골말

천포 마을 아랫쪽에 있다. 골짜기가 서쪽으로 뻗어 올라가다가 남쪽으로 휘어진 골짜기인데 예전에 6~7호가 살았으므로 골말이라 했다. 골말은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 서낭당

골말로 올라가는 언덕에 있다. 당목으로 전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정월에 날받이를 하여 제사하고 단오에 제사한다.

천포마을의 서낭당이다.


N
잘매거리
구덩이바우
생 웃버덩
화강리
앞개봉산

● 서낭목이

서낭당이 있는 산등으로 그리로 길이 나 있다.

● 늪깨

서낭목이를 지나 골말로 올라가는 지점에 늪이 있었다. 지금도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임씨네가 늪의 물을 빼고 망했다는 전설이 있다. 늪이 있었다고 늪깨이다.

● 논깨

늪깨 아래에 논이 있었다. 늪의 물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천포에서는 물이 귀해 논은 특이한 현상이다.

논 3다랭이가 있었는데 임씨네가 조상님 제사에 쓰기위해 벼농사를 지은 곳이라 한다. 논이 있었다고 논깨이다.

● 장자터

골말의 늪깨 윗쪽에 있다. 옛날 천포 마을을 개척한 임씨네가 살던 곳이다. 임(林)씨는 아주 잘 살아 인근에 임장자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손님이 끊일 날이 없이 찾아오는지라 그 집 며느리가 손님 접대하기에 진력이 나서 싫던 차에 한 도승이 시주하러 오게 되었다. 며느리는 시주를 많이 할 터이니 집안에 손님 좀 안 오게 할 수 없느냐고 했다. 도승은 집 앞에 있는 늪의 물을 빼 버리면 자연히 알게 되리라 하고는 가 버렸다. 그래서 임씨네가 서낭목이를 끊어 그리로 늪물을 뺏다고 하고, 또는 도승이 지팡이로 서낭목이를 치니 산등이 잘려 갈라지며 그리로 물이 빠졌다고 한다. 어쨋거

나 늪물을 빼 버리고는 임씨네가 쫄딱 망했다고 한다. 지금도 서낭목이에는 인위적으로 산허리를 끊어 물을 뺀 흔적이 남아 있고 늪이 있던 곳에는 지금도 습지로 되어 있다.

임장자가 살던 터라고 장자터라 하는데 이곳이 바로 임씨네 배판터라고 한다. 아랫버덩의 연자방아도 임씨네가 잘 살때 설치한 것이라 한다.

임씨네 집이 얼마나 컸는지 정선 사람들이 삼척으로 가다가 임장자네 집을 보고는 삼척부사가 사는 집으로 착각하기도 했다고 한다.

● 골양지

서낭목이에서 곧바로 서쪽으로 올라간 곳이다. 골짜기 안쪽의 양지 바른 곳이기에 골양지라 한다.

● 정말령

골말 서쪽의 높은 산등을 정말령이라 한다. 산꼭대기를 정(頂)이라 하고 말령은 마루와 같은 말로 마루, 말랭이, 등에서 변한 말이다. 마을 뒤의 높은 산마루라는 뜻이다.

정말령을 넘으면 조탄의 큰골로 갈 수 있다. 정말령 산등은 넓고 평평하여 예전에 소를 방목하던 곳이다.

● 이르석이

정말령 왼쪽이자 골말 끝이 되는 곳에 있다. 그곳에는 커다란 바위가 불쑥 일어서서 병풍 처럼 생겼는데 이르석이라 한다. 이르석이는 일어선 바위라는 뜻이다.

● 뼝깨도리

아랫버덩 서쪽 하천 건너편에 있다. 이곳에는 하천가에 벼랑이 형성되어 조탄의 휘꾸모랭이 까지 이어져 있기에 뼝깨(뼝때:벼랑)가 빙 돌아갔기에 뼝깨도리라 한다.

● 뼝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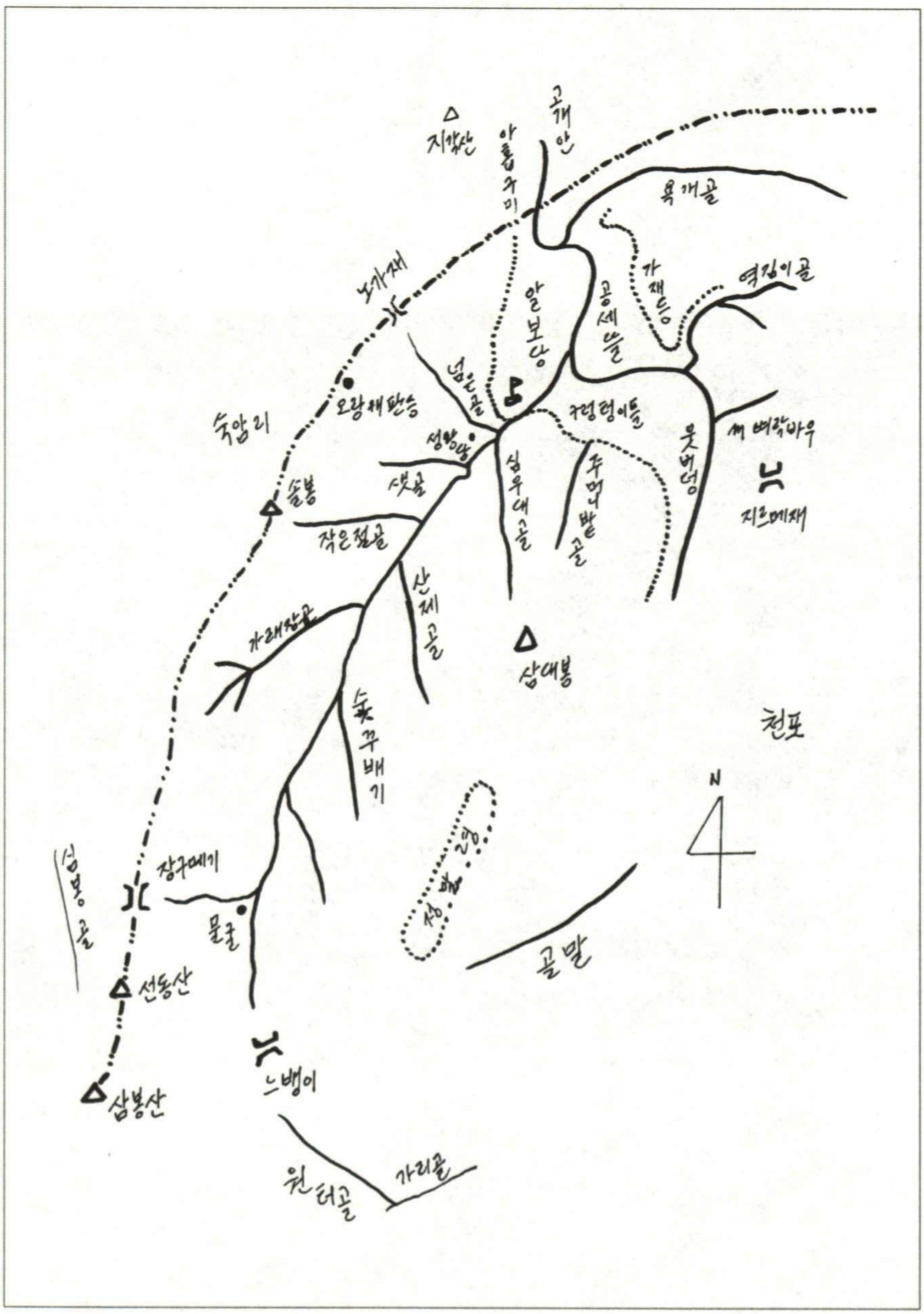
뼝깨도리 윗쪽 산마루 부근이다. 삼대봉과 조탄의 살개바우 벼랑 뒷쪽이 되고 뼝깨도리 뒷산이라 뼝뒤라 한다.

● 금구뎅이

뼝깨도리와 뼝뒤 사이의 산중턱에 있다. 옛날 이곳에서 금을 캤기에 곳곳에 금구뎅이가 있다. 어떤 구뎅이에는 물이 고여 있기도 한데 매우 위험하다. 금을 캐던 구뎅이가 있다고 금구뎅이라 한다.

조　탄 (助呑)

조탄 마을


지앙산
아홉구미
고개안
욕개골
노가재
가재등
역징이골
알보당
공세들
넘은골
오랑캐땅등
숙암리
성황당
커렁이들
새뻐락바우
샛골
솔봉
작은절골
삼우대골
주먹밭골
웃버덩
지르메재
산제골
삼대봉
천포
N
숯꾸배기
장구메기
물골
선동산
삼봉산
느뱅이
원터골
가리골
골말

조 탄(助呑)

조탄(助呑)이란 지명은 조선 현종 때 삼척부사(三陟府使)로 부임한 허목(許穆)이 지은 척주지(陟州誌)에 나오니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겠다.

척주지(陟州誌) 장생리(長生里) 조에 보면

「죽령은 삼척부에서 60리인데 15리를 가면 조탄이다. 조탄의 북쪽은 갈전인데 삼척부에서 90리이고 조탄의 남쪽은 삼인데 삼척부에서 100리이다.」(竹嶺六十里逾十五里助呑北葛田九十里助呑南蔘百里)

라고 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때 이미 조탄이란 지명이 사용된 것이다.

조탄의 지명 유래는 그 역사가 오래되어 옛날 고려에서 조선조로 이어진 정전법(井田法)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정전법(井田法)은 토지를 9등분하여 8가구가 각기 1등분씩 경작하고 나머지 1등분은 공전(公田)이라 하여 공동으로 경작하고 거기에서 수확되는 작물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이다. 이때 그 세금을 조(助, 耡)라 하고 조세(助稅)라 한다.

조탄(助呑)에도 정전법(井田法) 시행 때의 공전(公田)이 있었는데, 바로 조탄마을의 하천 건너편 동쪽에 있는 공세뜰(公稅田, 公稅坪)이라는 버덩이다.

조탄의 하천은 물이 없는 건천(乾川)인데 여름에 장마 때 비가 오면 갑자기 하천의 물이 불어나 자주 공세뜰(公稅坪)의 공전(公田)을 삼켜 버려 자갈장광으로 만들어 버리곤 하였다. 이렇게 되면 조세(助稅)가 날아가 버려 하는 수 없이 사전(私田)에서 거두

어 조세(助稅)를 내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몇 년에 한번씩 장마 때 마다 공세뜰을 삼키는 물난리 때문에 조세의 어려움을 겪던 마을이기에 공세뜰(公稅坪, 公稅田, 公田)에서 수확되는 조세(助稅)의 조(助)와 그 조세지(助稅地)를 물 난리로 삼키(呑公田)는 탄(呑)자를 합쳐 조탄(助呑)이라 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탄에는 하천의 물이 건천(乾川)이 되야 풍년 농사를 기약할 수 있고 하천에 물이 흐르면 그 해 농사는 흉년이 된다는 말이 전한다.

조탄(助呑)을 도릉골(桃陵谷)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고려시대(高麗時代)에 창건 된 도릉사(桃陵寺)라는 사찰이 절골에 있었기에 일컫는 말이다.

원래 삼척시 하장면(三陟市 下長面)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단군기원4327년(서기1994년) 12월 26일 태백시(太白市)로 이관되어 사조동(士助洞)에 속하였다가 단군기원4331년(서기1998년) 9월 10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삼수동(三水洞)에 속해 있는 법정동(法定洞)이다.

조선조 초기에 임(林)씨와 변(邊)씨가 마을을 개척하였다 하고 조선조 숙종 때 신계봉(辛啓鳳), 김언철(金彦哲) 등 각 성 받이가 이주해 와서 그 후손들이 지금껏 살고 있다.

호구수(戶口數)는 단군기원4092년(서기1759년) 30호 179명, 단군기원4249년(서기1916년)에 31호 170명, 단군기원4295년(서기1962년) 42호 279명, 단군기원4315년(서기1982년) 51호 348명, 태백시로 편입된 뒤인 단군기원 4329년(서기1996년) 30호 104명으로 줄었고 단군기원4339년(서기2006년)에는 27세대 62명으로 크게 줄었다. 20년 전인 단군기원4321년(서기1988년)에 광동댐 수몰민들 37가구가 집단으로 귀네미골로 이주할 때 조탄

리도 몇 가구가 이주 했다 고 한다.

마을의 동쪽은 하사미에 서쪽은 삼척시 하장면 용연리에 남쪽은 하사미에 북쪽은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에 접해 있으며 동서 2km 남북2km이다.

마을의 남쪽에 시무대산이 솟아 있고 서쪽에 솔봉산이 높이 솟아 있으며 하사미에서 흘러오는 죽현천(竹峴川)이 마을을 통과하여 광동호(廣洞湖)에 유입 되는데 평소에는 건천(乾川)이고 비가 오면 물이 흐른다.

도로는 35번 국도가 2차선으로 포장되어 하사미에서 와 마을을 통과 숙암리로 이어지며 피록산등을 넘어 삼척시 하장면 지구령이로 가는 비포장 도로가 있다.

특산물은 고냉지채소가 대부분이며 약초와 옥수수 콩 등을 심으며 벼락바우 아래에 석회석 광산이 있다.

단군기원4301년(서기1968년) 12월 4일 개교하여 단군기원4332년(서기1999년) 9월 1일 폐교 된 도릉분교가 알보당에 있었고 학교터 앞에는 고려시대 사찰인 도릉사(桃陵寺)의 자연석 돌탑이 남아 있다.

● 도릉골(桃陵谷)

옛날 조탄마을을 도릉골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도릉사(桃陵寺)가 있는 마을이라고 도릉골이라 하였다.

● 알보당

조탄분교 터 아랫쪽의 너른 들을 알보당이라 한다. 조탄 마을에서 아래쪽에 있는 버덩(들)이라는 뜻으로 알(아래) 버덩이던 것이 알보당으로 변했다.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는 학교와

학교 아래 너른 들이 모두 논이었다.

● 알버덩 → 알보당

● 도릉사탑(桃陵寺塔)

조탄분교 운동장 앞쪽에 하천에서 닳은 둥근 자연석으로 쌓은 둥근 탑이 있다. 말이 탑이지 성황당의 돌무더기 같이 생겼는데 도릉사(桃陵寺)로 가는 길목에 쌓아 이정표 역할을 한 것이라 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탄에는 도릉사의 3층 석탑이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의 탑은 절반이 땅에 묻히고 절반만 밖에 나온 것이라 한다.

● 탑거리

도릉사탑이 있는 부근을 탑거리라 한다.

● 피륵드렁

알버덩 뒷쪽의 산등을 이르는 말이다. 한자로는 피록등(彼鹿嶝)이라고 쓰는데 이것은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한 것이고 본래의 뜻은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옛날 이 산등에서 금과 은을 캐기 위해 산의 토피(土皮)를 벗긴 것이 유래가 된 것으로, 옛날엔 광석을 캐기 위해 산을 벗기는 것을 피륵이라 하고 피륵을 한 산등이라 피륵드렁이라고 한 것이다. 실지 사슴(鹿)과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 피록산(彼鹿山)

피륵드렁 윗쪽의 산을 피록산이라 하는데 이는 피륵드렁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작명을 한 것이라 본다.

● 도릉분교터

알보당의 탑거리에 있다. 단군기원4301년(서기1968년) 12월 4일 개교하여 단군기원4332(서기1999년) 9월 1일 폐교가 되었다. 지금은 빈 교사만 남아있다.

● 굼무골

알보당 뒷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우묵히 들어가 굼을 이루기에 굼무골이라 한다.

● 가산등

굼무골과 넘은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조탄 마을에서 아랫가에 있는 산등이라고 가산등이라고 한다.

● 노가재

넘은골 안쪽 산등에 있다. 삼척시 숙암리 지구렁이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 부근에 노가지 나무(노간주나무)가 많이 자라기에 노가재라 한다. 다른 이름으로 횟재라 하는데 전나무가 많아 회재(檜峙)이거나 산초나무가 많아 훼재(椒峙)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 회재 → 노가재

● 넘은골

큰골로 들어가다가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삼척시 하장면 숙암리의 지구령이로 넘어 가는 골짜기라서 넘은골이라 한다.

● 지골(址谷)

넘은골로 들어가 왼쪽으로 갈라진 골짜기를 지골이라 한다. 도릉사(桃陵寺)의 터(址)가 있는 골짜기라서 터지(址)자를 써서 지골(址谷)이라 한다. 지골을 직골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지골을 힘주어 발음하면서 생긴 것이라 본다.

● 알보당 저수지

넘은골 중간에 작은 저수지가 있는데 알보당 저수지라 한다. 알보당에 있던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설치한 저수지라서 알보당 저수지라 한다.

50여년 전 조탄에 사는 신씨 4사람과 안씨 1사람이 협력하여 알보당에 논을 뜨고 이곳 넘은골 어귀를 막아 저수지를 만든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포항구뎅이(포갱구뎅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엔 저수지로 불렀다.

이 저수지를 만들 때의 비용은 정부보조금을 일부 받고 나머지는 다섯 사람이 돈을 대었다. 둑의 바닥에 흙을 다져 양쪽에 석축을 쌓아 만드는 사력식 저수지 둑인데 알보당의 논은 10여년 경작하다가 포기하고 밭으로 변했다.

저수지의 물이 차가워 벼의 생육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큰골의 물을 댕겨 논물로 사용했으나 물이 차가워 벼 생육에 좋지 않자 알보당 저수지에 물을 가두었다가 물을 덥혀 사용하였으나 그 물이 크

게 데워지지 않아서 결국 10여년 논을 경작 하다가 포기한 것이다.

● 부자터

알보당 저수지가 부자터다. 저수지가 들어서기 전에 그곳에 부자가 살았는데 조탄에서는 알부자로 소문이 났었다. 그 집이 망해서 터를 팔게 되었고 그 터를 사서 저수지를 만든 것이다.

부자터에 부잣집이 잘 살게 된 원인은 그 터가 명당 가운데 명당으로 지기(地氣)가 강하여 잘 살게 된 것이라 한다.

그 집터는 금맥(金脈) 위에 지었는데 웃대 조상들은 알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어느날 우연히 그 집의 도장방을 수리하게 되었고 바닥을 들어내자 그 땅에 누런 황금 맥이 드러났다. 그 집 사람들은 노다지를 깔고 살았던 것이다.

노다지 황금을 캐낸 그 집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거머쥐게 되었고 흥청망청 쓰다가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집터에서 엄청난 황금을 캐 낸 뒤에 집터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간 집터가 파대(새 쫓는 긴 노끈) 형국이라서 망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 절골

저수지를 지나 올라가면 언덕이 나오고 그 언덕 안쪽에 왼쪽으로 있는 골짜기가 절골이다. 옛날 도릉사(桃陵寺)가 이곳에 있었다고 해서 절골이라 하는데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절골을 지골이라고 한다.

● 절터

절골 안쪽에 있다. 도릉사(桃陵寺) 절터가 있던 곳이라 고 하는데 축대나 주초돌 등 아무런 흔적을 발견 할 수 없다.

이곳이 작은 암자터이고 실지 큰 절 곧 본사(本寺)는 부도바위 아랫쪽이 아닌가 한다.

● 성황당(조탄성황당)

알보당 저수지 왼쪽 언덕에 있다. 동네 사람들은 중서낭이라고 부르는데 도릉사(桃陵寺)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중서낭이라서 그런지 제물로 육류와 어물(魚物)은 쓰지 않고 나물 종류만 사용한다.

매년 음력 1월 초승에 날받이를 하여 제사를 지내고 4월 초8일에 제사한다. 성황당 내부에는 무쇠말이 있으며 당목으로는 500여년 된 전나무가 있고 목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당집은 전나무 앞에 있다.

● 중서낭당 → 성황당

● 부도바우

성황당 뒷쪽 산 밑에 있다. 이곳에는 커다란 집채 만한 바위가 여러개 있는데 화강암으로 된 바위이다. 조탄에는 모두 석회암 밖에 없는데 유독 이곳에만 화강암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지하에서 화강암이 화산활동으로 관입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바위가 모두 둥굴둥굴한 것이 잘 생겼고 이곳 어딘가에 도릉사(桃陵寺)의 부도(浮屠)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보기에는 도릉사 절터가 바로 이 부도바우 앞쪽이 아닌

가 한다. 부도바우 앞에 꾀 넓은 밭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앞쪽에 중서낭당이 있고 500년이나 묵은 전나무가 있으니 절터로 손색이 없는 것 같다.

● 조탄동 전나무

성황당의 신목(神木)으로 수령(樹齡)이 약 500년이 되었다고 하며 높이 약 30m에 둘레 약 4.8m 정도 된다.

당초에 삼척시 보호수 였으나 태백시로 편입되면서 태백시 보호수로 이관 되었다. 이 나무를 건드리면 마을에 재앙이 따른다 하여 가지 하나 잎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아주 깨끗하고 미끈하게 곧게 자라고 있다.

● 등재

넘은골에서 지골과 부도바우 뒷쪽 산등에 있는 고개이다. 산등으로 길이 있기에 등재인데 오랑캐판등으로 올라갈 수 있고 숙암으로 넘어 가는 고개이다.

● 우물둔지

구렁텅이버덩 윗쪽에 있다. 그곳에 우물이 있어 조탄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하였다. 조탄은 물이 귀한 동네로 하천은 바싹 말라서 건천(乾川)이 되어 있고 주변에 샘이나 물이 나오는 곳이 별로 없다.

지금은 큰골 안에서 물을 댕겨다 먹지만 예전에는 이곳 우물둔지의 샘물을 온 동네 사람들이 길어다 먹었다. 그때는 물이 귀한 동네라 집집마다 물독을 몇 개씩 준비하여 놓고 틈만

있으면 물독마다 물을 가득 채워 놓아야 안심이 되던 때였다. 정월 대보름 꼭두새벽에 밥을 해서 우물에 가서 고사 지내며 우물 속에 밥을 몇 숟가락 떠 넣는다. 그리고 줄을 서서 물을 길었다. 우물이 있는 언덕이란 뜻으로 우물둔지라고 한다.

● 솟대배기

우물둔지 위쪽에 있다. 예전에 그곳에 솟대가 세워져 있어서 솟대배기라고 했다. 지금은 솟대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 쬐기골

우물둔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그곳에 짐승을 잡기 위해 쬐기라는 사냥 기구를 설치하였기에 쬐기골이라 하고, 또는 큰골에서 째진(갈라진) 골짜기라 쬐기골이라 한다.

● 심우대골

쬐기골 안쪽이 심우대골이다. 옛날 골짜기 안쪽 삼대봉에서 심(산삼)을 푸대(부대)로 캤다고 심푸대골로 불렀으나 나중에 심우대골로 부르게 되었다. 옛날 상사미, 하사미, 조탄 지방에서는 나라에 산삼을 캐서 바치는 삼공(蔘貢)이 성했던 곳이다. 그 때 이 골짜기 끝 산등성이에서 산삼(심)을 부대(푸대)로 캤다는 것이다.

● 심푸대골 → 심우대골

● 큰골

삼봉산으로 이어지는 깊은 골짜기 전체를 큰골이라 한다. 조탄 마을 중심부에서 남남서쪽으로 뻗은 깊은 골짜기로 조탄에서 가장 큰 골짜기라서 큰골이다.

● 삼대봉(蔘垈峯)

심우대골 막장에 있는 산이다. 산삼을 캤던 자리(垈)가 많은 산봉우리라고 삼대봉(蔘垈峯)이라 한다. 삼대봉 넘어가 하사미의 천포 땅이다.

예전에 삼공(蔘貢)이 심할 때 삼대봉에 장뇌 산삼을 많이 심어 놨다가 때가 되면 캐다가 바쳤다.

● 살개바우

삼대봉 왼쪽 산능선에 있다. 이곳에는 산마루에 바위 절벽이 험하게 솟아 있는데 바위 두개가 방아 살개(다리) 처럼 양쪽에 솟아 있기에 살개바우라 한다. 살개바우 근방에도 산삼이 많이 발견되나 예전에 그곳에 호랑이가 새끼 치며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하지 않는 곳이었다.

● 살개바우등

살개바우가 있는 산등을 이르는 말이다.

● 시무대산(矢武臺山)

심우대골 끝에 있는 산으로 삼대봉이나 살개바우가 있는 산으로 추정된다. 도릉장(桃陵章)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으나 심의승의 삼척군지에 나타나는 이름이다. 심우대골의 심우대가 소리

나는데로 시무대가 되고 그것을 한자로 쓰면서 시무대산(矢武臺山)이라고 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 너레물

심푸대골 어귀를 지나 큰골로 들어가다가 하천가에 있다. 조탄에는 물이 귀한 동네라서 어디에고 물이 나오면 반기고 중요하게 여긴다. 너레물은 넓은 너레반석(너럭반석) 위에 토판(土板)이 여러겹 쌓여 있는데 그 토판 사이로 물이 흘러 나온다.

너레반석 위로 물이 나온다고 너레물이라 한다.

● 샛골

너레물을 지나 올라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절골과 작은 절골 사이에 있다고 샛골이다.

● 쇠바우등

넘은골 윗쪽의 산등에 있다. 커다란 바위에 쇠 성분이 많아 쇠바우라 하고 그 바위가 있는 산등을 쇠바우등이라 한다.

● 오랑캐판등

넘은골과 샛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탄 마을에 장수가 난다고 해서 오랑캐들이 장수가 나지 못하게 혈을 지르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중국의 이여송이가 산맥을 끊기 위해 그리했다고 하며 그곳 산등에 오랑캐가 판 구덩이가 있으므로 그곳을 오랑캐판등이라고 한다. 지금도 움푹한 구덩이가 남아 있다.

● 상산재

너레물을 지나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산등에 있다. 살개바우와 삼대봉 사이로 올라가는 고개로 상당히 가파르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재라고 상산재이다.

● 떼밭머리

상산재로 가는 골짜기를 지나 올라가서 왼쪽에 있는 산등이다. 그곳에 떼가 많이 자라 떼밭을 이루기에 떼밭머리라고 한다. 오고가는 나뭇꾼들이 지게를 고아 놓고 쉬는 자리이다.

● 작은 절골

샛골 어귀를 지나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안에 작은 암자가 있었기에 절골이라 했는데 넘은골에 있는 절은 큰절이고 이곳의 절은 작기에 작은 절골이라 한다.

● 솔봉(松峯)

작은 절골 끝에 있는 봉우리이다. 봉우리 근처에 소나무가 울창하기에 솔봉이라 한다. 솔봉을 청송봉(靑松峯)이라고도 한다.

● 청송봉 → 솔봉

● 산제골

작은 절골과 가래장골 중간에서 도랑 건너 왼쪽에 삼대봉 방향으로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에서 조탄 주민들이 산메기를 많이 하였으므로 산제골이라 한다.

● 숯꾸배기

산제골 어귀를 지나 왼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 골짜기 안에서 숯을 꾸웠기에 숯꾸배기라 한다.

● 가래장골

작은 절골 어귀를 지나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뻗어 올라가서는 세가닥으로 갈라지는데 흡사 거름가래 처럼 생겨서 가래장골이라 한다고 하며 또는 가래나무가 많아서 가래장골이라 한다고 한다.

● 느뱅이골

느뱅이로 가는 골짜기로 숯꾸배기 지나 왼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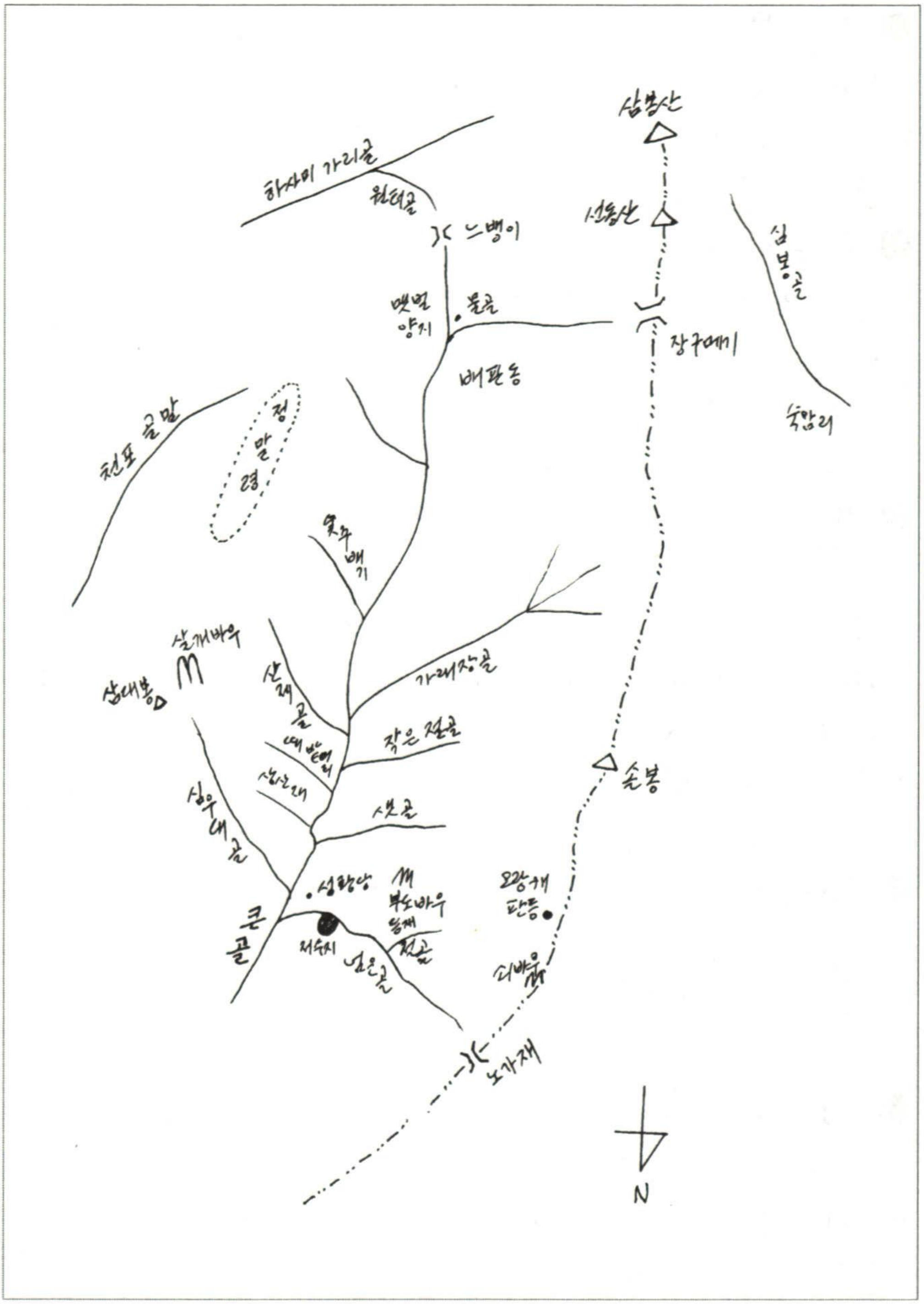
● 느뱅이

조탄에서 하사미의 가리골로 넘어 가는 고개이다. 산등을 넘어 간다고 느뱅이라고 한다. 가리골의 원터골과 새너레마골로 넘어 가는 고갯길이다.

● 물굴

느뱅이골 어귀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물이 흘러 나오는 석회 동굴이 있는데 물굴이라 한다. 이 동굴에서 나오는 물을 막아 조탄 주민들의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물이 나오는 동굴이라고 물굴이라 한다.


삼봉산
선동산
장구매기
실보골
숙암리
하사이 가리골
원터골
느뱅이
맷멀 양지
물골
배판등
천포골말
정말령
옻우매기
살개바우
상대봉
살래골
대밭멜
상우대골
가래장골
작은절골
샛골
손봉
성황당
개부도바우 등제
큰골
제수지
오광개 단등
소바우봉
소가재
N

● 제당앞

물굴이 있는 부근을 제당앞이라 한다. 물굴 윗쪽이 제당깨인데 그 제당 앞이라고 제당앞이라 한다.

● 제당깨

물굴 윗쪽 나무가 있는 언덕이다. 그곳에는 산제당이 있는데 조탄 사람들이 매년 4월 초8일에 이곳에 와서 밥을 해서 산맥이를 하는 곳이다. 언덕에 나무가 몇그루 있다.

● 배판골

물굴 오른쪽 장구메기로 가는 산비탈에 있다.

옛날 조탄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곳에서 처음 개척하여 살면서 씨족을 퍼뜨렸다 고 배판골(配判洞)이라 한다. 다른 곳에는 물이 귀하고 이곳에서는 물굴에서 물이 나와서 사람 살만한 곳이라고 여겼다.

● 맷벌양지

물굴을 지나 왼쪽 산등이다. 옛날 그곳에서 매 사냥꾼이 매를 날려 꿩을 잡던 곳이라 한다.

● 장구메기

물굴에서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를 올라가서 있는 고개이다. 숙암리의 심봉골로 넘어 가는 고개이다. 고개 양쪽에 산봉우리가 솟아 있어 흡사 장구의 목 처럼 생겨 장구목이가 장구메기로 변했다.

● 선동산(仙童山)

장구메기 윗쪽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천년 묵은 동자 삼이 신선동자로 변해 자주 나타나는 산이라고 해서 선동산(仙童山)이라 한다고 한다.

● 구렁텅이 들

조탄 마을에서 동쪽 방향으로 오른쪽 산 밑에 있는 넓은 들이다. 산 밑의 구렁텅이에 있다고 구렁텅이들이라 고 한다.

조탄은 물이 귀한 동네이지만 구렁텅이들에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구렁텅이들을 구렁텅이버덩이라고도 한다.

● 구렁텅이버덩 → 구렁텅이들

● 사궁대(射弓臺)

옛날 어느 때인지는 몰라도 구렁텅이 버덩에 활 쏘는 곳이 있었다고 하며 사궁대라 고 한다. 광동호의 고개안 산등에 성터가 있고 아홉구미에도 성터가 있는 것으로 봐서 조탄에서도 군사 조련으로 활 쏘는 곳이 있었지 않았나 한다. 구렁텅이 버덩은 웃버덩까지 이어져 약 900m의 길이를 가진 들이다.

● 작은 주머니밭골

구렁텅이들에서 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생긴 것이 옛날 차고 다니던 주머니 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머니밭골이라 한다. 작은 주머니 밭골에는 산제당과 석회동굴이있다.

● 산제당

작은 주머니밭골 안쪽에 있다. 조탄 사람들이 산매기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작은 당집이 있고 그 앞에 샘이 있다. 예로부터 아들을 낳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 하였는데 매년 4월 초8일에 마을 사람들이 제사한다.

● 주머니밭골굴

산제당에서 20여m 올라가면 있는 석회동굴이다.

굴이 아래로 발달하여 10여m 내려가면 물이 차 있고 그 다음부터는 수평으로 들어 가는데 나무 다리를 놓고 건너 간다고 하며 굴이 2중 굴로 되어 있고 천장에는 석순이 많은데 비해 아래는 물이 많은 굴이다. 난리 때 피난도 하고 굴속에서 도를 닦기도 한다고 한다.

● 큰 주머니밭골

작은 주머니밭골 어귀를 지나 동쪽으로 좀 더 가서 오른쪽 산 밑에 있다. 작은 주머니밭골 보다 크다고 큰 주머니밭골이라 한다.

● 웃버덩

구렁텅이버덩에서 동쪽으로 가서 35번 국도 건너편 동쪽땅이다. 조탄 마을에서 상류에 있는 들이라서 웃버덩이라 고 한다. 웃버덩을 웃버덩들이라고 하기도 한다.

● 웃버덩들 → 웃버덩

● 휘꾸모랭이

천포와의 경계 지점의 산 모랭이에 있다.
산모랭이가 휙 돌아 간다고 휘꾸모랭이라고 한다.

● 선동네뫼등

휘꾸모랭이 오른쪽에 있는 산등이다. 그 곳에 선동네라고 하는 사람의 묘가 있는 산등이라서 선동네뫼등이라 고 한다.

● 개무덤

선동네뫼등 윗쪽에 있다. 옛날 구렁텅이버덩에 살던 여인이 남의 집 밭에 무우를 훔치러 갔다가 호랑이에 물려가 잡아 먹혔는데 머리만 남았다고 한다. 그 머리를 발견한 곳에서 화장을 하고 돌무덤을 쌓고 시루를 엎어 놓고 가락꽂이를 꽂아 두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무덤을 개무덤이라고 부른다. 호랑이는 개를 잡아 먹으니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도 그와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호환의 고리를 끊는다고 믿는다.

● 선조산(仙助山)

선동네뫼등 윗쪽의 높은 산봉우리이다. 옛날 조탄 사람들이 나라에 산삼을 바치기 위해 온 산천을 헤매며 산삼을 캐려고 노력 할 때 이곳 선조산에서 신선의 도움으로 산삼을 캤다고 하여 선조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지르매재

웃버덩 건너편 동쪽 산등에 있다. 그리로 넘어가면 하사미의 귀네미골 약물래기 근처로 넘어 간다. 고개가 소의 지르매(길마) 처럼 잘속하게 생겨서 지르매재라 한다.

● 큰 벼락바우골

지르매재 어귀에서 아랫쪽으로 내려 오면 대리석 광산이 있는 곳에 있다. 벼락바우라는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있다하여 큰 벼락바우골이라 한다.

● 벼락바우

지금 대리석 광산이 있는 곳에 있었다. 옛날에 그 바위에 벼락이 가끔 쳤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 바위 아래에 석회석 광산이 들어서서 그 바위를 폭약으로 발파하니 천둥 벼락을 치는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조탄 사람들은 벼락바우라는 말이 허명이 아니였다며 신기해 한다.

지금은 벼락바우를 발파하여 흔적도 없으며 계속 그 바위가 있던 산을 발파하여 석회석을 캐내고 있다.

● 작은 벼락바우

큰 벼락바우 아랫쪽에 있다.

● 역김이골

웃버덩에서 하천 건너편 북쪽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안쪽에 역승(驛丞) 벼슬을 한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성이 김씨이다. 그래서 역승 벼슬 한 김씨네 묘가 있는 골짜기라서

역김이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고무훌치기

역김이골 어귀 왼쪽에 있다. 그곳에 묘가 많고 산줄기가 움푹하여 양지 바르게 생겼다. 옛날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갑자기 곰을 만났는데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고 죽은 척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곰이 다가와 그 억센 혓바닥으로 그 사람의 등짝과 머리 등을 핥다가 그 사람의 얼굴 뺨을 썩 핥아 버렸다. 그 바람에 뺨의 살이 달아났다. 그래도 죽은 척 있으니 곰은 가버렸고 그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집으로 왔다.

그러나 곰이 뺨을 핥는 바람에 뺨의 살이 없어져 이가 드러나고 얼굴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래서 살이 없어진 뺨을 가리기 위해 기름종이를 항상 얼굴에 붙이고 다녔다고 한다. 기름종이를 얼굴에 붙이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늘날의 거즈를 화상(火傷)에 붙이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한다.

어쨌거나 그 사람이 죽게 되어 역김이골 어귀에 묘를 썼는데 그 일대를 고무훌치기라 한다.

곰이 혀로 얼굴을 핥는 바람에 생긴 변고라 하여 고무훌치기라 하게 되었고 핥다→훑다→훌치다 등으로 변해 고무훌치기가 된 것이다.

● 동산터미

역김이골로 들어가서 왼쪽 산등에 있다. 이곳은 조탄 마을에서 바라보면 동쪽에 해당하는 산등이기에 동산터미라 한다. 동산터미에는 묘가 많다.

● 더트매골

역김이골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그 골짜기 안에 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많이 설치해 놨었기에 덫매골이던 것이 더트매골로 변했다.

● 새별양지

더트매골 어귀를 지나 왼쪽 산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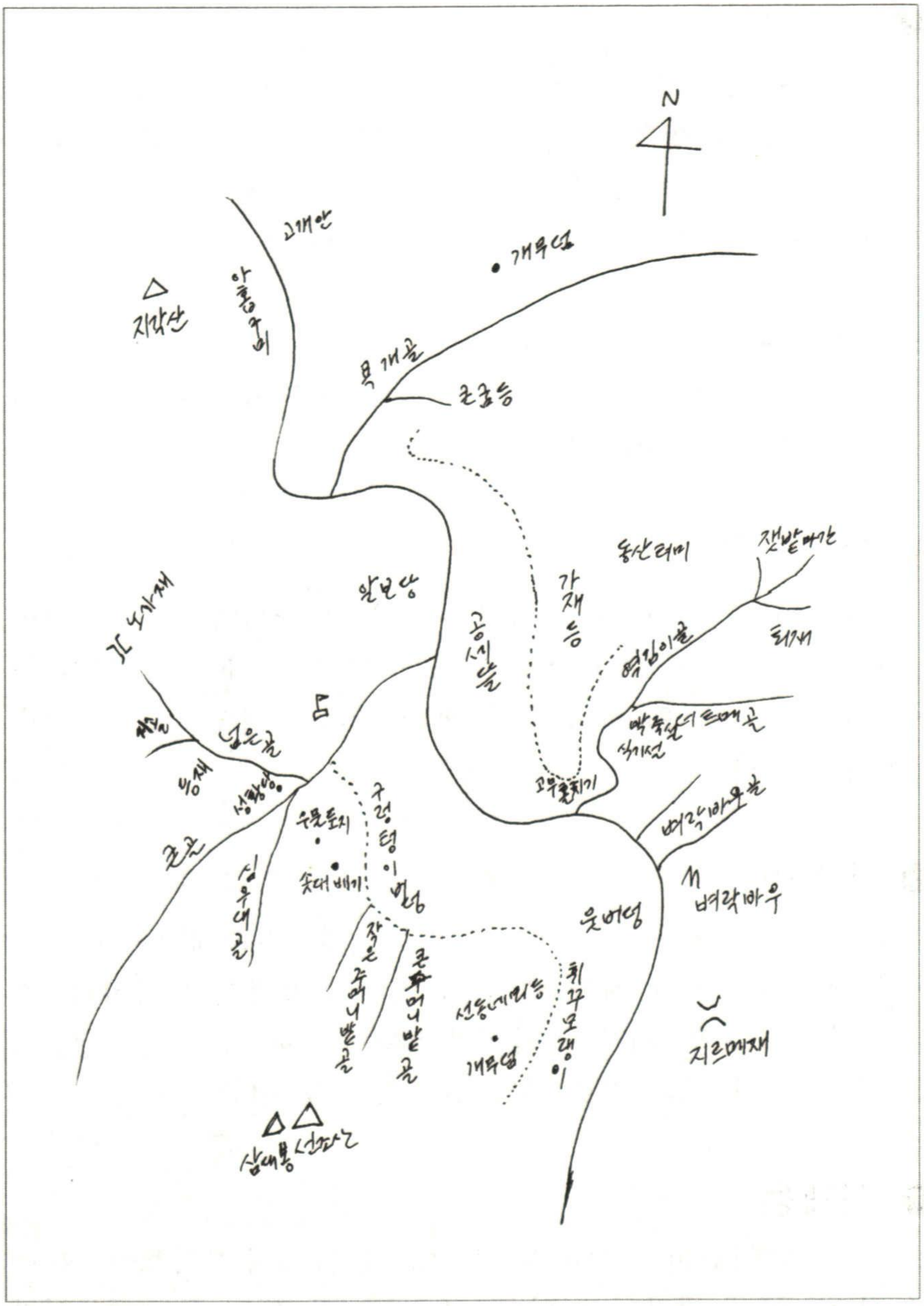
그곳은 남향으로 아주 양지 바르고 억새풀이 많이 자라기에 새별양지라 한다. 새벌양지가 새별양지로 변하였다.

● 퇴재

더트매골 어귀를 지나 좀 더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골짜기로 올라가면 있다. 퇴재를 넘어가면 가리골의 약수둔지와 두터부골로 넘어 갈 수 있다. 고개가 하도 가파르고 높아 뒷간에서 볼일 볼 때 힘주는 것 보다 힘들다고 하여 퇴재라고 한다. 퇴라고 하는 것은 뒷간을 이르는 말이다.

● 식기설(食器穴)

김씨네가 묘를 쓴 곳으로 역김이골 안에 있다. 풍수학적으로 밥을 담은 식기(食器) 처럼 생긴 명당이라 하여 식기혈(食器穴)이라 하였다. 방언에 혈(穴)을 설이라고 발음하는데서 식기혈이 식기설로 변했다.


N
고개안
개목대
아홉구비
지갑산
복개골
큰골등
동산터미
잿밭매산
갓재등
왕보당
공시골
도사재
넓은골
구덩이벌
우물토지
숯대베기
큰무너밭골
선등대미등
개목덤
취꼬랑이
벼락바우
지르메재
삼대봉
신선봉

● 박죽설

신씨네가 묘를 쓴 곳으로 역김이골 안에 있다.

풍수학적으로 밥주걱 처럼 생긴 명당이라 하여 밥주걱혈인데, 이 지방 방언으로 밥주걱을 박죽이라고 하고 혈(穴)이 설로 발음 되어 박죽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김씨네가 먼저 식기혈에 묘를 쓰고 밥주걱혈은 비어 있었는데 신씨네가 묘를 쓴 것이다.

식기가 있으면 그 식기에 밥을 퍼 담으려면 밥주걱이 있어야 되는 것이 풍수학의 이치이다.

● 굴뚝무지

퇴재 어귀를 지나 올라 가다가 왼쪽 산중턱에 있는 석회동굴이다. 석회동굴이 수직으로 되었는데 겨울철에 굴 속에서 김이 무럭무럭 나오는 것이 흡사 굴뚝 같다고 하여 이곳을 굴뚝무지라고 한다.

● 잿밭마간

역김이골 끝에 있다. 골짜기 끝 산등에 재(고개)가 있고 그곳에 예전 화전농사 지을 때 밭이 있어서 잿밭이라 하였다. 잿밭 마간을 넘으면 하사미 귀네미골의 두터부골로 갈 수 있다. 마간은 막장과 같은 말로 가장 안쪽이란 뜻이다.

● 가재등

공세뜰과 역김이골 사이의 산등에 있다. 풍수학적으로 그 곳에 가재형국의 명당이 있다고 해서 그 산 언덕을 가재등이라

한다. 가재등에 올라가면 커다란 돌리네(Doline)가 형성되어 있고 그 안쪽에 묘가 있다. 돌리네는 밭으로 이용된다.

● 공세뜰(公稅坪)

조탄 마을 학교 앞의 하천 건너에 있는 넓은 들이다. 조탄의 지명이 나오게 한 들로서, 예전에 정전법(井田法) 시행 때 공전(公田)으로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곳에서 소출 되는 곡식을 세금으로 바쳤었다. 그래서 공세전(公稅田) 또는 공세뜰(公稅坪)이라 고 하였고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 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탄에는 하천의 물이 말라서 항상 건천(乾川)이 되어 있어야 농사가 잘 되고 하천에 물이 내려오면 농사가 안된다고 한다. 하천에 물이 자주 흘러가면 시절이 좋지 않고 곡식이 잘 여물지 않는다 고 한다.

● 욕개골

삼척시 하장면과의 경계 지점에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골짜기 끝은 하사미 귀네미골로 넘어간다. 골짜기 안에 물이 흘러 여름에 목욕하기 좋은 골짜기라서 욕개골이라 한다고 한다.

● 큰굼등

욕개골 오른쪽 산등에 큰 굼이 형성 되어 있는데 그 곳에 커다란 돌리네(Doline)가 있어 우묵하다.

● 개무덤

욕개골 왼쪽 산등에 있다. 예전에 호랑이에게 물려가 잡아

먹힌 사람의 무덤이다.

● 지각산(地角山)

알버덩 아랫쪽 광동호 서쪽에 솟은 산이다.

하장면 숙암리에 있는 산이지만 조탄과 가까워 영향이 있는 산이고 도릉장에 나오기에 기술한다.

지각산은 바위산이 불쑥 솟아 흡사 소의 뿔 처럼 생겨서 지각산이라 한다. 지각산을 여인에 비유하고 고개안 산을 남근에 비유하는 풍수설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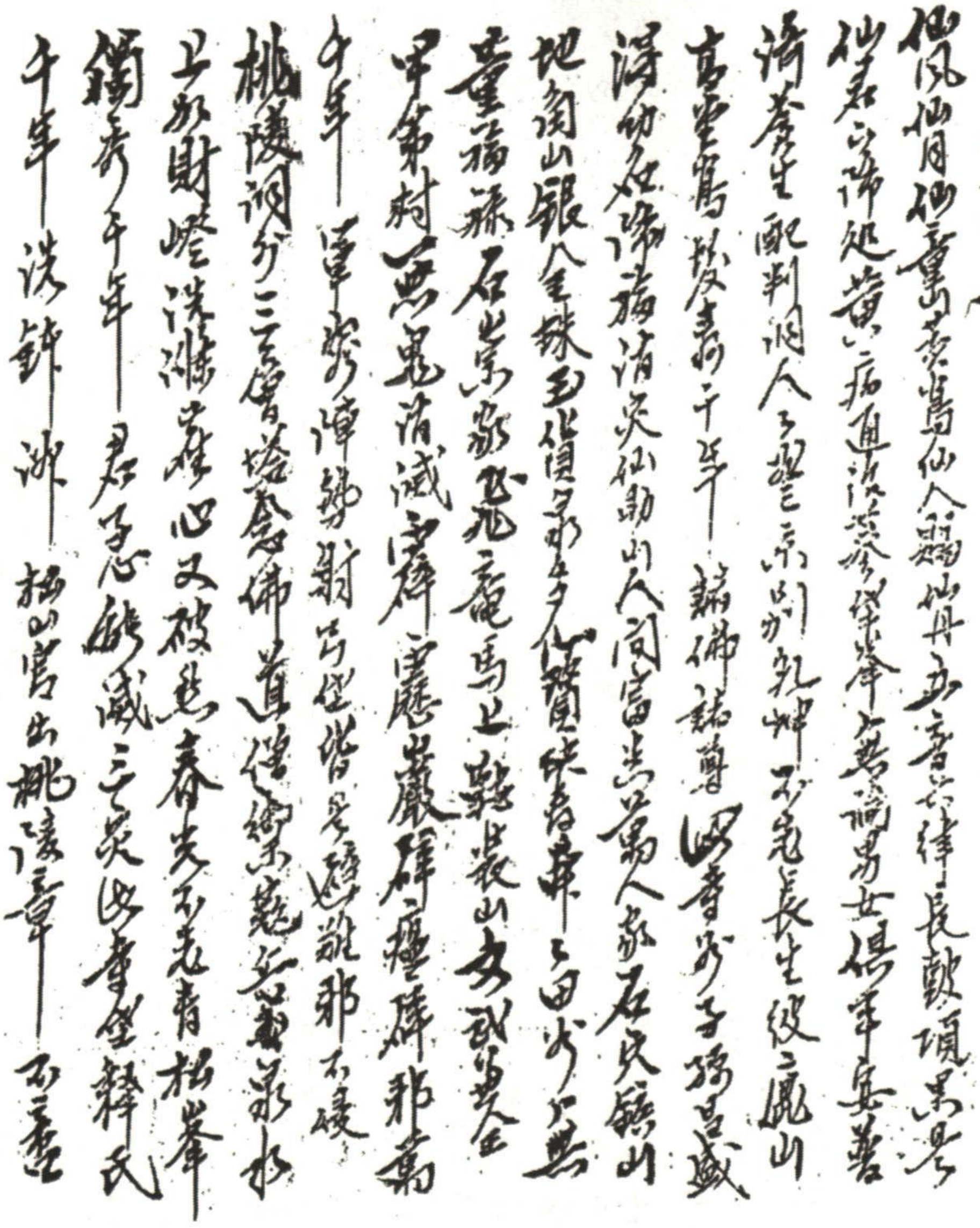
● 아홉구미

지각산 동쪽 기슭에 있다. 조탄과 경계를 이루는 곳인데 땅이 쑥 꺼져 내려간 돌리네(Doline)가 9개 있으므로 아홉구미라고 한다. 개중에는 옛날 금을 캐기 위해 판 구덩이도 있다고 하는데 구덩이가 많아 분간이 안된다. 구덩이가 큰 것은 지름이 100여m 정도 되고 보통 몇 십m는 다 된다.

● 도릉장(桃陵章)

조탄에 사는 신씨(辛氏)네 집안에 전해오는 문건으로 조탄 마을의 지명(地名)을 가지고 칠언시(七言詩)로 지은 문장이다. 본래의 지명을 한자로 바꾸어 나름대로 고향을 미화 시키고자 하는 선비의 뜻이 담겨 있는 글이다. 도릉장(桃陵章)이란 것은 조탄(助呑)의 별명인 도릉골((桃陵谷)에서 취한 도릉(桃陵)으로 도릉의 지명을 노래한 문장(文章)이란 뜻이다. 송산(松山)이란 아호를 가진 사람이 본래에 있던 도릉장을 베꼈다고 기록이

되어있다. 물론 본래의 지명과는 동떨어진 내용이 더러 있으나 이 또한 옛 사람들의 전래된 글이기에 여기에 싣는다.


桃陵章

도릉장

桃陵章
도 릉 장

仙風仙月仙童山 黃鶴仙人 賜仙丹
선 풍 선 월 선 동 산 황 학 선 인 사 선 단

五音六律 長鼓項 果是仙君 下降處
오 음 육 률 장 고 항 과 시 선 군 하 강 처

黃病通治 蔘垈峯 無論男女 俱平安
황 병 통 치 삼 대 봉 무 논 남 녀 구 평 안

普濟蒼生 配判洞 人人豊樂 別乾坤
보 제 창 생 배 판 동 인 인 풍 락 별 건 곤

不老長生 彼鹿山 高堂鶴髮 壽千年
불 노 장 생 피 록 산 고 당 학 발 수 천 년

諸佛諸尊 此寺谷 子孫昌盛 得功名
제 불 제 존 차 사 곡 자 손 창 성 득 공 명

降福消災 仙助山 人間富貴 萬人家
강 복 소 재 선 조 산 인 간 부 귀 만 인 가

石穴鑛山 地角山 銀金珠玉 貨泉多
석 혈 광 산 지 각 산 은 금 주 옥 화 천 다

寶玦靑囊 囊田谷 無量福祿 石崇家
보 결 청 낭 낭 전 곡 무 량 복 록 석 숭 가

飛龍馬上 鞍裝山 文武兼全 甲第村
비 룡 마 상 안 장 산 문 무 겸 전 갑 제 촌

惡鬼消滅 霹靂巖 辟瘟辟邪 萬千年
악 귀 소 멸 벽 력 암 벽 온 벽 사 만 천 년

軍容陣勢 射弓垈 皆是避難 邪不侵
군 용 진 세 사 궁 대 개 시 피 난 사 불 침

桃陵洞前 三層塔 念佛道僧 禦寇兵
도 릉 동 전 삼 층 탑 염 불 도 승 어 구 병

玉泉水上 加財嶝 洗滌塵心 又破愁
옥 천 수 상 가 재 등 세 척 진 심 우 파 수

春光不老 靑松峯 獨秀千年 君子心
춘 광 불 노 청 송 봉 독 수 천 년 군 자 심

能滅三災 此寺垈 釋氏千年 洗鉢洲
능 멸 삼 재 차 사 대 석 씨 천 년 세 발 주

松山 寫出 桃陵章 不啻
송 산 사 출 도 릉 장 불 시

桃陵章
도릉을 노래하는 글

仙風仙月　仙童山　黃鶴仙人　賜仙丹
· 선풍선월의 선동산은 황학선인이 선단을 내려주시고

五音六律　長鼓項　果是仙君　下降處
· 오음과 육률의 장구목은 과시 신선이 하강한 곳이로세

黃病通治　蔘坐峯　無論男女　俱平安
· 만병통치 하는 삼대봉은 남녀 물론 다 평안하고

普濟蒼生　配判洞　人人豊樂　別乾坤
· 널리 백성을 구제할 배판동은 사람마다 풍요안락한 별천지요

不老長生　彼鹿山 高堂鶴髮　壽千年
· 불노장생의 피록산은 노 부모님이 천년을 사시게 하고

諸佛諸尊　此寺谷　子孫昌盛　得功名
· 모든 부처와 존성이 절골에는 자손이 창성하고 공명을 얻으리다

降福消災　仙助山　人間富貴　萬人家
· 복을 내리고 재앙을 소멸 시키는 선조산은 만인가에 부귀를 주고

石穴鑛山 地角山　銀金珠玉　貨泉多
· 돌굴의 광산 지각산은 은금주옥이 샘처럼 솟아오르고

寶玦靑囊　囊田谷　　無量福祿　　石崇家
· 보배로운 책을 넣는 푸른 주머니의 주머니밭골은 복록이 무량한 석숭의 집안이라

飛龍馬上　鞍裝山　　文武兼全　　甲第村
· 용마가 날아오르는 안장산은 문무겸전한 장원 급제 마을이라

惡鬼消滅　霹靂巖　　辟瘟辟邪　　萬千年
· 악귀를 소멸시키는 벼락바위는 염병과 사악함을 물리치기 만천년이라

軍容陣勢　射弓坐　　皆是避難　　邪不侵
· 군사들이 진치던 사궁대는 피난하기 좋아 사악함이 침범치 못하고

桃陵洞前　三層塔　　念佛道僧　　禦寇兵
· 도릉동 앞에 삼층탑은 염불하는 도승이 왜병을 막아주는데

玉泉水上　加財嶝　　洗滌塵心　　又破愁
· 맑은 물 위의 가재등은 티끌 묻은 마음을 씻어주고 근심 또한 없애주네

春光不老　靑松峯　　獨秀千年　　君子心
· 봄볕에도 늙지 않는 청송봉은 홀로 천년을 빼어나는 군자의 마음이라

能滅三災　此寺坐　　釋氏千年　　洗鉢洲
· 능히 삼재를 멸하는 절터는 부처님 바릿대를 천년동안 씻어주네

松山　寫出　桃陵章　不啻
송산 베껴내다. 도릉장 뿐만아니라

태백시는 이런 모습?

글 : 김 강 산

우리나라 국토의 지도를 놓고 우리는 호랑이 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은 토끼 처럼 생겼다고 하고 중국사람들은 뽕잎을 갉아 먹는 누에 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태백시 지도는 무엇 처럼 생겼을까?

나는 태백시의 지도를 놓고 유심히 관찰한 결과 글 읽는 선비를 닮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태백시 지도를 보고 글 읽는 선비 그림을 그려 보았다.

선비정신은 그 사회의 양심이고 지성이며 인격의 기준으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생명의 원동력인 원기(元氣)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선비는 각 시대의 지도적 역할을 하는 지성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해 왔으며, 현실적,감각적 욕구나 세속적 부와 귀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하여 상승하기를 추구하는 가치의식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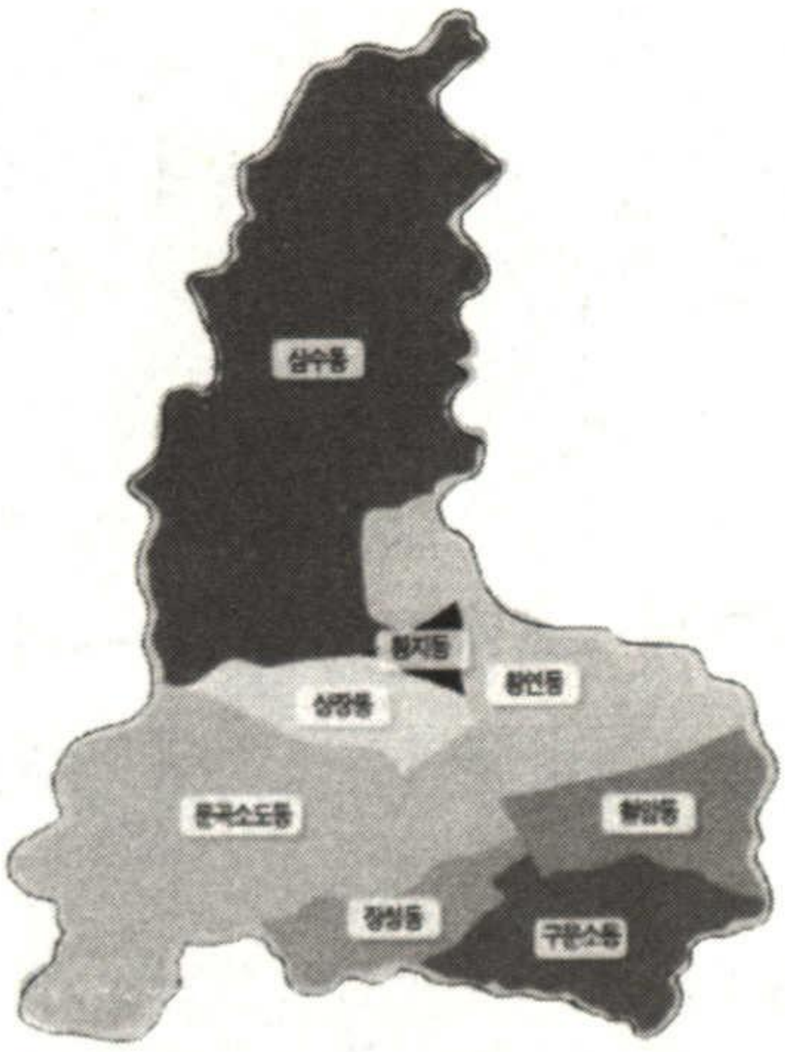
선비는 신분적 존재가 아니라 인격의 모범이요, 그 시대사회의 양심으로써 인간의 도덕성을 개인의 내면에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확립하려는 원류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세속적 가치를 인간의 욕망이 지향하는 이익이라고 본다면, 선비가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성품에 내재된 의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비정신은 변하지 않고 굽히지 않은 의리정신으로 표현되는 강인함이 있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외침이 있을 때 침략자를 불의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의리에 따라 죽음도 불사하며 최후까지 항거하였던 것이다.

선비의 청렴함은 물욕을 멀리함이며 자연을 사랑함이며 순리에 따라 삶이며 고절한 기개는 우리들의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이러한 정신세계를 간직한 선비가 글을 읽는 모습인 태백시의 형상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



색 인

(ㄱ)

가달밭굼 35
가덕 66
가덕골 70
가덕산 67
가래장골 206
가름매기 33
가리골 134
가리골재 64
가리골재 141
가리마골 51
가마쏘 50
가매후미 149
가매후미골 148
가산등 197
가재등 216
갈미바우 86
갈번지 72
개구리늪 121
개금둔지 162
개무덤 211
개무덤 217
거리밭 104
거무산 92
거북늪 171
건늪통 141
건의령 101
건의령당 102
검은산 92
게늪 100
게형국묘 101
고려장터 88
고려장터 90
고무구녕 145
고무구멍깨 51
고무덕 71
고무덕골 71
고무실 111
고무실골 112
고무진골 31
고무홀치기 213
고사리밭재 185
고직이재 87
고총메기 135
고패이골 32
골말 186
골양지 158
골양지 189
곰구녕 147
곱사밭골 157
곳집 52
곳집 모랭이 52
곳집 모팅이 53
곳집골 91
곳집깨 52
곳집터 91
공세풀 217
괴비밭굼 152
구녕바우 183
구렁텅이 들 209
구렁텅이버덩 209
구멍바우 183
구멍바우쏘 183
구부시령 167
구이쏘 135
국수댕이 41
국시댕이 151
국시댕이 174
국시당 58
국시당 113
굴등 148
굴뚝굴 95
굴뚝무지 216
굴뚝쏘 43
굴뚝쏘깨 43
굴물 28
굴물 59
굴물깨 59
굴안 142
굼무골 197
귀네미골 173
귀병 172
금구뎅이 190
금밭등 55
기미쏘 108
깨나무골 89
꼬막등 180

꽃밭등 75

(ㄴ)

남애번지 118
납닥소나무 54
너래폭포 122
너레골 70
너레마골 146
너레물 204
널문재 40
넘은골 198
노가재 197
노장골 66
노장골 90
논깨 67
논깨 188
농바우 161
농바우 164
농바우 176
누룩바우 39
누룩바우 58
느릅나무골 55
느뱅이 206
느뱅이골 206
능금나무깨 45
늦은목이 161
늪깨 188
늪물 87
늪통 140
늪통골 140
늪통매기 51
늪통목이 162
늪펄 105

(ㄷ)

다래미눈물재 166
달밭 106
달밭굼 51
달밭나들 106
달밭늪 107
담많은 밭골 55
담시밭골 112
당목이 144
당목이 거랑 144
대기 27
대기촌 27
대덕산 35
대밭골 46
대밭골 151
대장멧골 115
대추골 169
더트매골 214
덕말재 181
덕메기 169
덕새 134
덕시 159
덕항산 169
뎔수길 69
뎟목이 119
도꾸번디기 49
도둑바우 103
도룡골 46
도룡골 양지 46
도룡골 195
도룡분교터 197
도룡사탑 196
도룡장 218
도마직골 124
도장골 138
도장바우 180
도장바우굴 180
독밑등 47
독바우 186
돌개쏘 154
돌모랭이 97
돌모랭이 173
동배나무굼 56
동산고디 110
동산터미 213
돛대바우 85
된양지 29
두터부골 175
둘밭 104
둘밭골 105
뒷골 88
뒷골 126
뒷골 161
등재 201
디디기벌 99
떼밭머리 205

(ㅁ)

막조밭굼 35
만경대 153
말좃밭굼 35
매골 179
맷돌바우 58

맷등 109
맷벌양지 123
맷벌양지 208
맹골 54
머리등 113
멧골 126
멧벌 54
면산 114
면산골 127
명주목이 149
모래등 113
목넘이 109
목상집터 121
무사골 171
무사동 171
무쇠골 170
묵뫼깨 97
문안거랑 108
문안골 108
문안등 107
물골 181
물굴 119
물굴 206
물나오는 담 123
물바우 123
물방아골 156
물방아던티 139
물숨깨 115
물통방아터 122
미네골 71
미덕 72
미덕산 72
미동초등학교 68
미모랭이 53

(ㅂ)

바람골 159
바른골 31
바른골 181
박죽설 216
밤밭재 103
방아폭포 122
배나무골 89
배나무골 138
배나무쟁이 174
배재 40
배판골 208
배형국묘 100
뱀죽은 집터 124
번더구니 152
벼락고디 127
벼락바우 212
벼루쏘 106
복쿠쏘 70
봉태미골 135
부도바우 200
부자터 199
부정당 98
부정당 99
부처바우 157
빈집골 154
뼝깨도리 190
뼝뒤 190
뼝때 145
뼝때깨 74
뼝때밑 117

(ㅅ)

사 조 동 19
사궁대 209
사미창터 84
사슴매기굴 92
사슴매기등 91
사조동사무소 115
사태굼 148
산령각터 143
산작골 60
산제골 205
산제당 157
산제당 210
산제당골 55
산제당골 147
산제당골 159
산제당골 164
산제당골 169
산제등 146
산제딩이 147
살개목 64
살개바우 203
살개바우등 203
살개봉 139
살구나무골 120

삼 수 동 21
삼굿깨 69
삼대봉 203
삼마골 105
삼밭 105
삼밭골 114
삼밭골 서낭당 115
삼봉 151
삼봉산 150
삼천이밭골 163
삿갓봉 48
삿갓봉 64
삿갓봉 120
삿갓봉 161
삿갓봉 167
상사고디 171
상사미 81
상사미 가압장 117
상산재 205
상촌 76
상촌 157
새걸양지 135
새걸양지 137
새걸양지 꼭대기 137
새구녕 145
새굴 29
새굴 178
새너레마골 146
새덕 28
새덕골 29
새마을 63
새목이 116
새목이 166
새목이등강 98
새물내기 153
새물래기 163
새물웅덩이깨 45
새미 87
새별양지 214
샘깨 164
샘깨 185
샘깨골 185
샛골 31
샛골 123
샛골 178
샛골 204
샛귀네미골 178
샛벌 67
서낭골 64
서낭골 137
서낭골 159
서낭당 30
서낭당 43
서낭당 59
서낭당 110
서낭당 124
서낭당 137
서낭당 146
서낭당 155
서낭당 186
서낭당터 89
서낭뒤 156
서낭뒷골 43
서낭뒷골 124
서낭등 45
서낭딩이 155
서낭뜨렁 173
서낭목이 188
서낭터 45
서낭터 152
서창 85
석이바우 156
석이바우골 156
선동네뫼등 211
선동산 209
선동재 48
선바우 43
선조산 211
설대 47
설대밑 47
설대밑골 47
설통바우 30
성터 105
성황당 200
소늪 73
소바우 122
속새골 39
속새등 141
솔머리 양지 47
솔목이 121
솔밭밑 61
솔봉 205
솟대배기 202

송정촌 167
송촌 168
쇠바우등 204
쇳구뎅이 76
수리병 61
수리병장등 61
수리봉 46
수통굼 142
숫물 126
숫골 138
숫굽배기 103
숫꾸굼 49
숫꾸배기 111
숫꾸배기 120
숫꾸배기 206
쉰패랭이 구뎅이 56
쉰패랭이 구뎅이 112
쉰패랭이굴 113
시굿배기 120
시굿배기 176
시도말재 116
시루봉 153
시무대산 203
식기설 214
신거터 155
신선바우 127
신전촌 155
심밭골 158
심봉 151
심우대골 202
심춘우밭다물 166
심푸대골 202
싸리덕 71
쏘깨 117
쏘머리양지 50

(ㅇ)

아래벌받골 147
아랫가매후미 151
아랫말 138
아랫버덩 184
아흡구미 218
안늪통 141
안동밭굼 152
안둘밭 105
알버덩 196
알보당 195
알보당 저수지 198
암물 126
암작골 59
앞귀병산 172
앞산 108
앞선동 60
약물래기 39
약물래기 88
약물래기 175
약수둔지 175
양바리밭굼 166
어리동재 48
역김이골 212
연자귀 41
연자방아터 184
연작골 41
연통굴 36
열녀바우 110
영감바우 149
예수원 163
오꼬리굴 90
오랑캐판등 204
오목골 162
오소리굴 90
옻물 143
옻샘 140
왜쌈모랭이 93
왜쌈모테 94
왜쌈모퉁이 94
외갈나무골 109
외갈나무쟁이 109
외갈나무터 109
외나무골 162
육개골 217
용수골 재 52
용추메기 180
용혈 142
용혈폭포 143
우물둔지 201
우이곡 174
우이령 181
울둔 40
울둔골 29
울둔재 41
웃가매후미 150

웃둘밭 104
웃말 158
웃버덩 185
웃버덩 210
웃버덩들 210
웃벌받골 147
원골 42
원골재 51
원골재 153
원동 25
원동 무후제 78
원동목이 141
원동목이골 141
원동수원지 69
원동재 153
원터골 146
월둔 30
월둔골 29
월둔동굴 31
은골 139
음달산 72
의병뫼깨 94
이르석이 189
이심이굴 144
일정골 65
임금정 45
임무소깨 95

(ㅈ)

자매바우거리 184
자암재 179
자암재골 179
자작정이 164
작은 너다리골 137
작은 노장골 66
작은 다래골 62
작은 맷골 38
작은 맷등 38
작은 물방아골 116
작은 벼락바우 212
작은 속새골 39
작은 수리병골 61
작은 일정골 65
작은 장학골 38
작은 절골 205
작은 주머니밭골 209
작은 통골 36
작은가래골 168
작은갈밭골 119
작은굼 186
작은등 92
작은샛골 178
작은재피골 48
작은조리골 145
잘매바우거리 184
장구메기 208
장군바우 92
장군석 186
장병 142
장사미 85
장승백이 162
장자터 188
장학골 38
재마을 62
재마을골 63
재삼밭굼 163
재피골 65
재피골 123
재피골 155
잿밭마간 216
전나무 배기 63
전나무골 154
절골 121
절골 175
절골 199
절터 30
절터 127
절터 145
절터 176
절터 199
절터굼 145
점말 133
점촌 133
점터 69

점터 75
점터 133
점터 147
점터거리 117
점터거리 133
정말령 189
정승고디 108
정승터 107
정치맞골 39
제당깨 208
제당앞 208
조 탄 193
조개등 34
조개바우 34
조개번지 34
조개장터 34
조리골 140
조탄동 전나무 201
주머니밭골굴 210
죽현원터 28
죽현천 77
줄바우 119
줄병 50
줄병밑 50
줄병바우 50
줄솔 74
중서낭당 200
중촌 76
지각산 218
지골 198
지르매재 211
진등 93
진묵밭 36
진배리 70
진배리산 70
짐개들뫼등 168
짐대배기95
짐대배기 111
쬐기골 202

(ㅊ)

차돌광주묘 168
차돌배기55
차돌배기 159
창말 84
창말버덩 85
창터 85
천제당골 121
천제당굼 55
천제당말랭이 178
천포 184
철굴 76
첫물양지 162
청송봉 205
청어등 56
청어장터 58
치쏘 135
칠밭 양지 61

(ㅋ)

쿠시당 113
큰 너다리골 137
큰 늪 73
큰 다래골 62
큰 맷골 38
큰 맷등 46
큰 뫼터 68
큰 물방아골 116
큰 벼락바우골 212
큰 수리병골 62
큰 재피골 48
큰 주머니밭골 210
큰 터 27
큰 통골 36
큰가래골 169
큰갈밭골 118
큰골 106
큰골 202
큰굼 107
큰굼 119
큰굼 152
큰굼 185
큰굼등 217
큰늪 155
큰덜수 89
큰묘목밭 161
큰사랍 169
큰서낭 64
큰양바리밭굼 166
큰재 181

(ㅌ)

탑거리 133
탑거리 196

탕감봉 61
탕건봉 61
태백경찰서 사조분소 78
태재 63
태재 153
터깨 62
터깨골 62
텃골 139
텃골 164
토끼바우 66
통골봉 36
통방아터 121
퇴끼바우 158
퇴끼바우고디 158
퇴재 214
투구봉 54
투장목이 172

(ㅍ)

팥밭골 154
평바디기 49
평정밭깨 49
평지 53
평지골 53
평지말 53
평지밭깨 64
포항구뎅이 88
피난굴 59
피룩산 196
피륵드렁 196
핏골재 33
핏골재골33

(ㅎ)

하 사 미 130
하사미분교장 133
하촌 76
한작골 74
한점터 75
한질쏘 117
할미바우 148
할미쏘 60
호랑골 109
호랑굴 118
호랑이 구녕 142
호랑이굴 66
호식총 50
호식총 110
호식총 116
호식총 137
호식총 139
호식총 154
호식총 172
화냥바우 110
화산봉 73
화장터 166
화장터 185
황지거랑 174
황철배기 117
황철쏘 117
황철촌 118
회재 197
횟골 97
횟골 126
횟골굴 97
횟굴 95
휘꾸모랭이 211
흑운산 92

地名調査에 對談하여 도와 주신 분들

성 명	연 령	주 소
咸仁錫	庚午 78	사조동 1통 1반 (원 동)
權仁燮	丁丑 71	사조동 1통 1반 (원 동)
任弘淳	庚辰 68	사조동 1통 3반 (원 동)
李是在	辛巳 67	사조동 1통 1반 (원 동)
朴連昌	壬午 66	사조동 1통 3반 (원 동)
沈東錫	癸未 65	사조동 1통 4반 (원 동)
李有在	戊子 60	사조동 1통 3반 (원 동)
李鍾烈	戊戌 50	사조동 1통 3반 (원 동)
李鍾雲	丙午 42	사조동 1통 1반 (원 동)
朴仁煥	丙辰 92	사조동 2통 3반 (상사미)
朴春植	壬申 76	사조동 2통 4반 (상사미)
金水淡	癸酉 75	사조동 2통 4반 (상사미)
李聖九	丁丑 71	사조동 2통 3반 (상사미)
權永燮	乙酉 63	사조동 2통 3반 (상사미)
金澤奎	丁亥 61	사조동 2통 1반 (상사미)
朴雲福	丁亥 61	사조동 2통 4반 (상사미)
金琪水	庚子 48	사조동 2통 3반 (상사미)
朴斗鉉	乙亥 73	사조동 3통 3반 (하사미)
辛春善(女)	壬申 76	사조동 3통 5반 (가리골)
金次淵	丙子 72	사조동 3통 3반 (하사미)
朴在學	丁丑 71	사조동 3통 4반 (하사미)
沈應燮	甲申 64	사조동 3통 4반 (하사미)
白興振	丙戌 62	사조동 3통 6반 (천 포)
金燦友	丁亥 61	사조동 3통 2반 (하사미)
金明壽	丁亥 61	사조동 4통 2반 (귀네미)
辛元善	己丑 59	사조동 3통 3반 (가리골)
鄭然業	己亥 49	사조동 3통 5반 (가리골)
金春淵	戊午 90	사조동 5통 1반 (조 탄)
辛甲善	乙酉 63	사조동 5통 1반 (조 탄)
辛在澤	丁亥 61	사조동 5통 1반 (조 탄)
劉炳洙	戊子 60	사조동 5통 2반 (조 탄)
辛尙昊	辛卯 56	사조동 5통 1반 (조 탄)

參考圖書

三陟郡誌 : 沈宜昇　　擇里志
三陟郡誌 : 三陟郡　　大東地志
三陟鄕土誌(金鼎卿)　　東國輿地勝覽
三陟郡邑誌　　三國史記
三陟府邑誌　　三國遺事
陟州誌　　朝鮮王朝實錄
江原道誌　　眞珠誌(崔晩熙)
太白市統計年報　　鄭鑑錄

土助洞地名誌

2006년 12월 31일 印刷
2007년 2월 28일 發行
發行處 太白文化院
發行人 金 剛 山
著 者 金 剛 山
印刷處 대성문화출판사

<<非賣品>>

이 책은 저자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 전재, 복사 할 수 없습니다.

著者 金 剛 山

경력 / 태백향토사연구소 소장
강원문화재전문위원
태백산천제위원회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독립기념관 자료조사위원
태백문화원 원장

저서 / 영산태백
호식장
백경문
태백의 지명유래
우리고장 태백
태백시지 공저
태백의 어제와 오늘